

2020.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선도학교 결과 분석 및 일반화 모델 개발 연구

제 출 문

경상남도 교육감 귀하

본 보고서를 '2020.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선도학교
결과 분석 및 일반화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주관연구기관명: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20.10 ~ 2020.12

연구 책임자: 문현미

공동 연구자: 신윤희

2020.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선도학교 결과 분석 및 일반화 모델 개발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문현미	인제대학교
공동연구자	신윤희	대구사이버대학교
연구협력관	황원판	경상남도교육청
	이상균	경상남도교육청
	백혜란	경상남도교육청
	김호정	경상남도교육청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 개요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은’ 수업방해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사후 처벌이나 징계 중심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관계 회복 및 긍정적 수업 문화 조성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과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방해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10개 선도학교의 이음교실 운영 결과 및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경상남도교육청, 2020e)’,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로 제작 배포된 ‘수업방해 어떻게 할까?: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경상남도교육청, 2020c)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경상남도교육청, 2020b)’,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추진 현황’ 업무보고 자료(경상남도교육청, 2020d),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e-음교실 선도학교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경상남도교육청, 2020a.)’ 자료, ‘수업방해? 이렇게 예방해요!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사례집(경상남도교육청, 2020f)’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들을 기반으로 1차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각 학교의 업무담당교사에게 보내 확인받았으며, 자료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을 요청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무엇보다 이음교실을 시범 운영한 선도학교들의 운영 사례와 경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결과는 이음교실 운영 기반 현황과 이음교실이 운영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이음교실 운영 기반 현황에는 선도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정보와 학교자체 협의체 및 통합지원팀 구성,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음교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저 프로그램, 학급 프로그램, 학교(년)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와 학생이 인식하는 수업방해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총 4,296명의 교사(선도학교 107명, 비선도학교 4,189명)와 학생 19,331명(선도학교 676명, 비선도학교 18,65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전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지 초기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 6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연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베이몽키(Survey Monkey)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은 전체 교사의 경우 수업방해 실태와 심각도, 대응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음교실 인식과 기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수업방해행동 유무와 행동유형, 심각도는 다시 학교급별(초·중·고)과 성별 학교 유형(여학교·남학교·남녀공학)으로 나누어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선도학교의 교사는 추가적으로 이음교실의 운영 실태와 운영 만족도, 운영 효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학생에게 배포된 설문지의 경우 전체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 설문조사하였으며, 선도학교 학생들의 경우 추가로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만족도와 학생 변화에 대해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 설문지 경우에도 학교 분위기를 성별, 학교급별(초·중·고)과 성별 학교 유형(여학교·남학교·남녀공학)으로 나누어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응답 내용은 SPSS statistic subscription을 통해 기술통계로 분석되었으며 문항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응답내용별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이음교실’ 선도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교사의 이음교실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에는 선도학교별로 1-3명, 총 19명(초등학교 9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특수학교 3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이음교실 업무담당 교사와 혹은 개별 지원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였다. 심층면담은 COVID-19로 인해 Zoom 화상면담

을 활용해 각 학교별로 약 1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참여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녹화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를 찾아가는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가지 대 주제,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 ‘이음교실의 성과’,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지원 요구’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대 주제인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4개의 소주제, ‘이음교실 운영 기반 조성의 어려움’, ‘회복적 생활 교육 운영의 어려움’, ‘개별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자료 및 정보의 부재’를 다시 도출하고 총 11개의 범주를 분석해냈다. 두 번째 대 주제인 이음교실의 성과의 경우에는 5개의 소주제, ‘학생의 변화’, ‘교사의 인식의 변화’, ‘학급 분위기와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효과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총 22개의 범주를 분석해냈다. 마지막으로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과 지원 요구에서는 4개의 소주제,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요구’, ‘수업방해 해결 방안 및 지원 요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를 도출하고 32개의 범주를 분석해내어 제시하였다.

마지막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일반화 모델 제안에서는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수업방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이음교실 운영 방안, 이음교실의 성과, 효율적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영역으로 나누어 향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내용 및 절차	6
가.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6
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 조사 분석	6
다.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참여교사 면담 조사	7
라. 이음교실 일반화 모델 제안	7
II.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9
1. 이음교실 운영 기반 현황	9
가.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기본 현황	9
나. 학교자체 협의체 및 통합지원팀 구성	10
다.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14
라.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현황	15
2. 이음교실 프로그램(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17

가.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	19
1) 교사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19
2) 학생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24
3) 부모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25
나. 학급 프로그램	25
1) 교육과정 연계	31
2) 회복적 생활교육	33
3) 집단상담 프로그램	35
4) 진로·창업 프로그램	36
5) 학생주도 프로그램	37
다. 학교(년) 프로그램	39
1)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43
2)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제언	44
Ⅲ. 이음교실 선도학교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 조사 분석 ...	47
1. 설문조사의 연구절차 및 방법	48
가. 조사대상	48
나. 설문 문항 개발	50
다. 내용 타당도 검증	53
라. 최종 설문조사 내용 구성	54
마. 설문조사 실행	57

바. 자료 분석	57
2.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방해 행동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 결과	59
가. 수업방해 행동 실태	59
1) 수업방해 경험 여부와 심각도	59
2) 수업방해 행동 유형의 경험여부와 심각도	62
3) 수업방해 행동 발생 횟수와 기간	95
4) 수업방해 행동 발생의 기능	95
5) 수업방해 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	97
나. 이음교실 인식과 기여도 예측	98
다.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운영 현황	100
1)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운영 전반	100
2)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교사 역량강화 부분	104
3)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과 적절성 부분	107
라. 이음교실 운영 효과	108
1) 이음교실이 학교 및 학급에 미친 긍정적 영향	108
2)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변화	109
3.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 인식	110
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분위기	110
1) 전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분위기	110

2) 학생성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분위기	116
3)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117
4)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분위기	120
나. 이음교실 인식	123
1)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123
2)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이 느끼는 변화	124
IV.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선도학교 교사 면담조사	126
1. 면담조사의 연구절차 및 방법	126
가. 연구 참여자	126
나. 면담의 절차 및 분석	127
2. 선도학교 교사 대상 면담조사 결과	128
가.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	132
1) 이음교실 운영 기반 조성의 어려움	132
2)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의 어려움	136
3) 개별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137
4) 자료 및 정보의 부재	140
나. 이음교실의 성과	141
1) 학생의 변화	141
2) 교사 인식의 변화	144

3) 학급 분위기와 관계의 변화	147
4) 환경의 변화	149
5) 효과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150
 다.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지원 요구	157
1)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157
2)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171
3) 수업방해 행동 해결 방안 및 지원 요구	176
4)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182
 V.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한 제안	187
 1.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187
 가.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의 3단계 예방체계 구축	187
 나.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팀 조직	188
1) 리더십팀으로서의 통합지원팀의 역할과 구성	188
2) 개별화지원팀의 구축	190
3)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및 연계적 협력	190
4) 경남교육청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 확대	191
5) 이음교실 운영 매뉴얼 및 활동자료집의 제작과 보급	191
 다. 관련 사업간 연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로드맵 구축	192

2. 수업방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이음교실 운영 방안 192

가. 이음교실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192

1) 교직원 대상 연수 192

2) 학생 및 부모 연수 194

나.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194

다. 수업방해 행동 유형과 심각도 정의 195

라. 수업방해 행동의 기능과악을 통한 학급 내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196

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 운영 197

1) 수업방해 해결프로그램 교육 영역 197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197

3)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학년 초 집중적인 교육 주간 운영 198

3. 이음교실의 성과 199

4. 이음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0

참고문헌 201

[부록 1]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선도학교 교사용) 203

[부록 2]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비선도학교 교사용) 215

[부록 3]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인식조사(선도학교 학생용) 223

[부록 4]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비선도학교 학생용) 228

표 목 차

<표 II-1-1>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기본 현황	9
<표 II-1-2> 통합지원팀 구성 현황(초등학교)	11
<표 II-1-3> 통합지원팀 구성 현황(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2
<표 II-1-4> 이음교실 관련 지원팀 구성 현황	13
<표 II-1-5> 이음교실 관련 지원팀 구성 사례	13
<표 II-1-6>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현황	14
<표 II-1-7>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	15
<표 II-1-8> 지역 연계 프로그램	16
<표 II-2-1> 이음교실 운영 주제	17
<표 II-2-2> 초등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20
<표 II-2-3> 중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21
<표 II-2-4> 고등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21
<표 II-2-5> 특수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22
<표 II-2-6> 기저 프로그램(학생 대상)	24
<표 II-2-7> 기저 프로그램(부모 대상)	25
<표 II-2-8> 학급 프로그램 실시 여부	26
<표 II-2-9> 학급 프로그램(초등학교)	27
<표 II-2-10> 학급 프로그램(중학교)	29
<표 II-2-11> 학급 프로그램(고등학교)	30
<표 II-2-12> 학급 프로그램(특수학교)	30
<표 II-2-13>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사례	31
<표 II-2-14> 교육과정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	33

<표 II-2-15>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	35
<표 II-2-16>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36
<표 II-2-17> 교육과정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	37
<표 II-2-18> 학교(년) 프로그램 실시 여부	39
<표 II-2-19> 초등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40
<표 II-2-20> 중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42
<표 II-2-21> 고등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42
<표 II-2-22> 특수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43
<표 II-2-23> 개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사례	43
<표 III-1-1> 교사 설문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49
<표 III-1-2> 학생 설문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50
<표 III-1-3>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 초안	51
<표 III-1-4> 수업방해 행동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용 설문지 초안	53
<표 III-1-5> 설문지 초안 내용 타당도 검토된 정보	54
<표 III-1-6>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 최종안	55
<표 III-1-7> 수업방해 행동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용 설문지 최종안	56
<표 III-2-1> 수업방해경험여부와 심각도(전체)	59
<표 III-2-2> 수업방해경험여부(학교급별)	60
<표 III-2-3> 수업방해 심각도(학교급별)	60
<표 III-2-4> 수업방해 심각도(학교급별 변량분석 결과)	61
<표 III-2-5> 수업방해경험여부(학교유형별)	61
<표 III-2-6> 수업방해 심각도(학교유형별)	62
<표 III-2-7> 수업방해 심각도(학교유형별 변량분석 결과)	62
<표 III-2-8>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전체)	63
<표 III-2-9>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전체)	64

<표 III-2-10>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학교급별)	67
<표 III-2-11>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학교급별)	70
<표 III-2-12> 수업방해 행동 유형 심각도(학교급별 변량분석 결과)	75
<표 III-2-13>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학교유형별)	82
<표 III-2-14>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학교유형별)	85
<표 III-2-15> 수업방해 행동 유형 심각도(학교유형별 변량분석 결과)	90
<표 III-2-16> 수업방해 행동 발생 횟수와 기간(전체)	95
<표 III-2-17>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전체)	96
<표 III-2-18>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는 간접적 원인(전체)	96
<표 III-2-19>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얻는 것(전체)	97
<표 III-2-20> 수업방해 행동 발생시 대처방법(전체)	98
<표 III-2-21> 이음교실 인식여부 및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대한 기여 예측(전체)	99
<표 III-2-22>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전체)	99
<표 III-2-23>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선도학교)	100
<표 III-2-24>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적절성 및 만족도(선도학교)	100
<표 III-2-25> 수업방해 프로그램 대상 학생 선정 준거(선도학교)	101
<표 III-2-26> 이음교실 운영 중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 (선도학교)	101
<표 III-2-27> 학부모 교육(선도학교)	102
<표 III-2-28> 학교 내 및 지역사회 협력정도(선도학교)	102
<표 III-2-29> 이음교실 운영예산의 충분성(선도학교)	103
<표 III-2-30> 이음교실 전용공간(선도학교)	103
<표 III-2-31>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선도학교)	105
<표 III-2-32>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의 적절성(선도학교)	106
<표 III-2-33> 효과적인 교사역량강화방법과 가장 필요한 연수내용(선도학교)	106
<표 III-2-34> 이음교실 선도학교 프로그램 실시여부(선도학교)	107

<표 III-2-35> 이음교실 선도학교 프로그램 적절성 부분(선도학교)	108
<표 III-2-36> 학교 및 학급에 미친 영향(선도학교)	109
<표 III-2-37>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 변화(선도학교)	109
<표 III-3-1> 전체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110
<표 III-3-2> 전체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영역별)	111
<표 III-3-3> 학생성별에 따른 학교분위기	116
<표 III-3-4>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분위기(기술통계)	118
<표 III-3-5>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분위기(변량분석결과)	119
<표 III-3-6>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기술통계)	121
<표 III-3-7>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변량분석 결과)	122
<표 III-3-8>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선도학교)	124
<표 III-3-9> 이음교실에 따른 학생 변화(선도학교)	124
<표 IV-1-1> 연구 참여자 정보	126
<표 IV-2-1> 심층면담 결과 요약	128

그림 목 차

[그림 I-1-1] 수업방해 예방 지원 3단계 모델	3
[그림 I-2-1] 본 연구의 연구절차	8
[그림 II-1-1] 통합지원팀 조직 체계도	10
[그림 II-2-1]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변화	18
[그림 III-1-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수업방해현황 및 지도실태 조사 연구절차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토대는 전인교육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우수한 지적능력, 바람직한 교양과 인격,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고루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도록 실현한 안전한 장소이자 교육권이 보장되는 장소이다.
- 학교가 ‘교육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된 지는 십년이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아동 및 청소년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파악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중 ‘수업방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태도와 문제행동,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 교사 지시에 불응하면서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교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불손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업방해 행위는 교사의 교육활동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수업방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업방해 문제는 폭력, 집단 따돌림, 청소년 범죄, 성문제, 자살, 가출, 흡연과 같은 학교 안·밖의 다양한 문제들과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경우 1995년에서 2000년까지 학교폭력 피해율이 20%였던 것이 2006년 17.3%, 2010년

엔 11.8%, 그리고 2014년 3.8%로 나타나 1995년에 비해 학교폭력이 6배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2018년 이후 다시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소폭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예방적 노력이나 조기개입의 중요성 중 하나는 이러한 심각한 이차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데 있다.

- 최진오(2009)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훈화, 질책, 명확한 학급규칙 제시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질책과 훈화의 사용 빈도는 높은 데 반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가정통신이나 부모상담의 경우는 중재 빈도는 낮지만,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중재 방법을 고안했다고 언급했다.
- 수업에 집중하는 당연한 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까지 문제 발생에 뒤따르는 처벌적 사후처리보다 긍정적이고 교육적이며 예방중심의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바람직한 행동 문화를 공유하고 지원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여 더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남형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인 이음교실은 모든 학생을 위한 긍정적 수업 행동을 강화하는 예방 활동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관계 회복에 지향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 이음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과 관계를 잇고, 끊임 없이 수업을 이어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라는 의미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방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노력과 개별 학생들의 수업방해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론적 토대는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SWPBS)과 회복적 생활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은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3단계 예방 체계와 같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크게 3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1단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라는 문화를 공유하고 문제행동의 예방과 교수적 전략지원을 통해 긍정적 학업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중심의 보다 집중적인 중재 및 지원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지원에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집중지원이 제공되며 전문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업방해 예방 지원 3단계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1] 수업방해 예방 지원 3단계 모델

- 선도학교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회복적 생활교육,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사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자, 담임교사, 특수교사, 전담교사, 상담교사(사), 보조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업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 수준이 아닌 국가, 혹은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수준에서의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20년 정책 연구과제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인 이음교실을 개발하고, 10개의 선도학교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과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의 운영 결과 분석 및 참여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경상남도 선도학교의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이음교실’ 운영 경험과 교사·학생의 인식을 토대로 ‘이음교실’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립한다.

첫째,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과제인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운영 계획서 및 운영 사례 보고서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별 운영 내용과 방법을 분석한다.

둘째,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업 방해 현황 및 지도실태,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1)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선도학교와 비선도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남도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를 파악한다.

2)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선도학교와 비선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분위기와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선도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넷째,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운영 사례, 수업방해 실태 조사, 선도학교 교사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상남도 학교에 적용 가능한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일반화 모델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및 절차

가.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본 연구의 이음교실 운영 사례의 분석 대상이 된 학교는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이다. 이음교실을 시범 운영한 선도학교들의 운영 사례와 경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경상남도교육청, 2020e)’,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로 제작 배포된 ‘수업방해 어떻게 할까?: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경상남도교육청, 2020c)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경상남도교육청, 2020b)’,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추진 현황’ 업무보고 자료(경상남도교육청, 2020d),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e-음교실 선도학교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경상남도교육청, 2020a.)’ 자료, ‘수업방해? 이렇게 예방해요!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사례집(경상남도교육청, 2020f)’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1차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각 학교의 업무담당교사에게 보내 확인받았으며, 자료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을 요청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 조사 분석

2020년도 이음교실 선도학교로 지정된 10개교와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비선도 학교 1,443개의 전체교사와 관리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 전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위해 전문가 6인 검토를 받은 후, 연구자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베이몽키(Survey Monkey)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4,296명의 교사와 19,331명의 학생이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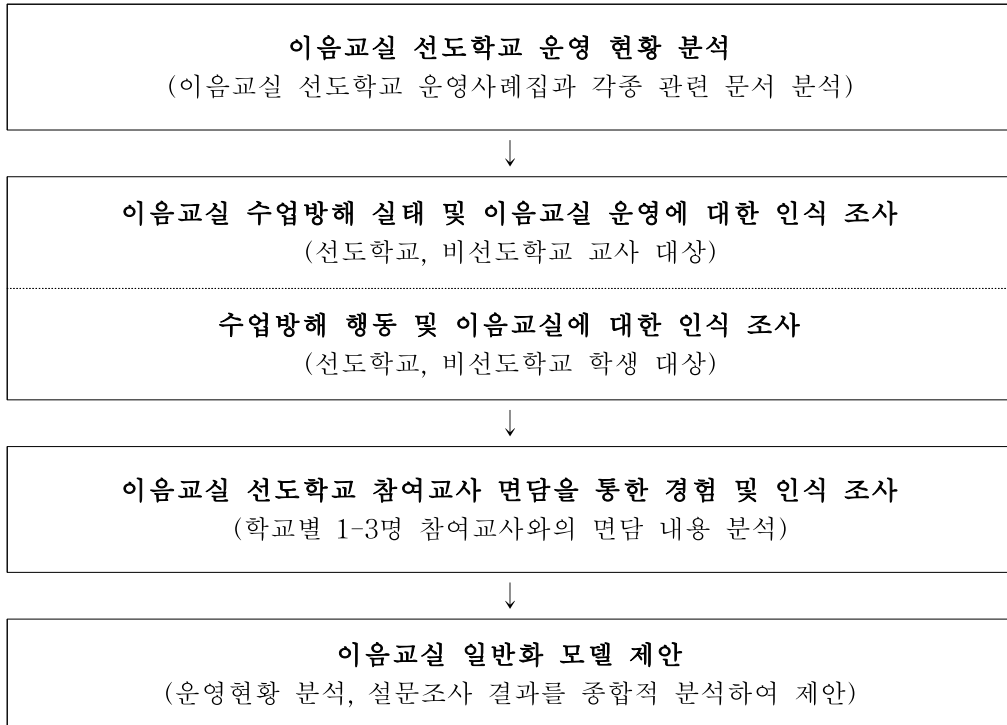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내용은 전체 교사의 경우 수업방해 실태와 심각도,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음교실 인식과 기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업방해 실태와 심각도의 경우 학교급별(초·중·고)과 학교유형별(남·여·남여공학)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도학교의 교사는 추가적으로 이음교실의 운영 실태와 운영만족도, 운영효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학생용의 경우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분위기를 조사하였으며, 선도학교 학생들의 경우 추가로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만족도와 학생 변화에 대해 응답하였다. 질문된 내용은 SPSS statistic subscription을 통해 기술 통계로 분석되었으며 문항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응답내용별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다.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참여교사 면담 조사

2020년도 이음교실 10개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이음교실 업무담당 교사와 개별지원 대상 학생의 담임이 참여하였다. 면담은 각 학교별로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2명의 연구자가 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음교실 지원 및 주제 선정의 배경, 운영 프로그램 내용, 이음교실의 성과, 지원요구 및 일반화모델 개발을 위한 제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이음교실 일반화 모델 제안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현황 분석과 선도학교와 비선도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이음교실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을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I-2-1]과 같다.



[그림 1-2-1] 본 연구의 연구절차

Ⅱ.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1. 이음교실 운영 기반 현황

이음교실 운영 기반 현황은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의 기본 현황, 학교자체 협의체 및 통합지원팀 구성,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이음교실 인프라 구축 현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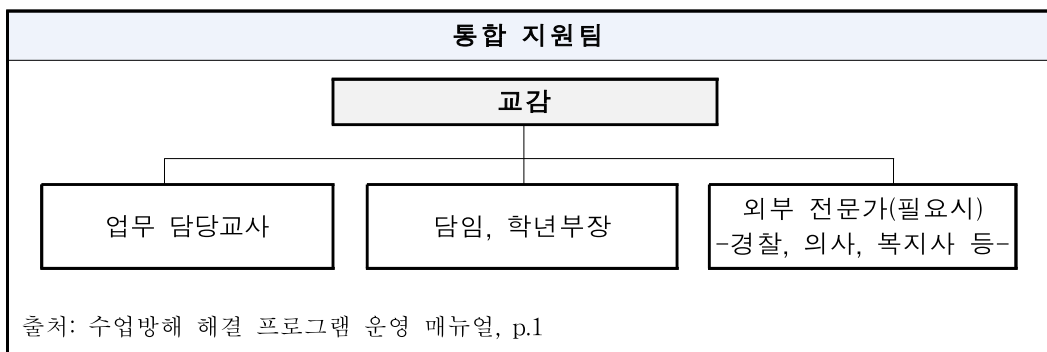
선도학교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Ⅱ-1-1>과 같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5개 모두 공립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 1개와 사립학교 1개, 특수학교는 공립학교였다.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0개 학급과 1,000명의 학생을 보유한 규모가 큰 김해삼성초등학교부터 대홍초등학교와 셋별중학교와 같은 규모가 작은 학교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총 10개 선도학교 중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6개 학교였다.

<표 Ⅱ-1-1>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기본 현황

학교명	학교급	설립별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전문상담(교)사
김해삼성초등학교	초등	공립	40	1000	55	전문상담사
대홍초등학교	초등	공립	7(1)	86	12	무
봉원초등학교	초등	공립	13(1)	297	17	무
외동초등학교	초등	공립	21	516	27	무
일운초등학교	초등	공립	16	312	19	무
사천중학교	중등	공립	23(2)	530(8)	10	전문상담교사
셋별중학교	중등	사립	6(2)	158	17	전문상담교사
경남산업고등학교	고등	공립	24	477	57	전문상담교사
세종고등학교	고등	사립	18	401	38	전문상담사
경남혜림학교	특수	공립	53	300	85	전문상담교사

나. 학교자체 협의체 및 통합지원팀 구성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경상남도교육청, 2020e)에서는 선도학교가 이음교실의 운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교자체 협의체 및 통합지원팀을 [그림 II-1-1]에서 제시된 기본 조직 체계를 모델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교감을 총괄로 하여 업무 담당교사, 담임과 학년부장,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II-1-1] 통합지원팀 조직 체계도

선도학교들이 구성한 통합지원팀의 구성원 직책과 역할은 <표 II-1-2>, <표 II-1-3>과 같다. 9개 학교에서 교감이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1개 학교에서는 교장이 총괄을 맡았다. 모든 학교가 업무 담당교사를 두었다. 7개 학교가 연수교육 담당교사를 두었으며, 8개 학교가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상담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였다. 상담 인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지 않은 2개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내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2020). 중·고등학교 통합지원팀의 경우 학년부장이나 학년별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사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였다.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기초학력, 학습코칭 등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시키고, 교권, 인성, 인권, 안전, 생활교육, 보건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3개 학교(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1개)는 진로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두었다.

<표 II-1-2> 통합지원팀 구성 현황(초등학교)

연 번	김해삼성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봉원초등학교		외동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1	교장	통할	교장	총괄	교감	총괄	교장	통할	교감	총괄
2	교감	총괄	교사	업무담당	인성안전부장교사	업무담당	교감	총괄	교사	업무담당 학습코칭
3	교사	업무담당	교사	연수교육	교육연구부장교사	교사 연수	교사	업무담당	교사	교무담당
4	수석교사	교사상담지원	교사	치료 지원	교무학사부장교사	학부모 연수	교사	교권보호	교사	연수교육
5	교무	교권보호	교사	영양 지원	보건교사	보건·의료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원연수	교사	학생상담1
6	교사	교원연수	교사	특수 지원	진로교육담당교사	진로 프로그램 운영	교사	기초학력	교사	학생상담2
7	교사	인성·생활교육	기초학력코디	기초학력 지도	학생상담담당교사	상담·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실프로그램운영		
8	교사	교육과정	기초학력코디	협력 수업	독서교육담당교사	독서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실프로그램운영		
9	교사	보건·건강교육	기초학력코디	협력 수업	체육교육담당교사	체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실프로그램운영		
10	전문상담사	상담 지원	기초학력코디	협력 수업	교육복지사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교사	특별프로그램운영		
11			학교 상담사	상담치료	행정실장	상담실 구축	교사	특별프로그램운영		
12							보건교사	치료 지원		

<표 II-1-3> 통합지원팀 구성 현황(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연 번	사천중학교		샛별중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헤림학교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직책	역할
1	교감	총괄	교감	총괄	교감	총괄	교감	총괄	교감	총괄
2	교사	학생부업무총괄	생활인성부장	업무담당	교사	업무담당	교사	업무담당	교사	업무담당
3	교사	업무담당	전문상담교사	상담	인성안전부장	업무 지원	교사	교육 지원	교사	컨설팅
4	교사	1학년부장	교무진로부장	연수교육	3학년부장	업무 지원	교사	교육 지원	교사	연수교육
5	교사	2학년부장	교사	생활교육담당	2학년부장	업무 지원	교사	학년 프로그램	교사	치료지원
6	교사	3학년부장	교사	민주시민교육	1학년부장	업무 지원	교사	학년 프로그램	교사	인권 생활교육
7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치유	교사	기록	보건교사	치료 지원	교사	학년 프로그램	교사	진로
8	보건교사	보건			상담교사	상담 지원			교사	김태호
9					진로교사	진로 지원			교사	보건

<표 II-1-4>와 같이 4개 선도학교는 통합지원팀 외 이음교실과 관련된 별도의 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지원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사례를 <표 II-1-5>에 제시하였다.

<표 II-1-4> 이음교실 관련 지원팀 구성 현황

학교명	특별 지원팀
김해삼성초등학교	•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팀 • 학교적응 및 학습코칭 지원팀
외동초등학교	• SOS 지원팀
샛별중학교	• 특별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위원회 구성
경남혜림학교	• 행동지원 솔루션팀

<표 II-1-5> 이음교실 관련 지원팀 구성 사례

외동초등학교 SOS 지원팀	교감, 협력교사, 전담교사, 교과전담수업 시간의 담임교사 중 희망자로 구성하여 분노, 충동 등으로 인한 소란피우기와 같은 수업방해 행동이 나타나는 학생에게 즉각 투입되어 학급에서 분리시켜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지도하였다.
경남혜림학교 수업방해 솔루션팀	수업방해 등을 초래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중재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업방해 솔루션팀 구성 팀 조직 - 긍정적 행동지원: 학생별로 담임교사, 행동지원전문가,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한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교사 교육 제공 -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컨설팅 및 교사 교육

다.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표 II-1-6>과 같이 대다수의 학교(8개)가 2020.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주로 기존의 Wee클래스나 상담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상담실을 구축하였다. 외동초등학교는 개인상담실과 소집단상담실을 마련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동학년 교사 소통공간을 구축하였으며, 대흥초등학교와 봉원초등학교의 사례는 교장실을 교육공동체 소통공간으로 바꾸었다. 외동초등학교는 놀이활동실을, 셋별중학교는 모래놀이상담 공간을 마련하였다. 경남해림학교의 경우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급과 특별실에 긴급벨을 설치하였다. 선도학교별 공간 조성 사례는 <표 II-1-7>과 같다.

<표 II-1-6>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현황

학교명	기존 상담실 설치 여부	환경 조성
삼성초등학교	Wee클래스	• 회복적 교실 환경 조성
대흥초등학교	유	• 공부방 • 상담실 • 교장실 → 다모임방(카페)
봉원초등학교	무	• 상담실 • 교장실 → 교육공동체 소통 공간
외동초등학교	무	• 개인상담실(이음교실) • 소집단상담실(이음교실) • 놀이활동실
일운초등학교	무	• 별관 증축하여 상담실 구축
사천중학교	Wee클래스	• 학년이음교실(학년별) • 이음교실(Wee클래스 리모델링)
셋별중학교	유	• 모래놀이 상담을 위한 피규어 및 모래 구입(상담실 2층 다락방에 비치) • 학년별 담임 교무실 각 층에 배치
경남산업고등학교	유	• Wee클래스 리모델링 • 아람교실 구축
세종고등학교	Wee클래스	-
경남해림학교	무	• 해림라운지 • 모든 학급 및 특별실에 긴급벨 설치

<표 II-1-7>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

외동초등학교 놀이활동실	학교 내 빈교실을 활용하여 놀이활동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제공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분노, 충동 등 과잉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수업방해의 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흥초등학교 다모임방	학교 공간도 혁신하였습니다. 교장은 교장실을 교육공동체 소통의 공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도서실을 나누어 학생들을 위한 상담 공간을 만들었고 유희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고쳤습니다.
사천중학교 학년 이음교실	학년실 구축이 동학년 담임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에 큰 도움이 되었음 수업방해나 생활교육에 일관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음. 학년부 협의회의 활성화로 수업방해 예방과 생활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짐
셋별중학교 모래놀이상담실	Wee클래스 2층 개인상담실에 모래놀이치료를 위한 세트 구축하여 수업방해가 일어나는 학급을 중심으로 집단 모래놀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 모래놀이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함
경남헤림학교 긴급벨 설치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과 교권보호를 통한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긴급벨 설치함

라.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현황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경상남도교육청, 2020)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역 상담실, 병원, 동사무소(복지), 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예시하고 있다. 2020. 이음교실을 진행하면서 선도학교들이 운영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은 <표 II-1-8>과 같다. 경남교육청과 Wee클래스를 포함하여 병원,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센터, 인권·인성·폭력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대학 등 경상남도에 소재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표 II-1-8>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학교명	지역 연계
삼성초등학교	• 김해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상담 지원 • 기초학습부진 및 교과부진학생의 두드림사업 연계 지원 • 다문화 및 교육복지우선사업과 연계한 개인맞춤형 상담지원 • 부경평생교육센터 및 김정미 미술치료 연구소, 굿네이버스 중부센터 연계 상담 지원 • 경남교육청 ‘찾아가는 교원힐링 연수’ 지원
외동초등학교	• 외부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Wee센터, 병원 상담,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 치료 등) • 찾아가는 인권교실(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 찾아가는 인성교실(삼락회)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창원시) • 성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외부상담센터 전문가활용) • KBO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티볼교실(KBO)
일운초등학교	• Wee클래스
사천중학교	• 사천행복교육지구 꿈채움 자율동아리 - 축구동아리
셋별중학교	• 덕유 학생교육원 양궁체험(1학년) • 거창성가족상담소 불법카메라 탐지 체험 프로그램(전교생) • 민들레울(거창 북상 허브농장) 허브 힐링 체험(3학년) • 거창 겨울연극제 참가 (창체-연극동아리) • 하늘화장품공장 화장품 만들기, 그릇쟁이 공방 도자기 굽기, 곰내가 체험마을 무드등 만들기(1학년)
경남혜림학교	•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와 연계 개인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PBIS) •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와 연계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2. 이음교실 프로그램(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 프로그램’으로 명명되는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급 단위의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문제 진단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개선하고 관계 회복을 도와주는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이다(경상남도교육청, 2020).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음교실의 선도학교별 운영 주제는 <표 II-2-1>와 같다.

<표 II-2-1> 이음교실 운영 주제

학교급	학교명	연구주제
초등 (5)	삼성초등학교	마음잇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관계회복, 수업회복 & 행복한 공동체 세우기
	대흥초등학교	『따로 또 같이』
	봉원초등학교	BTS(Bongwon Together Solution)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운 교실 만들기
	외동초등학교	학생 성장을 돕는 행복알찬 성찰·개선·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운초등학교	수업방해, 사전에 해결하기
중등 (2)	사천중학교	소통, 존중, 협력으로 배움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샛별중학교	4C를 중심으로 한 샛별중 교육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고등 (2)	경남산업고등학교	존중과 신뢰로 나·너·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수업
	세종고등학교	예절교육과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
특수 (1)	경남해림학교	PBIS(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를 통한 교권 Up! 학생 인권 Up!

2020.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경상남도교육청, 2020e)’ 내용을 보면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은 크게 기저프로그램과 학급

프로그램, 학교(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음교실의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은 초기 지원 계획(경남교육청, 2020e.) 단계에서 중반기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추진 현황 보고(경남교육청, 2020d.) 단계에서 각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초기 기저 프로그램 중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학급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구분하여 기저프로그램에서는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와 같이 학생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학급 프로그램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들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후반기 운영 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추진 현황
학교(년) 프로그램	학교(학년)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득이하게 분리교육이 필요한 경우, 수업방해 학생을 대상으로 - Wee센터(스쿨), 지역청소년센터,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연계 - 심리·집단상담, 정서·인지행동치료, 명상치료, 예술치료 - 역할극, 진로교육, 독서치유, 보건·의료	⇒	협력적 문제해결 (학교 내 교원, 외부전문가) - 진로 코칭 - 평화감수성훈련 - 독서치료 - 관계개선프로그램 - 과목별 학습코칭 -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 개인 및 집단상담 - 컨설팅
학급 프로그램	학급 단위의 문제해결 프로그램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할 경우 - 교사와의 관계 회복, - 학급 친구들과의 협력적 문제해결 등	⇒	교사주도적 문제해결(학급내) - 회복적 신뢰서클 - 문제해결서클 - 학급규칙 만들기 -수업규칙 알리기 - 학급친구들과 협력적 문제해결 등
기저 프로그램	수업방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급 생활교육 전략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 회복적 생활교육, 생활 협약, 학기 초 교우관계 프로그램 등 -(교사)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감정코칭, 비폭력대화법 등 연수 지원	⇒	교사연수, 학생교육, 학부모 연수 (지원단, 전문강사, 교육청연계 지원) - 감정코칭 - 비폭력대화 - 회복적 생활교육 - 배움중심수업 등

[그림 II-2-1]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변화

가.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선도학교들의 기저 프로그램은 교육공동체(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 및 연수, 특강, 컨설팅, 혹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이나 동아리 등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이 아닌 이음교실에 대한 이해나 교육을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노력도 포함하였다. 각 선도학교별 기저 프로그램 중 교사 대상, 학생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도학교가 학생이나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연수나 교육 방식을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1) 교사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0. 이음교실 선도학교들은 COVID-19로 인해 교사 대상 프로그램 역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주로 이음교실 추진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초빙 연수를 원격 연수로 전환하여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대다수의 선도학교들이 외부지원 프로그램과 자생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다. 외부지원에 의한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컨설팅단, 외부 전문강사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고, 자생적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룬 주제는 수업방해 예방, 회복적 생활교육, 심리상담 관련 주제들이었으며,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동아리 같은 경우 회복적 생활교육, 사례 및 해결방안 공유,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학교급별과 특수학교로 나누어 초등학교 <표 II-2-2>, 중학교<표 II-2-3>, 고등학교 <표 II-2-4>, 특수학교 <표 II-2-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2-2> 초등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학교명	교사 대상 이음교실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태
김해삼성 초등학교	• 이음교실 선도학교 컨설팅	컨설팅
	• 직무연수: 회복적 생활교육, 감성코칭, 비폭력대화법, 관계개선, 미술심리상담, 학급경영	원격
	•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즐거운 배움 수업 연수 - 학년별 배움 주제 선정	자체
	• 미술심리상담의 기초와 실제 -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사례를 통한 미술심리상담의 실제	자체
	• 전문적 학습 공동체- 동학년 교사 중심	자체
	• 교사동아리: 놀음소리 연구회를 통해 악기 연주 능력 배양	자체
	• 교사와 함께 풀어나가는 수업방해, 교권보호 및 치유 원격직무연수 참여	경남교육청주관
	• 경남교육청 ‘찾아가는 교원힐링 연수’	경남교육청주관
대흥 초등학교	• 교직원 연수: ‘교사 수준 교육과정, 기회의 사다리’ 구성(3일)	자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체
	• 교직원 상담 연수	상담사
봉원 초등학교	• 수업방해 해결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	원격
	• 학급긍정훈육법	원격
	• 뇌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연수	초빙
	• 학년군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체
외동 초등학교	• 전교원 연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나가는 수업방해	원격
	• 학년 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독서 토론	자체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자체
	• 인권감수성 기르기 연수	자체
	•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체, 원격
일운 초등학교	• ‘회복적 정의 페리다임’ 연수(12차시)	초빙
	•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제’(월 1회 4회기)	컨설팅
	•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실시(월 2회) -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제’ 연수와 연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교육현장 투입과 경험의 공유, 반성을 통한 환류	자체
	•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도서 읽기	자체
	• 회복적 생활 교육 연수	원격

<표 II-2-3> 중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학교명	교사 대상 이음교실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태
사천 중학교	- 회복적 생활교육(15시간) - 교사 책 함께 읽기: 학급긍정훈육법, 마인드셋 등 - 학년부 협의회	초빙, 원격 자체 자체
샛별 중학교	- 교원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직무연수(30시간) - 특수직무연수기관 지정 신청하여 자체 진행 - 신뢰서클 진행 훈련, 직무연수 시 사례 나눔 - 모래놀이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 교원 2인(담당자, 교감) 교육상담프로그램 - 영남모래놀이학회(대구) 교육 참여 - 전문적 학습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수업 연수, 수업나눔 실천, 온라인밴드(2019년부터 운영) 운영하여 교사의 수업을 공유하며 타교사와 함께 나눔 - 온라인 학습기간 중 금요 교사 줌협의회 - 매일 아침 교직원 협의회 ‘인권 및 교권, 회복적 생활교육’ -통합지원팀, 담임대상 컨설팅 진행 - 전교직원 대상 인권 및 교권을 위한 역량강화연수 진행	초빙 초빙 초빙, 자체 초빙, 자체 자체 초빙 초빙

<표 II-2-4> 고등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학교명	교사 대상 이음교실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태
경남산업 고등학교	- 회복적 생활교육 교직원 연수(KOPI, 15시간) - 회복적 생활교육 교직원 연수(컨설팅단, 6시간) - 문제해결 서클 교직원 연수(컨설팅단, 6시간) - 학년별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다모임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10명)	초빙 초빙 초빙 자체 자체
세종 고등학교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 학년,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	원격, 초빙 자체

<표 II-2-5> 특수학교 기저 프로그램 운영 사례(교사 대상)

학교명	교사 대상 이음교실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태
경남 혜림학교	• 교육활동의 이해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교사 대상 학교 홈페이지 연수물 탑재	자체
	• 찾아가는 교원 힐링 캠프	초빙
	•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연계 수업방해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자체
	• 장애학생 맞춤형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	컨설팅
	•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PBIS)	집합, 원격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	초빙

교사들이 보고한 수업방해 행동 예방 관련 연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김해삼성초등학교
관계회복, 수업회복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이 강화됨
- 봉원초등학교
수업방해 예방 역량강화 교원 연수는 문제 행동의 결과가 아닌 행동의 목적을 바라보고, 평가적인 칭찬보다는 응원의 격려를 적용하게 되는 기회가 됨. ‘수업방해’의 의미를 교권침해라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학급 문화에서 발생하는 전체 현상까지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기회가 됨
- 외동초등학교
수업방해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를 통해 문제행동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노력하게 되었다.

학교 내 자생적 교사모임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해 교사들이 보고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김해삼성초등학교

-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배움 중심 문화 조성됨

○ 대흥초등학교

- 함께 설계하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반성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각자의 노력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합쳐나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일운초등학교

- 본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의 연계로 실시된 회복적 생활교육 교원 연수(총 5회기)를 통해 담임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생활지도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남.

○ 경남산업고등학교

- 정기적인 동아리 운영을 통해 동료 교사와 고민,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경험을 함.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보고한 효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 경남산업고등학교(효과)

- 서클 실습과 기획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서클운영에 대한 진행능력을 신장함.
-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됨.

○ 김해삼성초등학교(제언)

- 이음교실 선도학교 컨설팅(2020.10.30.) 이후 보다 실질적인 기저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이 됨. 이음교실의 이론적 토대인 회복적 생활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함.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는 이론 위주의 연수보다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실제 학급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새 학년 맞이 준비 기간에 신뢰 서클 활동 및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면 회복적 가치를 담은 교육관에 의해 수업방해 예방이 용이하고, 사제지간 따뜻한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2) 학생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표 II-2-6>에서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원격 연수, 초빙 특강, 온라인 수업, 집단상담, 책 읽기와 저자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육에서는 학급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교권 침해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표 II-2-6> 기저 프로그램(학생 대상)

학교명	이음교실 관련 학생교육	형태
대흥초등학교	- 학생상담 프로그램 - 학년별로 5~6명 소집단 상담(남, 여)	상담사
외동초등학교	- 어울림 프로그램 - 회복적 생활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체 자체 자체, 초빙
일운초등학교	회복적 신뢰 서클 사전교육	자체
사천중학교	- 온라인 수업-학급비전과 학급자치 - 온라인 수업-진정한 사과와 용서, 회복적 정의 - 온라인 수업-존중의 약속 정하기	자체 자체 자체
샛별중학교	- 전교생 한 권 읽기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대화’ 저자초청강연회, 질의응답 - 학생회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초빙, 자체 자체
경남산업고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 연수(KOPI, 14시간)	초빙
세종고등학교	학급회 활성화 - 학급별 구호 및 반티제작	자체
경남해림학교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친구사랑 인성교육 및 민주인권 실천 - 학급별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체험활동	자체, 초빙 자체

3) 부모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0. 이음교실에서는 가정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었으나, COVID-19로 인해 대폭 축소하거나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표 II-2-7>을 보면 3개 학교만이 다수 회기에 걸친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II-2-7> 기저 프로그램(부모 대상)

학교명	부모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태
대흥초등학교	• 학부모 아카데미(교장, 1, 2개월당 1회)	자체
외동초등학교	•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학부모교육 •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학부모상담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판 등 대면 또는 전화상담
사천중학교	• 가정통신문 2회 발송	
샛별중학교	• 회복적 부모교육 (15시간) - 매주 목요일 5주간 실시 • 성인권 교육, 행복한 자녀교육지도 자체제작(영상 및 인쇄물)하여 배포 수업공개 영상 홈페이지 탑재	자체 초빙 & 자체
경남해림학교	• 교육활동의 이해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배부	자체

나. 학급 프로그램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2020)에는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의 예시로 교권교육 프로그램, 독서교육 프로그램, 보건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 상담·치유·대안 프로그램이 예시되어 있다. 2020. 이음교실의 '학급 프로그램'이 전학년,

혹은 특정 학년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학급 단위에서 운영된 예방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선도학교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개 선도학교 중 9개 학교가 학급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연계한 교과목과 활동은 다양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교(7개 학교)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실시된 프로그램은 진로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5개 학교)과 학생자치·학생주도 활동이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모두 초등학교(4개 학교)였다. 그 외 교권교육, 인권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음악·미술·문화 활동, 폭력 및 교권활동 예방교육, 관련 검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인력 배치를 통한 학습지원을 한 학교들도 있었다. 선도학교들이 수업방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 구체적인 학급 프로그램은 <표 II-2-9>, <표 II-2-10>, <표 II-2-11>, <표 II-2-12>와 같다.

<표 II-2-8> 학급 프로그램 실시 여부

프로그램	김해성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봉원초등학교	외동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셋별중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경남혜림학교
교육과정 연계	○	○	○	○	○	○	○		○	○
회복적 생활교육	○		○	○	○	○	○	○		
집단상담	○	○		○	○					
진로·창업 프로그램	○				○	○	○		○	
학생주도 프로그램	○	○			○		○		○	

<표 II-2-9> 학급 프로그램(초등학교)

학교명	학급 프로그램	대상	진행	교육과정 연계
삼성 초등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규칙, 상호존중약속, 신뢰서클	학생	교사-학생 상호	자치활동
	- 교사와 함께하는 책여행 - 매일 아침 10분 독서	학생	담임교사	아침활동
	- 꿈가꾸기 여행 - 진로체험학습의 날, 진로멘토와의 만남	전학년	진로강사	진로활동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감성음악여행 - 1인 1악기 교육(담임 보조교사) - 교사와 함께 하는 연주회	전학년	외부강사	음악, 창의적 체험활동
	- 마음어루만짐 집단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학년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학급상담프로그램 운영 (강사1, 보조교사2)	1-5학년 전학년	미술강사	미술, 즐거운 생활
	‘토닥토닥 happy-virus’ 또래관계증진 학급형 상담프로그램 -학급별 6회기 상담 실시(강사1, 보조교사1)	6학년 전학년	상담강사	국어, 도덕
대흥 초등학교	- 기초학력자원봉사자 배치 - 수업시간 협력교수, 그 외 시간 공부방 교사	전학년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국어, 수학
	학급 상담동아리 운영	5, 6학년	담임	자치활동 중 동아리활동
봉원 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선도규정	전교생	교육공동체	-
	학급별 인성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긍정훈육법	전교생	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찾아가는 인성교육	5, 6학년	경남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CAP-청소년 폭력예방교육	2-6학년	초록재단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명	학급 프로그램	대상	진행	교육과정 연계
외동 초등학교	• 어울림 프로그램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전학년	교사	교과
	• 신뢰서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월1회)	전학년	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 학년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방해해결 프로젝트학습(8차시)	전학년	교사	교과
	• 경남교육청 매뉴얼 ‘수업방해, 어떻게 해결할까?’ 활용 수업방해문제해결 프로그램	학년별 학급선택형	교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 학급 특색 프로그램 - 감성코칭, 자존감 기르기, 소통과 공감, 친구사랑, 공동체 의식함양 등	학급선택형	교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 집단상담 프로그램 - 1~2학년 ‘자기표현 프로그램’ - 3~6학년 ‘관계회복 프로그램’	전학년	외부전문가	창의적 체험활동
일운 초등학교	• 가라사대 만들기 - 학교차원의 기대행동 정의 및 게시	전학년	학생주도	-
	• Respect Day 운영 - 학급별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정하고, 반티셔츠에 새겨 학년군별로 지정된 Respect Day에 입고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하기 - 추후지도: 다른 학급의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조사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행동 실천에 모범이 되는 학생 추천하기	전학년	학생주도	국어
	• 서클활동 및 존중의 약속 만들기	전학년	학생주도	창의적 체험활동
	• 집단상담프로그램(학년별 특성 고려) - 음악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전학년	외부강사	-
	• 진로교육프로그램 - 진로적성검사(3-6학년) - 꿈나래제 운영: 원격진로멘토링, 직업체험부스, 꿈끼자랑	전학년	학생주도	-
	• 선비문화체험 및 도예체험	전학년		-

<표 II-2-10> 학급 프로그램(중학교)

학교명	학급 프로그램	대상	진행	교육과정 연계
사천 중학교	• 청소년 강점 검사 - 개인 상담 및 생활교육 자료로 활용	전학년	-	-
	• SLT 자기조절학습검사 - 학습 요인별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의 방향 설정	1,2학 년	-	-
	• 비폭력 대화 특강	1학년	도서저자	-
	• EBS창의창업캠프(1일 전일제 반별 프로그램) 아이디어 전략 및 전문직업 분야 알아보기	2,3학 년	EBS 강사	-
	• ‘꿈을 키우는 행복공동체’ - 학급 신뢰서클, 공예 체험학습, 인성교육	3학년	수석교사	-
	• 트릭아트 및 벽화 속 수학 - 수학 프로젝트 학습(6~7명 소집단)	1학년	수학교사	수학
셋별 중학교	• 인권 및 교권 존중을 위한 체험 교육 - 스스로 참여하는 학급규칙 제·개정	전교생	학생회	창체-자율
	• 학습 코디네이터 활용 - 느리게 배우는 학생을 위한 수업보조강사	전교생	교과 담당교사, 인성부장	영어(전학년) 수학(학년)
	• 존중과 배려 프로젝트 수업 - ‘힘오포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자’ (1학년, 내년 달력 만들기) - 도서 활용, 모둠신문 제작 및 전시(3학년)	1,3학 년	교과 담당교사	영어- 기술·가정- 국어 교과통합
	• 학급 ‘존중의 약속 만들기’ 신뢰 서클 운영 1회: 코로나 규정 지키기(강사초빙) 2회: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셋별예술제를 위한 학급회의 (학급별 자체 진행) 3회: 코로나 규정 지키기(학생회진행, 전학급)	전학년	외부강사 (담임, 부담임 참여)	창체-자율
	• 애플데이 엽서 공모	전학년	학생회	창체-자율
		전학년	또래 상담부원	미술-상담
	• 진로 및 체험중심 프로그램 교과간 연계 진로 및 체험중심 프로그램 진행	전학년	교과 담당교사	국어-미술- 진로-사회- 도덕-과학- 기가
	• 가을 사진 콘테스트	3학년	미술교사	미술
	• 영어 포토앨범제작 콘테스트	3학년	영어교사	영어
	• 학기초 전교생 전화상담	전학년	담임	-

<표 II-2-11> 학급 프로그램(고등학교)

학교명	학급 프로그램	대상	진행	교육과정 연계
경남산업 고등학교	• 학기초 전교생 전화상담	전학년	담임	
	• 존중의 약속 만들기	전학년	학생& 담임교사	-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전학년	학생& 담임교사	-
	• 하루 한 글귀, ‘말 글 담’ 프로젝트	전학년	학생& 담임교사	-
세종 고등학교	• 진로 동기부여, 자기주도학습 캠프 전문기관의 우수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에 맞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비전 제시	1, 2학년	외부강사	-
	•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예절교육 캠프	1, 2학년	외부강사	-
	•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소통과 배려 프로그램 - 문화체험활동(영화, 공연), 함께 하는 영남알프스(산행), 건고 싶은 아리랑길(걷기), 자연문화탐사(문화유산 답사)	1,2학년	담임 멘토링교사	자율활동
	• 청소년강점검사	1학년	담임	-
	• 월별 출결 및 수업태도 점검	전학년	교과담임 학급실장	-

<표 II-2-12> 학급 프로그램(특수학교)

학교명	학급 프로그램	대상	진행	교육과정 연계
경남해 림학교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전학년	담임 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 친구사랑 인성교육 및 민주인권 실천 - 학급별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체험활동	전학년	담임 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1) 교육과정 연계

대다수의 선도학교가 학급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내용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업방해 행동이 학생의 학력 수준과 학습의 어려움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학습지원을 통해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과정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이음교실의 운영으로 교사들이 갖게 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의 사례를 <표 II-2-13>에 제시하였으며, 학급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II-2-13>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사례

외동초등학교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경남교육청 매뉴얼 ‘수업방해 어떻게 해결할까’ 활용 프로그램 - 교권교육, 독서교육, 보건교육, 진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인권교육, 상담·치유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감정코칭, 자존감 기르기, 소통과 공감, 친구사랑,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맞춤형 학급 특색 프로그램 운영		
	구분	주제	학급 특색프로그램 내용
	1학년	다름을 이해하기	비오는 날, 나의 꿈은?, 오색빛깔 나비처럼, 버블버블 비누방울 속으로
	2학년	존중, 배려, 공감	존중과 배려 공감 프로그램, 그림으로 교실 세우기 우리 함께 걷자, 친구사랑 실천 프로그램
	3학년	나의 감정 표현하기	친구 마음 읽기, 감정 인형 만들기, ‘사랑해’라고 말해요, 나의 감정 표현하기
	4학년	생명 존중	생명을 소중히, 오감 발달 프로젝트, 독서 마블을 통한 인성 성장, 꽃꽂이를 통한 심적 안정, 나만의 화분 만들기
	5학년	인권 존중	놀이 문화 체험, 식물 가꾸기, D.I.Y 제작,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한 교실 만들기
	6학년	자아 존중감 향상	버섯키우기, 비주얼씽킹활동, 공예품 만들기, 컬러 테라피, 세계 야경 스크래치, 할로윈, 스트링아트, 계절 민화 컬러링북

○ 대흥초등학교

- ‘교사 수준 교육과정, 기회의 사다리’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인(교사, 학생)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과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동시에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동초등학교

-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급/학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존중과 배려의 학급문화, 자존감 기르기, 감성코칭, 소통과 공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전체학생의 수업방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회복적 생활교육

대다수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운영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경우 교사들은 존중의 약속, 신뢰서클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성되는 존중과 배려, 소통과 책임의 학급 문화가 수업방해 행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과정 연계하여 운영한 학교 사례는 <표 II-2-14>에 소개하였으며,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학급의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운영을 위한 제언은 제시하였다.

<표 II-2-14> 교육과정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

경남산업고등학교 첫만남서클	1학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학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여 서로 존중하는 학급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경남산업고등학교 존중의 약속 만들기	1학기 전학년 대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기, 우리반 존중의 약속 정하기 2학기 존중의 약속 점검하기, 이미지 프리즘 카드 활용 원하는 우리반 이미지 공유하기, 존중받았던 경험과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 공유하기, 우리반 존중의 약속 정하기

○ 김해삼성초등학교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교실환경 조성은 새로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됨
-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학급규칙, 존중의 약속을 정하고 지킴으로서 수업방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함
- 회복적 생활교육이 기존 생활지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사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됨

○ 봉원초등학교(학교 규칙)

-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의 보호 및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의 바탕 마련
- 수업방해 행동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 마련

○ 일운초등학교

- 신뢰서클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학급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학급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사천중학교

- 소통과 배려, 책임의 학교 문화에 대한 필요성 공감
-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학교 전체의 생활교육 방침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이 필요함.

○ 셋별중학교

- 인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진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부분적으로 일어나곤 했던 처벌, 징계에 대한 교사들의 경각심 제고라고 느껴집니다.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이 교육적이지 않고 우리의 주류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광범위한 인식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 경남산업고등학교

- 존중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존중의 약속이 없을 때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가 형성됨.
- 존중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 방법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도 있었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여, 모든 교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초등학교(4개 학교)만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의 목표는 또래 관계증진, 자기표현 및 자아성장, 관계회복 등으로 <표Ⅱ-2-15>에 제시하였다.

<표 Ⅱ-2-15>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

김해삼성초등학교
‘토닥토닥
happy-virus’

- 굿네이버스중부센터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및 연구팀과 연계, 전문상담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실행,
- 국어와 도덕 교과시간과 연계, 2시간 블록수업

① 반가워, 거울아	② 거울아, 거울아	③ 말해줘, 거울아
• 프로그램, 강사소개 • 사전검사실시, 그림 투사 검사 • 집단프로그램 주제 및 참여자 규칙 • 자기소개하기	• 동영상 시청 후 소감 나누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강점토폭 이름 짓고 발표하기 • 네가 필요해 (우리 학급 피자 만들기)	• 컬러점토로 상상의 나 캐릭터 만들기 • 캐릭터에 이름붙이고 장점 소개하기 • 들으면 힘이 나는 말과 행동 빙고 게임
• 사후 검사 실시 • 초성 게임으로 전체 활동 목표 정리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인사	• 동영상 시청 후 생각과 느낌 나누기 -동들의 변신 • 미래에 꿈을 이룬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쓰기	↓ • 동영상 시청 후 생각과 느낌 나누기 -장애를 유쾌하게 극복한 사람들 • 부정적인 상황에서 너라면? • 관점 바꾸기(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기)
④ 함께해, 거울아	⑤ 행복해, 거울아	④ 열려라, 거울아

○ 김해삼성초등학교

- 또래관계증진상담을 통한 자신의 존엄성 인식으로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마음을 가짐
-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자기 대상의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함
-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 경험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함
-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안전한 학급, 학교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임
- 학생들 개개인을 관찰, 기록하여 담임교사와 자료 공유하며,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한 점이 바람직함

○ 외동초등학교

- ‘관계회복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한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서 친구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일운초등학교

-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 충동성, 열등감, 다른 강한 정서들을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감정 정화, 긴장이완의 효과로 분노조절과 우울감소에 도움

4) 진로·창업 프로그램

이음교실 학급 프로그램으로 5개 학교(2개 초등학교, 2개 중등학교, 1개 고등학교)가 진로 혹은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강사의 특강이나 멘토링 활동, 캠프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모든 학교가 체험중심, 혹은 학생주도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꿈나래제’로 실시된 일운초등학교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표 II-2-16>에 제시하였다.

<표 II-2-16>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일운초등학교 꿈나래제	• 원격진로멘토링: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그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직업체험부스: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정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직업체험부스를 준비하고 운영 • 꿈끼자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산하는 자리이며 희망팀의 신청을 받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학급의 학생들이 시청
--------------------------------------	--

○ 사천중학교

- 자기주도적인 행동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진로 목표에 대한 접근을 이루어 진취적 태도 함양

○ 셋별중학교

- 여러 진로체험, 만들기 체험 등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함.

○ 세종고등학교

- ‘이음교실’에 참여하면서 진로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가면서 학교생활이 더욱 재미있어졌다. (학생 참여후기)

5) 학생주도 프로그램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한 학교들은 ‘존중의 약속 만들기’와 ‘신뢰서클’을 학생 주도 활동으로 운영하였다. 학교 자체에서 학생주도 활동을 개발한 사례들도 있었다. 일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급 프로그램을 학생 주도로 운영하였다. 사례를 <표Ⅱ-2-17>에 제시하였다.

<표Ⅱ-2-17> 교육과정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

셋별중학교 애플데이 엽서공모전	• 미술-상담 연계 활동으로 애플데이 엽서 공모전을 열어 애플 데이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을 선정하여 엽서로 제작 •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또래상담 부원들이 주도하여 행사를 진행 
일운초등학교 가라사대 만들기 'Respect Day'	• 학교차원의 기대행동을 정의하고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게시 • 전교어린이회가 주체가 되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 • 학생작품 선정 후 디자인업체에 보정작업 후 학교 장소별 게시 • 각 학급에서 존중의 메시지를 정하여 존중의 문구가 들어간 학급 T 제작하고, 일주일 중 Respect Day를 지정하여 존중T를 입고 등교 • Respect Day에는 존중T에 적힌 문구를 실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해주기(배려하는 말하기)  

○ 일운초등학교

- ‘가라사대’, ‘Respect Day’, 진로교육프로그램 ‘직업부스체험’ 등의 이음교실 전반적인 활동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도록 계획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직접 운영하며 학생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셋별중학교

- ‘애플 데이’는 왕따 및 집단따돌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친구(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친구(선생님)관계가 좋아져서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다. 학교(년) 프로그램

2020. 이음교실의 학교(년) 프로그램은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수업방해 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에 학생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통합지원팀에 의뢰하여 학교(년) 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소집단 및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은 다양하였다. <표 II-2-18>에서 학교급별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들은 모두 학습지원과 개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담, 학습, 진로 등 다양한 활동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순으로 선도학교가 개별학생을 선정한 근거와 제공한 프로그램을 <표 II-2-19>, <표 II-2-20>, <표 II-2-21>, <표 II-2-22>에 제시하였다.

<표 II-2-18> 학교(년) 프로그램 실시 여부

프로그램	김해 상성초 등학교	대 흥초 등학교	봉 원초 등학교	외 동초 등학교	일 운초 등학교	사천 중학교	샛별 중학교	경남 산업 고등학교	세 종고 등학교	경남 해림 학교
학습지원·코칭	○	○	○	○	○	○				
개인상담	○	○	○	○	○		○			
부모·가족상담		○	○	○						
소집단활동						○				
멘토링활동								○	○	
기관 연계 지원·상담·치료				○	○		○			○

<표 II-2-19> 초등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학교명	프로그램	선정 근거	진행
김해삼성 초등학교	•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담임교사의 관찰 다요인인성검사 결과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개인 맞춤형 상담지원팀 회의	개별 주1회 10회기
	• 학습클리닉 및 정서안정상담	학교 부적응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중 담임교사의 추천 학습출발점검사 학교적응·학습코칭 지원팀 회의	개별 주1-2회 15회기
	• 수업방해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및 학습코칭	지속적인 수업방해 한글 이해독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 학교적응·학습코칭 지원팀 회의 한글진단평가	개별 정규수업시간 1:1 맞춤형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대흥 초등학교	• 기초학력자원봉사자 배치 - 수업시간 협력교수	자체 개발 학력평가	기초학력자원 봉사자
	• 개별학생 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 중 개별상담 필요성이 대두된 학생 자발적 상담 요구 학생	학교상담사
봉원 초등학교	• 개인 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수업방해 행동, 부모 동의	개별 10회기
	•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외부 보조강사 활동 - 학급지원, 수업참여행동 관리 등	1~4학년 8개 학급의 학습부진 학생	외부 보조강사(4)

학교명	프로그램	선정 근거	진행
외동 초등학교	• 맞춤형 점프 UP 학습방 운영 - 늘봄창의탐구학습 연계 수업 중 & 방과 후 지도 • 1:1 매칭 시스템 사제동행 - 사제동행 상담 및 부모상담 • 특기개발 지원 - 방과후프로그램 • 사제동행 체험프로그램 운영 • 외부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 기초학습, 교과보충,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 기초학력 및 문해력 향상 방과후활동	학습더딤학생 학습더딤학생 학습더딤학생 학습더딤학생 학습더딤학생 학업·언어능력, 심리·정서적 상황, 가정환경 등 개인 특성 고려 학습더딤학생	담임교사 담임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담임교사 위센터, 병원, 치료실 멘토희망 교사 담임교사 늘 봄 창 의 탐 구 학 습 연 계 상 록 수 공 부 방 연 계
일운 초등학교	• 문제행동기능평가에 근거한 관계이음(학생상담) 프로그램 • 관계 개선 프로그램(소집단) - 방과후, 또는 방학중 체험활동 • 상담기관 연계 전문상담 • 학습이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임과 친해지고 싶은 학생 자원 고위험군 학생 고위험군 학생	상담교사 담임교사 Wee클래스 학습코칭교사

<표 II-2-20> 중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학교명	프로그램	선정 근거	진행
사천 중학교	기초학력 보충반 운영 - 자기주도학습 기반 개별 지도	기초학력 부족 학생(총 9명) 학력 진단	외부강사
	수업방해예방 축구동아리 - 2학년 20명, 3학년 20명	수업방해 학생	멘토교사
	‘슬기로운 학교생활’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 방관 학생(19명)	외부강사
셋별 중학교	모래놀이 치유 프로그램	수업방해 학생 중 자기표현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	Wee클래스 개별 면담->위클운영 위 결정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전교사 협의회	교사 의뢰	매달 1회 교사 협의회를 통한 해결책 마련
	꿈키움, 두드림 프로그램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담임 또는 교과 담당교사, 학부모 의뢰	면담 후 통합지원팀 협의
	학업숙려제	학부모의뢰	학업숙려제운영위
	1인 1억 맡기기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면담 또는 상담	담임이 생활인성부 의뢰하여 진행

<표 II-2-21> 고등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학교명	프로그램	선정 기준	진행
경남산업 고등학교	맞춤 멘토링 프로그램 - 진로 미결정, 학습문제, 건강문제 등 전반적인 상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세종 고등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 수시상담, 문화체험활동, 사제동행 프로그램	수업방해 학생	전담 교사

<표 II-2-22> 특수학교 학교프로그램(소수, 개별)

학교명	프로그램	선정 근거	진행
경남 해림학교	- 개인 차원 PBIS 프로그램(10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 프로그램(5명)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구어 또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	행동지원 솔루션팀 담임교사 외부전문가 컨설팅

1)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학급에서 수업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팀(교사협의체)에 의뢰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한 절차 사례를 <표 II-2-23>에 제시하였다.

<표 II-2-23> 개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사례

- 수업방해학생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절차

문제 인식	실태 분석	추진 과제 실행
- 수업방해 학생의 지속적 문제 행동으로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사례 인지 - 한글 미해독으로 인해 소통 단절 및 수업방해행동 지속 - 부모님의 부재로 정서적 결핍을 보임가정과 연계한 지도의 어려움	- 교사협의체의 협의과정을 통한 목표 설정교감 담임교사 수업 방해선도교사 다문화담당교사 교육복지교사 상담교사 - 한글진단평가를 통한 학생의 현재 한글해독 능력 평가 실시 -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성이 낮은 학생을 위한 방법 모색	1:1 개별화 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2020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2020. 11.3~2020.12.31.)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비 신청 - 학부모 동의 및 프로그램 안내 2020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2020.11.16~2020.1.8)

- 수업방해학생 개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① 개별화교육 - 학교 생활 적응 능력 신장 - 공감적 자아 형성 및 자기주도성 상승	- 장기화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및 누적된 학습무기력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한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기초 학습 태도 및 바른 자세 교육 - 개별화 강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관심을 통한 레포 형성 '선생님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공감 능력 형성
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기초 한글 학습 능력 향상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지원	- 한글 미해독으로 인해 소통단절 및 수업방해행동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 한국어 진단평가 결과 (초급)를 통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신청 - 학생의 실태 분석을 통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지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비로 강사인발 및 수업 실시 - 정규 수업시간 활용 1:1 맞춤형 한글교육 실시 - 시각각 자료와 글자 카드 활용 월 2회 문화교육 실시
③ 통합학급 수업 - 학급 학생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 - 자기효능감 획득	- 원적교실로 복귀 후 통합수업 실시 - 학급 학생들과의 소통 기회 마련 정서적 안정 및 공감 능력 발달 - 변화 된 모습 관찰 및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통한 의견 교환 - 주2회 공동체협의회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 논의

김해삼성
초등학교

2)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제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도학교들은 적절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통합지원팀의 지속적인 역할 필요

- 수업방해 학생의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상담 및 학습코칭을 위한 교사협의체 구성 및 공동체의 지속적 노력 필요함(김해삼성초등학교)

○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다요인 인성검사,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학습 출발점 검사 등을 통해 학생의 출발점 요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개인 맞춤형 상담’의 목적에 보다 부합될 것임(김해삼성초등학교)
- 주의학생 및 문제학생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상학생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참여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이음교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외동초등학교)
- 단순히 학생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주변 환경 조정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하는 학급 친구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남헤림학교)

○ 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하나된 노력 필요

- 학생의 수업방해 요인(학습 부진, 정서 심리적 문제, 가정 문제, 부모 관계 문제, 또래 관계, 다문화 적응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조기 파악하기 위해 담임,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함(김해삼성초등학교)

- 수업방해 학생의 효과적인 맞춤형 상담 지원 및 학습코칭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공조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가정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함(김해삼성초등학교)
- 심리적 불안의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가정에서의 협조나 동반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탁월함(봉원초등학교)

○ 전문영역과의 연계적 협력 필요

- 상담 강사들이 작성한 상담일지 및 보고서는 담임교사에게 학급내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파악하게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자료로 제공됨(김해삼성초등학교)
- 수업방해 학생들을 위한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필요함(김해삼성초등학교)
- 한 학생을 위해 (외부) 중재팀이 함께 많은 의견을 공유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의견을 나누어 저경력인 나에게 한 뼘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 (경남혜림학교)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처럼 수업방해 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Wee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봉원초등학교)

○ 정서적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사 배치 필요

-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영역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상담사는 수업방해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대흥초등학교)

○ 개별지원 대상 학생의 낙인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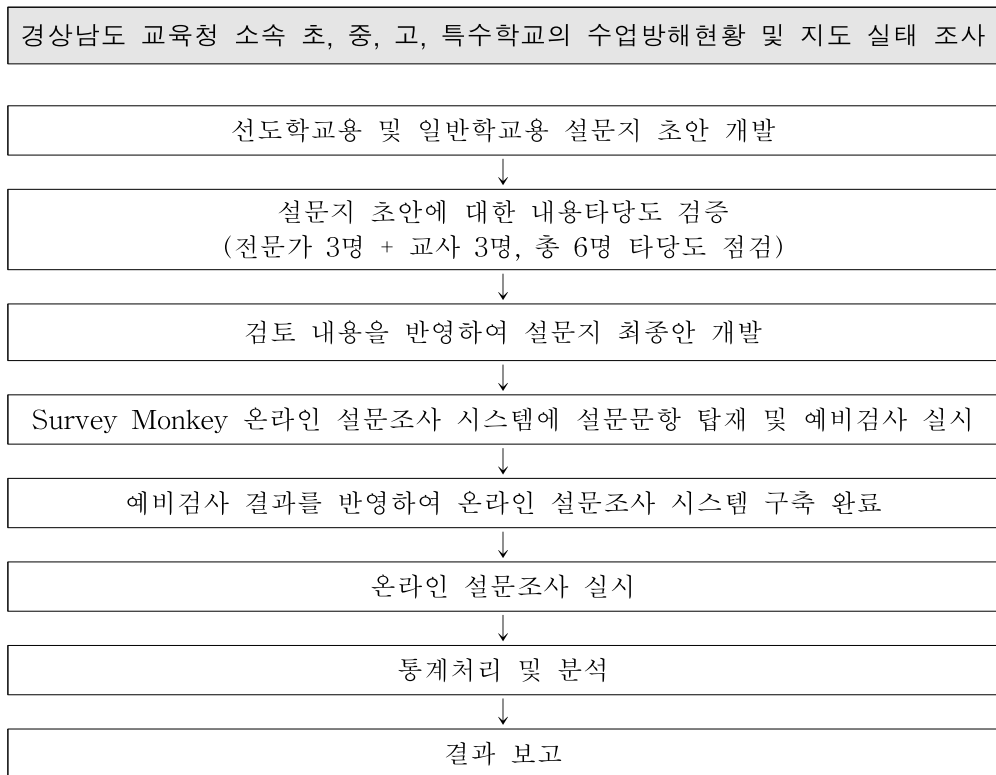
- 개인 맞춤형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함(김해삼성초등학교)

○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정도에 따라 10회기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특정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함(봉원초등학교)

Ⅲ. 이음교실 선도학교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 조사 분석

본 연구는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의 선도적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도학교와 비선도학교의 일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초, 중, 고, 특수학교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그림 Ⅲ-1-1]과 같다.



[그림 Ⅲ-1-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실태 조사 연구절차

1. 설문조사의 연구절차 및 방법

가.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10개 선도학교(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1개)와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비선도학교를 포함 총 1,443개 학교의 전체교사와 관리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베이몽키(Survey Monkey)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4,296명의 교사(선도학교 107명, 비선도학교 4,189명)와 학생 19,331명(선도학교 676명, 비선도학교 18,655명)이 실제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 교사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설문 응답자 중 64.9%가 여교사, 35.1%가 남교사였다. 연령층별로 보면 30대 교사와 40대 교사가 각각 29.9%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대 교사가 25.9%, 20대 교사가 11.9%, 60대 이상인 교사 2.5%가 참여하였다. 교육경력에서는 경력 25년 이상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5년 미만인 교사가 18.4%, 5년 이상-10년 미만이 17.9%,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6%,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3.2%, 20년이상 - 25년미만이 11.7% 순으로 가장 적었다. 직위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교사로 72.3%가로 나타났으며, 부장교사는 23.4%, 교장과 교감은 4.3%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와 관련된 학교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학교가 97.3%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 2.4%, 대안학교 0.3%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서는 담당과정은 초등과정이 50.2%로 가장 많았고, 중등과정은 28.2%, 고등과정은 21.6% 순이었다. 소속 학교의 유형은 남녀공학이 82.8%로 가장 많았고, 남학교가 10.2%, 여학교가 7%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이 공립학교의 소속으로 85.3%, 사립학교 14.7%로 나타났으며, 소속학교의 규모로는 19~32학급이 36.9%로 가장 많았고, 7~18학급이 27.3%였으며, 6학급이하가 15.5%, 33~42학급이 11.5%, 43학급 이상이 8.9%순으로 7~32학급 사이의 교사들이 주로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III-1-1> 교사 설문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N=4,296)**

구 분	내 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소속학교 유형	일반학교	4,179	97.3
	대안학교	15	0.3
	특수학교	102	2.4
학교급	초등	2,155	50.2
	중등	1,213	28.2
	고등	928	21.6
소속학교 설립 유형	공립	3,666	85.3
	사립	630	14.7
소속학교 학생 유형	남학교	437	10.2
	여학교	301	7.0
	남녀공학	3,558	82.8
소속학교 규모	6학급이하	667	15.5
	7~18학급	1,171	27.3
	19~32학급	1,585	36.9
	33~42학급	492	11.5
	43학급이상	381	8.9
성별	남	1,324	35.1
	여	2,451	64.9
연령	20대	450	11.9
	30대	1,127	29.9
	40대	1,128	29.9
	50대	977	25.9
	60대	93	2.5
교육경력	5년 미만	694	18.4
	5년 이상~10년 미만	677	17.9
	10년 이상~15년 미만	604	16
	15년 이상~20년 미만	500	13.2
	20년 이상	443	11.7
	25년 이상	857	22.7
직위	교사	2,730	72.3
	부장교사	883	23.4
	교감(장)	162	4.3

참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II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설문 응답자 중 54.5%가 여학생이고 45.5%가 남학생이었다. 일반학교가 98.2%, 특수학교가 1.3%, 대안학교가 0.4%로 대부분이 일반학교 소속이었으며, 소속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51%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25.9%, 고등학교가 23.1%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 유형은 남녀공학이 72.9%, 여학교가 14.1%, 남학교가 12.9%순이었다.

<표 III-1-2> 학생 설문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N=19,331)

구 분	내 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소속학교 유형	일반학교	18,986	98.2
	대안학교	85	0.4
	특수학교	260	1.3
학교급	초등	5,012	25.9
	중등	9,855	51.0
	고등	4,464	23.1
소속학교 학생 유형	남학교	2,500	12.9
	여학교	2,730	14.1
	남녀공학	14,101	72.9
성별	남	8,793	45.5
	여	10,538	54.5

나. 설문 문항 개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이음교실’의 선도적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도학교와 운영하지 않는 일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초, 중, 고, 특수학교의 수업방해 현황 및 지도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명의 연구자가 경상남도교육청 자료의 2020년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메뉴얼(경상남도교육청, 2020과 수업방해해결프로그램 운영계획(경상남도교육청, 2020b), 수업예방교실을 위한 도움자료(경상남도교육청, 2020c)와 각 시범학교의 사업계획서(경상남도교육청, 2020e)와 중간보고서(경상남도교육청, 2020f)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도교육청 2020a)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업방해 행동과 학교 분위기와 관련 선행연구들(여희영, 2010; Sawka-Miller & Miller, 2007; Wagner, 2002)을 토대로 연구자 간 협의를 거쳤다. 교사 설문 문항(인적정보 문항 제외) 초안은 선도학교와 비선도학교 전체대상으로 배포할 설문지의 경우 수업방해실태와 이음교실 인식 2개 영역으로 수업방해실태 하위 9개 영역과 이음교실 인식 하위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선도학교에 배포될 설문지에서는 선도학교운영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영역은 이음교실 운영, 교사역량강화, 이음교실 프로그램, 이음교실 운영효과의 4개 영역이다. 각 하위영역으로는 이음교실 운영 11개 하위영역, 교사역량강화 3개 하위영역, 이음교실 프로그램 4개 하위영역, 이음교실 효과 3개 하위영역으로 나뉘 총 8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 초안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전체	수업방해실태	수업방해경험여부	1	선택형(2개)
		학급 수업방해문제의 심각도	1	리커트 척도(4점)
		경험한 수업방해 행동과 심각도	18	리커트 척도(5점)
		수업방해 행동의 빈도	1	선택형(6개)
		수업방해 행동의 평균시간	1	선택형(5개)
		수업방해 행동의 간접사건	1	순위선택형(7개)
		수업방해 행동의 직접적 원인	1	순위선택형(10개)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얻는 것	1	순위선택형(12개)
		수업방해 행동 발생시 지도방법	1	순위선택형(10개)
	이음교실인식	이음교실 인지도	1	선택형(2개)
		이음교실의 수업방해문제해결 기여도	1	리커트척도(4점)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기대 프로그램	1	선택형(9개)
선도학교	이음교실 운영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	1	리커트척도(4점)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1	리커트척도(4점)
		프로그램 대상학생수	1	기술
		프로그램 선정 준거	1	선택형(6개)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	1	선택형(3개)
		이음교실 운영의 협력	3	리커트척도(4점)
		학부모교육실시	1	선택형(4개)
		예산의 충분성	1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운영 전용공간여부	1	선택형(2개)
		전용공간의 장소	1	선택형(3개)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 만족도	10	리커트척도(4점)
	교사역량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기회 제공	1	리커트척도(4점)
		효과적인 교사역량 방법	1	선택형(5개)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내용	1	선택형(5개)
	이음교실프로그램	학교차원에서 진행했던 이음교실프로그램	4	선택형(9개)
		이음교실 프로그램의 적절성	4	리커트척도(4개)
		이음교실에서 적용한 프로그램과 적절성	9	선택형(4개)와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만족도	4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효과	이음교실의 영향	4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변화	8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운영 애로사항	1	기술
	합계		88	

학생 설문 문항(인적정보 문항 제외) 초안은 선도학교 및 비선도학교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배포된 설문지에서 수업방해 행동은 하위 8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선도학교 학생들만 이음교실 인식에 관해 2개 하위영역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4>와 같다.

<표 III-1-4> 수업방해 행동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용 설문지 초안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전체	학교 분위기	친밀감	10	리커트척도(4점)
		교사지지	6	리커트척도(4점)
		참여도	9	리커트척도(4점)
		갈등	6	리커트척도(4점)
		교사통제	9	리커트척도(4점)
		학업지향	5	리커트척도(4점)
		질서 및 조직	12	리커트척도(4점)
		경쟁	5	리커트척도(4점)
선도 학교	이음교실 인식 조사	이음교실 프로그램 만족도	1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프로그램 효과 및 기대변화	8	리커트척도(4점)
	합계		71	

다. 내용 타당도 검증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한 전문가는 대학 교수진 3명과 현직 교사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검토진 구성 시에 장애 영역과 교육과정 유형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검토진의 정보는 <표 III-1-5>와 같다.

검토진에게 의뢰한 내용은 각 영역별로 문항의 구성과 내용이 적합한지, 문항내용이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거나 첨가해야 하는 문항이 있는지, 문항 표현이 적절한지의 여부였다. 검토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각 문항마다 충분한 메모 공간을 제공하여 그 외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검토진에게 받은 내용타당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

은 삭제하였고, 수정 제안된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검토진의 수정 제안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본 연구자 2인이 최종 검토하였고,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표 III-1-5> 설문지 초안 내용 타당도 검토진 정보

영역	연번	성별	학력	소속학교(급)	비고
전문가 (3명)	1	남자	박사	대학교(교수)	학습 및 정서행동장애 전문가
	2	여자	박사	대학교(교수)	상담 및 행동치료전문가
	3	여자	박사	대학교(교수)	특수교육전문가
현직교사 (3명)	5	여자	학사	초등학교(교사)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쉽 및 학교폭력 예방포럼
	7	남자	석사	초등학교(교사)	수업예방해결선도학교 컨설턴트 및 인권강사
	8	남자	석사	초등학교(교장)	교육철학,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라. 최종 설문조사 내용 구성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에게 배포된 ‘수업방해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 인식조사’의 구성 내용은 <표 III-1-6>과 같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하위 영역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으며, Cronbach의 알파 값을 산출한 결과 .940-.956 범위의 높은 신뢰도 값을 얻었다. 학생에게 배포될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 운영 인식조사’의 구성내용은 <표 III-1-7>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지 역시 부록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하위영역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Cronbach의 알파 값을 산출한 결과, 교사용에서는 .792, 학생용에서는 .891의 신뢰도 값을 얻었다.

<표 III-1-6>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 최종안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전체	수업방해 실태	수업방해경험여부	1	선택형(2개)
		학급 수업방해문제의 심각도	1	리커트 척도(4점)
		경험한 수업방해행동과 심각도	18	리커트 척도(4점)
		수업방해행동의 빈도	1	선택형(5개)
		수업방해행동의 평균시간	1	선택형(5개)
		수업방해행동의 직접적 원인	1	순위선택형(8개)
		수업방해행동의 간접사건	1	순위선택형(7개)
		수업방해행동 후 학생이 얻는 것	1	순위선택형(9개)
		수업방해행동발생시 지도방법	1	순위선택형(10개)
	이음교실 인식	이음교실 인지도	1	선택형(2개)
		이음교실의 수업방해문제해결 기여도	1	리커트척도(4점)
		수업방해해결을 위한 기대 프로그램	1	선택형(8개)
선도 학교	이음교실 운영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	1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1	리커트척도(4점)
		프로그램 대상학생수	1	기술
		프로그램 선정 준거	1	선택형(5개)
		운영 중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	1	선택형(3개)
		이음교실 운영의 협력	3	리커트척도(4점)
		학부모교육실시	1	선택형(4개)
		예산의 충분성	1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운영 전용공간여부	1	선택형(2개)
		전용공간의 장소	1	선택형(2개)
		바람직한 장소	1	선택형(2개)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 만족도	10	리커트척도(4점)
	교사역량 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기회 제공	1	리커트척도(4점)
		효과적인 교사역량 방법	1	선택형(5개)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내용	1	선택형(4개)
	이음교실 프로그램	진행했던 이음교실프로그램 실시여부	8	선택형(2개)
		진행했던 이음교실 프로그램의 적절성	8	리커트척도(4개)
	이음교실 효과	이음교실의 학교학급의 영향	5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변화	7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운영 애로사항	1	기술
	합계		84	

<표 III-1-7> 수업방해 행동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용 설문지 최종안

배포 대상	영역	하위 영역	문항수	응답방식
전체	학교 분위기	친밀감	7	리커트척도(5점)
		교사지지	6	리커트척도(5점)
		참여도	6	리커트척도(5점)
		갈등	5	리커트척도(5점)
		교사통제	6	리커트척도(5점)
		학업지향	5	리커트척도(5점)
		질서 및 조직	9	리커트척도(5점)
		경쟁	6	리커트척도(5점)
선도 학교	이음교실 인식조사	이음교실 프로그램 만족도	1	리커트척도(4점)
		이음교실 프로그램 효과 및 기대변화	7	리커트척도(5점)
	합계		58	

마. 설문조사 실행

자료 수집은 선도학교 10개교와 비선도학교 1,443개의 전체 교사 및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서베이몽키(Survey Monkey)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경상남도의 ‘수업방해해결프로그램 이음교실 인식조사’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 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접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다. 응답자가 접속하면 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바. 자료 분석

설문조사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20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방해 행동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응답내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심각도와 같은 리커트 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도 산출하였다. 또한 학교급(초, 중, 고)별과 학교 성별 유형(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별 행동유무는 교차분석으로, 행동유형의 심각도는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F검증하여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Scheffe검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수업방해 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과 같은 순위형 척도는 각 항목을 중심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순위별 가장 높은 분포를 진하게로 표시하였다. 둘째, 교사가 인식하는 이음교실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응답내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선도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이음교실의 운영, 교사역량강화, 이음교실 프로그램, 이음교실 효과에 대해서도 기술통계를 이용해 응답내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는 각 8개 영역과 전체부분에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내용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리커트 척도 문항에 대

해 평균이 3.0 이상, 역문항 3.0이하이면 각 항목마다 긍정적 영향으로 인식한다고 판단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학교급별(초, 중, 고)와 학교유형별(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성별의 경우는 독립변인 t분석으로, 학교급별과 학교유형별은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F검증하였다. 학생에게 배포된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 운영 인식조사’에서 갈등, 교사통제, 경쟁 영역은 문항분석 시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세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적고, 교사통제가 덜하며, 덜 경쟁적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전체 점수에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섯째, 선도학교 학생이 인식하는 이음교실의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를 이용해 응답 내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방해 행동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 결과

가. 수업방해 행동 실태

1) 수업방해 경험 여부와 심각도

가) 전체 수업방해 경험여부와 심각도

수업방해 경험 여부와 심각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전체 교사가 올해 담당학급 및 교과수업에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를 경험한 경우(68.3%)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31.7%)에 비해 다소 높았다.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수업방해 문제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심각하지 않다가 49.9%, 심각하다는 수준이 50.1%로 나타났다.

<표 III-2-1> 수업방해경험여부와 심각도 (전체)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경험여부	있다	2,188(68.3)	3,205
	없다	1,017(31.7)	
수업방해문제의 심각수준	전혀 심각하지 않다	85(4)	2,127
	심각하지 않다	977(45.9)	
	심각하다	866(40.7)	
	매우 심각하다	199(9.4)	

나) 학교급별 수업방해 경험여부와 심각도

학교급별로 본 수업방해 여부와 심각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2>, <표 III-2-3>, <표 III-2-4>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담당학급 및 교과수업에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를 경험한 경우는 72.7%,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27.3%, 중학교는 경험있다가 63.7%, 경험없음이 36.3%, 고등학교는 경험있음이 63.7%, 경험없음

이 36.3%로 학교급별(초, 중, 고)의 교사가 인식한 수업방해 행동 경험의 여부는 달랐다. 특히 분석결과,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업방해의 심각도에서는 초등학교는 심각하다 47.7%, 심각하지 않다 52.2%, 중학교의 경우 심각하다 54%, 심각하지 않다 45.9%, 고등학교의 경우 심각하다 51.1%, 심각하지 않다 48.9%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행동은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사가 경험하고 있지만, 심각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2-2> 수업방해경험여부(학교급별)

학교급별	응답내용 빈도(%)		전체(%)	χ^2
	있다	없다		
초등학교	1,188(72.7)	447(27.3)	1,635(100)	29.724***
중학교	575(63.7)	328(36.3)	903(100)	
고등학교	425(63.7)	242(36.3)	667(100)	
전체(%)	2,188(68.3)	1,017(31.7)	3,025(100)	

*** p<.001

<표 III-2-3> 수업방해 심각도(학교급별)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초등학교	2.53(.72)	106(9.2)	446(38.6)	552(47.8)	51(4.4)	1,155(100)
중학교	2.60(.71)	57(10.2)	244(43.8)	237(42.5)	19(3.4)	557(100)
고등학교	2.56(.70)	36(8.7)	176(42.4)	188(45.3)	15(3.6)	415(100)
전체(%)	2.55(.71)	199(9.4)	866(40.7)	977(45.9)	85(4.0)	2,127(100)

<표 III-2-4> 수업방해 심각도(학교급별 변량분석 결과)

학교급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교급별	2.620	2	1,310	2.551	.78
오차	1,090.86	2,124	.514		
합계	1,093.48	2,126			

다) 학교유형별 수업방해 경험여부와 심각도

학교유형별로 본 수업방해 여부와 심각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5>, <표 III-2-6>, <표 III-2-7>과 같다. 남학교의 경우 올해 담당학급 및 교과수업에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를 경험한 경우는 70.2%,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29.8%, 여학교에서는 경험있다가 40.1%, 경험없다가 59.9% 였으며, 남녀공학에서는 경험있다가 70.3%, 경험없다가 29.7%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특히 여학교에서 수업방해 경험여부가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학교유형별로 본 수업방해 심각도에 있어서는 남학교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64%, 심각하지 않다가 36%로 나타났으며 여학교에서는 심각하다는 49.3%, 심각하지 않다가 50.5%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에서는 심각하다는 48.5%, 심각하지 않다가 51.5%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남학교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보다 수업방해 행동이 더 심각하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F=9.607$, $p<.001$)

<표 III-2-5> 수업방해경험여부(학교유형별)

학교유형별	응답내용 빈도(%)		전체(%)	χ^2
	있다	없다		
남학교	217(70.2)	92(29.8)	309(100)	83.185***
여학교	85(40.1)	127(59.9)	212(100)	
남녀공학	1,886(70.3)	798(29.7)	2,684(100)	
전체(%)	2,188(68.3)	1,017(31.7)	3,205(100)	

*** $p<.001$

<표 III-2-6> 수업방해 심각도(학교유형별)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남학교	2.76(.73)	31(14.7)	104(49.3)	70(33.2)	6(2.8)	211(100)
여학교	2.51(.65)	4(4.9)	36(44.4)	38(46.9)	3(3.7)	81(100)
남녀공학	2.53(.71)	164(8.9)	726(39.6)	869(47.4)	76(4.1)	1,835(100)
전체(%)	2.55(.72)	199(9.4)	866(40.7)	977(45.9)	85(4.0)	2,127(100)

<표 III-2-7> 수업방해 심각도(학교유형별 변량분석 결과)

학교급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교유형별	9.803	2	4.901	9.607	.000***
오차	1083.675	2124	.510	a>b,c	
합계	1093.478	2126			

a=남학교, b=여학교, c=남녀공학, *** $p<.001$

2) 수업방해 행동 유형의 경험여부와 심각도

가) 전체학교의 수업방해 행동 유형의 경험여부와 심각도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동의 행동유형별 경험 유무와 그에 따른 심각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2-8>, <표 III-2-9>와 같다. 수업방해 행동 유형 중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 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95.3%),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93.3%),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88.9%),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84.9%),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83.8%)가 높게 나타났다.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에 있어서도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 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86.9%),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80.2%),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77.4%),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77.3%)가 다른 행동유형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전체)

단위 : 빈도(%)

수업방해 행동 유형	경험유무		N
	유	무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1,410(84.9)	251(15.1)	1,661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1,589(95.3)	79(4.7)	1,668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1,536(93.3)	110(6.7)	1,646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1,184(73.8)	420(26.2)	1,604
앞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1,228(76.3)	381(23.7)	1,609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975(61.6)	609(38.4)	1,584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1,162(72.5)	440(27.5)	1,602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1,163(73.0)	430(27.0)	1,593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1,220(75.5)	396(24.5)	1,616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1,362(83.8)	264(16.2)	1,626
혼잣말을 하는 행위	1,186(73.7)	424(26.3)	1,610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365(23.8)	1,168(76.2)	1,533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720(45.8)	852(54.2)	1,572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689(44.4)	864(55.6)	1,553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1,001(63.6)	572(36.4)	1,573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1,072(66.9)	530(33.1)	1,602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1,453(88.9)	181(11.1)	1,634

<표 III-2-9>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전체)**심각도 단위:빈도(%)**

수업방해 행동유형	평균 (표준편차)	심각도				N
		매우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않음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2.85(.86)	279(21.4)	667(51.1)	242(18.5)	117(9)	1,305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3.18(.73)	478(34.1)	741(52.8)	141(10)	43(3.1)	1,403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3.06(.77)	410(29.3)	712(50.9)	225(16.1)	51(3.6)	1,398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2.73(.94)	257(20.8)	545(44.2)	266(21.6)	165(13.4)	1,233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2.81(.96)	326(25.8)	524(41.4)	262(20.7)	153(12.1)	1,265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2.61(1.00)	234(20.2)	439(38.0)	279(24.1)	204(17.6)	1,156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2.76(.90)	244(19.9)	581(47.4)	261(21.3)	141(11.5)	1,227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2.71(.90)	226(18.3)	554(44.9)	308(25.0)	145(11.8)	1,233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2.87(.87)	286(23.5)	596(48.9)	226(18.6)	110(9.0)	1,218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2.97(.84)	347(26.7)	658(50.6)	203(15.6)	93(7.1)	1,301
혼잣말을 하는 행위	2.70(.88)	206(17)	579(47.7)	291(24)	137(11.3)	1,213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1.96(1.04)	98(10.8)	177(19.5)	224(24.7)	408(45.0)	907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2.40(1.07)	184(17.8)	322(31.1)	245(23.7)	283(27.4)	1,034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38(1.12)	212(20.4)	284(27.3)	231(22.2)	313(30.1)	1,040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2.70(1.00)	263(22.6)	483(41.5)	218(18.7)	199(17.1)	1,163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2.73(.98)	259(22.4)	499(43.1)	221(19.1)	178(15.4)	1,157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3.0(.85)	413(30.3)	642(47.1)	218(16.0)	91(6.7)	1,364

나) 학교급별의 수업방해 행동 유형의 경험여부와 심각도

학교급별에 따라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동의 행동유형별 경험 유무와 그에 따른 심각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10>, <표 III-2-11>, <표 III-2-12>와 같다. 교사가 경험한 수업방해 행동 유형 중 학교급별로 경험유무와 심각도가 유의미하게 다른 항목들은 총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다. 수업방해 행동의 유형별로 보면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를 하려는 행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험유무가 달랐으며($\chi^2=26.371$, $p<.001$), 심각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14.728$, $p<.001$).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의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험유무가 달랐으나($\chi^2=37.429$,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초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10.542$, $p<.001$). 즉,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행동이 초등학교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의 경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험유무가 달랐고($\chi^2=243.644$, $p<.001$), 심각도 또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115.575$, $p<.001$).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의 경험유무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17.784$,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5.201$, $p<.01$),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한 행동으로 교사들이 인식하였다.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며($\chi^2=159.061$, $p<.001$), 이는 심각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30.699$, $p<.001$).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험유무가 달랐으나($\chi^2=110.234$, $p<.001$), 심각도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24.501$, $p<.001$),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한 행동으로 교사

들이 인식하였다.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39.760$,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고등학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799$, $p<.001$),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의 경우’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32.988$,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이가 없었고, 고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8.004$, $p<.001$),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혼잣말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85.288$,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이가 없고 초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15.046$, $p<.001$),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더 심하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77.405$,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만 중·고등학교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23.087$, $p<.001$)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있어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6.535$, $p<.05$), 심각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4.288$, $p<.05$),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학교급별)

단위 : 빈도(%)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급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초등학교	803(85.1)	141(14.9)	944(100)	2.635
	중학교	364(86.5)	57(13.5)	421(100)	
	고등학교	243(82.1)	53(17.9)	296(100)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초등학교	893(94.9)	48(5.1)	941(100)	.847
	중학교	412(96.0)	17(4.0)	429(100)	
	고등학교	284(95.3)	14(4.7)	298(100)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초등학교	898(95.5)	42(4.5)	940(100)	26.371***
	중학교	384(92.8)	30(7.2)	414(100)	
	고등학교	254(87.0)	38(13.0)	292(100)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초등학교	611(67.9)	289(32.1)	900(100)	37.429***
	중학교	333(80.8)	79(19.2)	412(100)	
	고등학교	240(82.2)	52(17.8)	292(100)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초등학교	551(61.6)	344(38.4)	895(100)	243.644***
	중학교	390(93.8)	26(6.3)	416(100)	
	고등학교	287(96.3)	11(3.7)	298(100)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급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초등학교	577(64.8)	313(35.2)	890(100)	17.784***
	중학교	253(61.9)	156(38.1)	409(100)	
	고등학교	145(50.9)	140(49.1)	285(100)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초등학교	761(83.3)	153(16.7)	914(100)	159.061***
	중학교	269(66.9)	133(33.1)	402(100)	
	고등학교	132(46.2)	154(53.8)	286(100)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초등학교	750(82.3)	161(17.7)	911(100)	110.234***
	중학교	263(66.4)	133(33.6)	396(100)	
	고등학교	150(52.4)	136(47.6)	286(100)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초등학교	741(80.5)	179(19.5)	920(100)	39.760***
	중학교	294(73.3)	107(26.7)	401(100)	
	고등학교	185(62.7)	110(37.3)	295(100)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초등학교	794(86.1)	128(13.9)	922(100)	32.988***
	중학교	353(86.5)	55(13.5)	408(100)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급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고등학교	215(72.6)	81(27.4)	296(1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초등학교	755(82.0)	166(18.0)	921(100)	85.288***
	중학교	267(66.8)	133(33.3)	400(100)	
	고등학교	164(56.7)	125(43.3)	289(100)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초등학교	133(8.7)	729(84.6)	862(100)	77.405***
	중학교	139(36.1)	246(63.9)	385(100)	
	고등학교	93(32.5)	193(67.5)	286(100)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초등학교	415(46.5)	478(53.5)	893(100)	6.535*
	중학교	192(49.0)	200(51.0)	392(100)	
	고등학교	113(39.4)	174(60.6)	287(100)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초등학교	386(43.8)	495(56.2)	881(100)	2.583
	중학교	186(47.6)	205(52.4)	391(100)	
	고등학교	117(41.6)	164(58.4)	281(100)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초등학교	550(61.9)	339(38.1)	889(100)	2.878
	중학교	261(65.4)	138(34.6)	399(100)	
	고등학교	190(66.7)	95(33.3)	285(100)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급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초등학교	594(65.6)	311(34.4)	905(100)	1.544
	중학교	276(68.7)	126(31.3)	402(100)	
	고등학교	202(68.5)	93(31.5)	295(100)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초등학교	828(89.8)	94(10.2)	922(100)	1.788
	중학교	362(87.4)	52(12.6)	414(100)	
	고등학교	263(88.3)	35(11.7)	298(100)	

* p <.05, *** p<.001

<표 III-2-11>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학교급별)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초등학교	2.88(8.4)	165(22.1)	383(51.3)	141(18.9)	57(7.6)	746(100)
	중학교	2.81(.88)	62(20.5)	154(51.0)	54(17.9)	32(10.6)	302(100)
	고등학교	2.80(.89)	52(20.2)	130(50.6)	47(18.3)	28(10.9)	257(100)

수업 방해 행동 유형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초등학교	3.19(.73)	284(35.3)	412(51.2)	87(10.8)	22(2.7)	805(100)
	중학교	3.19(.73)	114(34.7)	177(53.8)	26(7.9)	12(3.6)	329(100)
	고등학교	3.13(.72)	80(29.7)	152(56.2)	28(10.4)	9(3.3)	269(100)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초등학교	3.15(.74)	274(33.8)	398(49.1)	122(15.0)	17(2.1)	811(100)
	중학교	3.00(.78)	84(25.6)	178(54.3)	49(14.9)	17(5.2)	328(100)
	고등학교	2.86(.81)	52(20.1)	136(52.5)	54(20.8)	17(6.6)	259(100)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초등학교	2.62(.97)	123(18.1)	286(42.2)	154(22.7)	115(17.0)	678(100)
	중학교	2.87(.90)	76(25.2)	140(46.5)	56(18.6)	29(9.6)	301(100)
	고등학교	2.84(.87)	58(22.8)	119(46.9)	56(22.0)	21(8.3)	254(100)
옆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초등학교	2.45(.96)	82(12.4)	274(41.5)	166(25.2)	138(20.9)	660(100)
	중학교	3.11(.80)	114(34.3)	151(45.5)	56(16.9)	11(3.3)	332(100)
	고등학교	3.30(.77)	130(47.6)	99(36.3)	40(14.7)	4(1.5)	273(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초등학교	2.69(1.01)	149(22.6)	269(40.8)	128(19.4)	114(17.3)	660(100)
	중학교	2.54(1.00)	53(19.0)	98(35.1)	75(26.9)	53(19.0)	279(100)
	고등학교	2.46(0.94)	32(14.7)	72(33.2)	76(35.0)	37(17.1)	217(100)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초등학교	2.91(.84)	176(23.7)	380(51.1)	132(17.7)	56(7.5)	744(100)
	중학교	2.60(.95)	45(16.7)	116(43.0)	65(24.1)	44(16.3)	270(100)
	고등학교	2.42(.92)	23(10.8)	85(39.9)	64(30.0)	41(19.2)	213(100)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초등학교	2.84(.85)	155(21.3)	365(50.1)	149(20.4)	60(8.2)	729(100)
	중학교	2.52(.94)	43(15.0)	110(38.5)	86(30.1)	47(16.4)	286(100)
	고등학교	2.45(.93)	28(12.8)	79(36.2)	73(33.5)	38(17.4)	218(100)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초등학교	2.94(.85)	184(26.0)	348(49.2)	123(17.4)	53(7.5)	708(100)
	중학교	2.85(.86)	62(21.7)	145(50.7)	54(18.9)	25(8.7)	286(100)
	고등학교	2.67(.93)	40(17.9)	103(46.0)	49(21.9)	32(14.3)	224(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초등학교	3.01(.83)	215(28.6)	379(50.3)	109(14.5)	50(6.6)	753(100)
	중학교	3.02(.80)	87(27.8)	161(51.4)	49(15.7)	16(5.1)	313(100)
	고등학교	2.77(.89)	45(19.1)	118(50.2)	45(19.1)	27(11.5)	235(1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초등학교	2.81(.86)	140(19.3)	376(51.9)	140(19.3)	69(9.5)	725(100)
	중학교	2.61(.87)	40(14.4)	123(44.2)	82(29.5)	33(11.9)	278(100)
	고등학교	2.46(.91)	26(12.4)	80(38.1)	69(32.9)	35(16.7)	210(100)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초등학교	1.75(1.0)	43(9.1)	64(13.6)	94(20.0)	269(57.2)	470(100)
	중학교	2.26(1.04)	36(14.5)	68(27.4)	68(27.4)	76(30.6)	248(100)
	고등학교	2.11(.98)	19(10.1)	45(23.8)	62(32.8)	63(33.3)	189(100)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초등학교	2.42(1.10)	111(19.5)	181(31.8)	114(20.0)	164(28.8)	570(100)
	중학교	2.49(1.03)	45(17.5)	93(36.2)	61(23.7)	58(22.6)	257(100)
	고등학교	2.21(1.01)	28(13.5)	48(23.2)	70(33.8)	61(29.5)	207(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급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초등학교	2.35(1.15)	120(21.1)	152(26.8)	104(18.3)	192(33.8)	568(100)
	중학교	2.46(1.07)	51(19.4)	85(32.3)	62(23.6)	65(24.7)	263(100)
	고등학교	2.35(1.08)	41(19.6)	47(22.5)	65(31.1)	56(26.8)	209(100)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초등학교	2.65(1.03)	144(22.6)	253(39.7)	117(18.3)	124(19.4)	638(100)
	중학교	2.77(.98)	69(24.1)	124(43.4)	51(17.8)	42(14.7)	286(100)
	고등학교	2.72(.95)	50(20.9)	106(44.4)	50(20.9)	33(13.8)	239(100)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초등학교	2.69(1.00)	142(21.9)	274(42.2)	120(18.5)	113(17.4)	649(100)
	중학교	2.79(.97)	69(24.6)	122(43.4)	51(18.1)	39(13.9)	281(100)
	고등학교	2.73(.91)	48(21.1)	103(45.4)	50(22.0)	26(11.5)	227(100)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초등학교	3.04(.85)	249(31.5)	371(47.0)	121(15.3)	49(6.2)	790(100)
	중학교	3.03(.82)	94(29.9)	153(48.7)	50(15.9)	17(5.4)	314(100)
	고등학교	2.90(.91)	70(26.9)	118(45.4)	47(18.1)	25(9.6)	260(100)

<표 III-2-12> 수업방해 행동 유형 심각도(학교급별 변량분석 결과)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1.624	2	.812	1.104	.332
오차	957.637	1302	.736		
합계	959.261	1304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922	2	.461	.866	.421
오차	745.173	1400	.532		
합계	746.096	1402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17.248	2	8.624	14.728	.000***
오차	816.824	1395	.586	a>b>c	
합계	834.072	1397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18.366	2	9.183	10.542	.000***
오차	1071.430	1230	.871	a<b,c	
합계	1089.796	1232			

수업 방해 행동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178.602	2	89.301	115.575	.000***
오차	975.103	1262	.773	a<b<c	
합계	1153.704	1264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10.296	2	5.148	5.201	.006**
오차	1141.187	1153	.990	a>c	
합계	1151.484	1155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47.582	2	23.791	30.699	.000***
오차	948.557	1224	.775	a>b>c	
합계	996.139	1226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38.380	2	19.190	24.501	.000***
오차	963.386	1230	.783	a>c	
합계	1001.766	1232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11.800	2	5.900	7.799	.000***
오차	919.182	1215	.757	a,b>c	
합계	930.982	1217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11.215	2	5.608	8.004	.000***
오차	909.429	1298	.701	a,b>c	
합계	920.644	13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22.779	2	11.390	15.046	.000***
오차	915.971	1210	.757	a>b,c	
합계	938.750	1212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47.412	2	23.706	23.087	.000***
오차	928.238	904	1.027	a<b,c	
합계	975.649	906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 곱 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9.740	2	4.870	4.288	.014*
오차	1171.058	1031	1.136	b>c	
합계	1180.798	1033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489	2	1.245	.999	.369
오차	1292.487	1037	1.246		
합계	1294.976	1039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2.866	2	1.433	1.424	.241
오차	1166.990	1160	1.006		
합계	1169.856	1162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2.379	2	1.189	1.245	.288
오차	1102.220	1154	.955		
합계	1104.598	1156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공 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 확률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4.138	2	2.069	2.842	.059
오차	990.738	1361	.728		
합계	994.876	1363			

* p <.05, ** p <.01, *** p<.00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다) 학교유형별의 수업방해 행동 유형의 경험여부와 심각도

학교유형별에 따라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동의 행동유형별 경험 유무와 그에 따른 심각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13>, <표 III-2-14>, <표 III-2-15>와 같다. 교사가 경험한 수업방해 행동 유형 중 학교유형별로 경험유무가 유의미하게 다른 항목들은 총 17개 항목 중 9개 항목이며, 심각도가 유의미하게 다른 항목들은 총 17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다. 수업방해 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지만($\chi^2=10.389$, $p<.01$), 심각도에 있어서는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에 있어서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62.096$,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남녀공학을 제외하고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F=20.244$, $p<.001$), 남녀공학이 타 학교에 비해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의 경우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지만($\chi^2=29.565$,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여학교를 제외하고는 남학교와 남녀공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F=21.621$, $p<.001$), 여학교가 타학교에 비해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며($\chi^2=12.878$, $p<.01$), 남학교와 남녀공학은 차이가 없고 여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8.005$, $p<.001$), 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덜 심각하게 느낀다고 인식했다.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에서도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며($\chi^2=21.318$, $p<.001$), 여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12.564$, $p<.001$), 여학교만 타학교에 비해 덜 심각하게 느낀다고 인식했다. ‘혼잣말을 하는 행위’에서는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15.641$,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여학교와 남녀공학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9.468$, $p<.001$), 남녀공학이 여학교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며($\chi^2=16.018$, $p<.001$), 심각도에 있어서는 남학교와 남녀공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F=4.327$, $p<.05$), 남학교가 남녀공학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10.148$, $p<.001$), 여학교만 남학교와 남녀공학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F=5.358$, $p<.01$), 여학교만 타학교에 비해 심각성이 덜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순으로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으나($\chi^2=7.880$, $p<.05$), 심각도에 있어서는 여학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F=4.294$, $p<.05$), 여학교가 타학교에 비해 심각성이 덜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사의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유무에서는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심각도에 있어서는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행동유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F=8.907$, $p<.001$)와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F=4.786$, $p<.01$)는 심각도에서 여학교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 여학교가 타학교에 비하여 심각성이 덜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F=4.875$, $p<.01$)와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F=6.596$, $p<.01$)에서도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 여학교에 비해 남녀공학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표 III-2-13> 수업방해 행동의 경험여부(학교유형별)

단위 : 빈도(%)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유형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남학교	154(89.5)	18(10.5)	172(100)	3.450
	여학교	46(82.1)	10(17.9)	56(100)	
	남녀공학	1210(84.4)	223(15.6)	1433(100)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남학교	163(97.6)	4(2.4)	167(100)	3.514
	여학교	58(92.1)	5(7.9)	63(100)	
	남녀공학	1368(95.1)	70(4.7)	1438(100)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남학교	151(93.2)	11(6.8)	162(100)	.008
	여학교	54(93.1)	4(6.9)	58(100)	
	남녀공학	1331(93.3)	95(6.7)	1426(100)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남학교	135(83.3)	27(16.7)	162(100)	10.389**
	여학교	46(80.7)	11(19.3)	57(100)	
	남녀공학	1003(72.4)	382(27.6)	1385(100)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남학교	153(98.1)	3(1.9)	156(100)	62.096***
	여학교	61(95.3)	3(4.7)	64(100)	
	남녀공학	1014(73.0)	375(27.0)	1389(100)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유형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남학교	105(66.5)	53(33.5)	158(100)	2.616
	여학교	28(54.9)	23(45.1)	51(100)	
	남녀공학	842(61.2)	533(38.8)	1374(100)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남학교	112(70.9)	46(29.1)	158(100)	29.565***
	여학교	19(38.8)	30(61.2)	49(100)	
	남녀공학	1031(73.9)	364(26.1)	1395(100)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남학교	105(69.1)	47(30.9)	152(100)	4.374
	여학교	32(62.7)	19(37.3)	51(100)	
	남녀공학	1026(73.8)	364(26.2)	1390(100)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남학교	125(77.2)	37(22.8)	162(100)	12.878**
	여학교	29(54.7)	24(45.3)	53(100)	
	남녀공학	1066(76.1)	335(23.9)	1401(100)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남학교	144(91.1)	14(8.9)	158(100)	21.318***
	여학교	34(64.2)	19(35.8)	53(100)	
	남녀공학	1184(83.7)	231(16.3)	1415(1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남학교	105(68.2)	49(31.8)	154(100)	15.641***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유형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여학교	28(52.8)	25(47.2)	53(100)	
	남녀공학	1053(75.1)	350(24.9)	1403(100)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남학교	54(36.7)	93(63.3)	147(100)	16.018***
	여학교	15(28.3)	38(71.7)	53(100)	
	남녀공학	296(22.2)	1037(77.8)	1333(100)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남학교	81(53.6)	70(46.4)	151(100)	10.148**
	여학교	14(28.0)	36(72.0)	50(100)	
	남녀공학	625(45.6)	746(54.4)	1371(100)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남학교	77(51.7)	72(48.3)	149(100)	7.880*
	여학교	15(29.4)	36(70.6)	51(100)	
	남녀공학	597(44.1)	756(55.9)	1353(100)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남학교	107(68.6)	49(31.4)	156(100)	1.913
	여학교	30(61.2)	19(38.8)	49(100)	
	남녀공학	864(63.2)	504(36.8)	1368(100)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남학교	112(70.0)	48(30.0)	160(100)	1.794
	여학교	38(73.1)	14(26.9)	52(100)	

수업방해 행동유형	학교유형별	경험유무		N	χ^2
		유	무		
	남녀공학	922(66.3)	468(33.7)	1390(100)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남학교	145(89.5)	17(10.5)	162(100)	.427
	여학교	51(86.4)	8(13.6)	59(100)	
	남녀공학	1257(89.0)	156(11.0)	1413(100)	

* p <.05, ** p<.01, *** p<.001

<표 III-2-14> 수업방해 행동의 심각도(학교유형별)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남학교	2.88(.79)	20(18.3)	64(58.7)	17(15.6)	8(7.3)	109(100)
	여학교	2.28(1.02)	5(12.8)	12(30.8)	11(28.2)	11(28.2)	39(100)
	남녀공학	2.87(.85)	254(22.0)	591(51.1)	214(18.5)	98(8.5)	1157(100)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남학교	3.26(.73)	48(39.7)	61(50.4)	8(6.6)	4(3.3)	121(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여학교	3.07(.75)	11(26.8)	24(58.5)	4(9.8)	2(4.9)	41(100)
	남녀공학	3.17(.73)	419(33.8)	656(52.9)	129(10.4)	37(3.0)	1241(100)
수업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남학교	2.95(.81)	30(25.0)	60(50.0)	24(20.0)	6(5.0)	120(100)
	여학교	2.75(.74)	5(12.5)	22(55.0)	11(27.5)	2(5.0)	40(100)
	남녀공학	3.08(.77)	375(30.3)	630(50.9)	190(15.3)	43(3.5)	1238(100)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남학교	2.82(.89)	24(20.7)	60(51.7)	19(16.4)	13(11.2)	116(100)
	여학교	2.73(.96)	9(24.3)	13(35.1)	11(29.7)	4(10.8)	37(100)
	남녀공학	2.71(.95)	224(20.7)	472(43.7)	236(21.9)	148(13.7)	1080(100)
옆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남학교	3.25(.73)	55(42.3)	53(40.8)	22(16.9)	0(0)	130(100)
	여학교	3.18(.90)	17(44.7)	13(34.2)	6(15.8)	2(5.3)	38(100)
	남녀공학	2.74(.96)	254(23.2)	458(41.8)	234(21.3)	151(13.8)	1097(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남학교	2.63(.90)	19(17.0)	46(41.1)	34(30.4)	13(11.6)	112(100)
	여학교	2.09(.87)	1(2.9)	11(32.4)	12(35.2)	10(29.4)	34(100)
	남녀공학	2.62(1.09)	214(21.2)	382(37.8)	233(23.1)	181(17.9)	1010(100)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남학교	2.60(.91)	15(13.8)	52(47.7)	25(22.9)	17(15.6)	109(100)
	여학교	1.82(.81)	1(3.0)	5(1.2)	14(42.4)	13(39.4)	33(100)
	남녀공학	2.80(.89)	228(21.0)	524(48.3)	222(20.5)	111(10.2)	1085(100)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남학교	2.55(.88)	15(13.2)	48(42.1)	36(36.1)	15(13.2)	114(100)
	여학교	2.26(.98)	5(13.2)	9(23.7)	15(39.5)	9(23.7)	38(100)
	남녀공학	2.72(.90)	206(19.1)	497(46.0)	257(23.8)	121(11.2)	1081(100)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남학교	2.86(.79)	19(17.4)	64(58.7)	18(16.5)	8(7.3)	109(100)
	여학교	2.27(1.01)	4(12.1)	10(30.3)	10(30.3)	9(27.3)	33(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남녀공학	2.89(.87)	263(24.4)	522(48.5)	198(18.4)	93(8.6)	1076(100)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남학교	2.99(.81)	33(26.8)	63(51.2)	20(16.3)	7(5.7)	123(100)
	여학교	2.23(1.02)	4(12.9)	8(25.8)	10(32.3)	9(29.0)	31(100)
	남녀공학	2.99(.83)	310(27.0)	587(51.2)	173(15.1)	77(6.7)	1147(1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남학교	2.47(.90)	12(10.9)	46(41.8)	34(30.9)	18(16.4)	110(100)
	여학교	2.76(.97)	3(9.1)	11(33.3)	10(30.3)	9(27.3)	33(100)
	남녀공학	2.24(.87)	191(17.9)	522(48.8)	247(23.1)	110(10.3)	1070(100)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남학교	2.25(.93)	9(8.8)	32(31.4)	36(35.3)	25(24.5)	102(100)
	여학교	1.93(.98)	2(6.7)	7(23.3)	8(26.7)	13(43.3)	30(100)
	남녀공학	1.93(1.05)	87(11.2)	138(17.8)	180(23.2)	370(47.7)	775(100)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남학교	2.42(.97)	14(13.6)	36(35.0)	32(31.1)	21(20.4)	103(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여학교	1.77(.86)	1(3.3)	5(16.7)	10(33.3)	14(46.7)	30(100)
	남녀공학	2.41(1.08)	169(18.8)	281(31.2)	203(22.5)	248(27.5)	901(100)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남학교	2.39(.99)	14(13.)	36(35.0)	29(28.2)	24(23.3)	103(100)
	여학교	1.81(1.09)	4(12.5)	5(12.5)	6(18.8)	18(56.3)	32(100)
	남녀공학	2.40(1.12)	194(21.4)	244(27.0)	196(21.7)	271(29.9)	905(100)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남학교	2.71(.90)	20(18.7)	48(44.9)	27(25.2)	12(11.2)	107(100)
	여학교	2.31(1.04)	4(11.1)	14(38.9)	7(19.4)	11(30.6)	36(100)
	남녀공학	2.71(1.01)	239(23.4)	421(41.3)	184(18)	176(17.3)	1020(100)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남학교	2.72(.93)	21(19.8)	48(45.3)	23(21.7)	14(13.2)	106(100)
	여학교	2.57(1.12)	8(22.9)	13(37.1)	5(14.3)	9(25.7)	35(100)
	남녀공학	2.73(.98)	230(22.6)	438(43.1)	193(19.0)	155(15.3)	1016(1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학교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응답내용 빈도(%)				전체 (%)
			매우 심각함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남학교	3.00(.86)	36(30.0)	56(46.7)	20(16.7)	8(6.7)	120(100)
	여학교	2.88(.84)	7(20.6)	19(55.9)	5(14.7)	3(8.8)	34(100)
	남녀공학	3.10(.85)	370(30.6)	567(46.9)	193(16.0)	80(6.6)	1210(100)

<표 III-2-15> 수업방해 행동 유형 심각도(학교유형별 변량분석 결과)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12.948	2	6.474	8.907	.000***
오차	946.313	1302	.727	b<a,c	
합계	959.261	1304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1.373	2	.687	1.291	.275

수업 방해 행동 유형	제 곱 합	자유도	평균 제 곱	F	유의 확률
오 차	744.722	1400	.532		
합 계	746.096	1402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5.789	2	2.895	4.875	.008**
오 차	828.283	1395	.594	b<c	
합 계	834.072	1397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1.137	2	.569	.642	.526
오 차	1088.659	1230	.885		
합 계	1089.796	1232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35.863	2	17.931	20.244	.000***
오 차	1117.841	1262	.886	c<a,b	
합 계	1153.704	1264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9.481	2	4.740	4.786	.009**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 곱 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오 차	1142.003	1153	.990	b<a,c	
합 계	1151.484	1155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33.992	2	16.996	21.621	.000***
오 차	962.147	1224	.786	b<a,c	
합 계	996.139	1226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10.630	2	5.315	6.596	.001**
오 차	991.136	1230	.806	b<c	
합 계	1001.766	1232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12.108	2	6.054	8.005	.000***
오 차	918.874	1215	.756	b<a,c	
합 계	930.982	1217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17.485	2	8.742	12.564	.000***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 곱 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오 차	903.159	1298	.696	b<a,c	
합 계	920.644	1300			
혼잣말을 하는 행위	14.464	2	7.232	9.468	.000***
오 차	924.286	1210	.764	b<c	
합 계	938.750	1212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9.251	2	4.625	4.327	.013*
오 차	966.399	904	1.069	a>c	
합 계	975.649	906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12.147	2	6.074	5.358	.005**
오 차	1168.651	1031	1.134	b<a,c	
합 계	1180.798	1033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0.636	2	5.318	4.294	.014*

수업방해 행동 유형	제 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오 차	1284.340	1037	1.239	b<a,c	
합계	1294.976	1039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5677	2	2.839	2.829	.060
오 차	1164.178	1160	1.004		
합계	1169.856	1162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873	2	.436	.456	.634
오 차	1103.726	1154	.956		
합계	1104.598	1156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586	2	.293	.401	.670
오 차	994.291	1361	.731		
합계	994.876	1363			

* p <.05, ** p <.01, *** p<.001 a=남학교 b=여학교 c=남녀공학

3) 수업방해 행동 발생 횟수와 기간

수업방해 행동의 발생 횟수와 발생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2-16>과 같다. 대체로 매일 수업방해 행동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주 1-2일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기간에 있어서는 5분-10분 미만이 3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5분 미만이 38.8%로 나타났다.

<표 III-2-16> 수업방해 행동 발생 횟수와 기간(전체)

(N=1,995)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발생횟수	매일	931(46.7)
	주 3-4일	334(16.7)
	주 1-2일	488(24.5)
	월 3-4일	96(4.8)
	월 1-2일	146(7.3)
발생기간	5분미만	775(38.8)
	5분-10분	789(39.5)
	11분-20분	190(9.5)
	20분-30분	91(4.6)
	수업시간 전체	150(7.5)

4) 수업방해 행동 발생의 기능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그리고 학생이 수업방해 행동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얻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2-17>, <표 III-2-18>, <표 III-2-19>와 같다. 수업방해 행동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1순위가 ‘학급친구와의 갈등으로 야기된 수업방해 행동’(36%)이 많았고, 2순위는 ‘어려운 과제나 활동을 제시받았을 때’(26.4%)였으며, 3순위는 ‘재미없고 지루한 과제나 설명’(23%)으로 2순위와 3순위가 수업시간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행동의 간접적 원인으로는 1순위가 ‘가정에서의 갈등’(35.25)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와 3순위는 ‘부정적 사회관계’(27.3%,

29.1%)로 나타나 학생들의 부정적 사회관계가 수업방해 행동에 가장 중요한 간접적 원인임이 나타났다.

<표 III-2-17>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전체) 단위:빈도(%)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밖	N
학급친구와의 갈등	480(36.0)	178(13.4)	220(16.5)	455(34.1)	1,333(100)
재미없고 지루한 과제나 설명	274(20.8)	255(19.4)	302(23.0)	484(36.8)	1,315(100)
교사의 질책/교정	216(21.6)	201(20.1)	195(19.5)	389(38.8)	1,001(100)
어려운 과제나 활동	202(15.7)	339(26.4)	259(20.1)	486(37.8)	1,286(100)
요구나 지시	195(17.6)	283(25.6)	210(19.0)	417(37.8)	1,105(100)
활동중심 수업진행	184(16.8)	190(17.4)	181(16.5)	540(49.3)	1,095(100)
학생주도활동	164(15.2)	194(17.9)	142(13.1)	581(53.8)	1,081(100)
교사 위주의 수업진행	119(11.5)	165(15.9)	282(27.2)	471(45.4)	1,037(100)

<표 III-2-18>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는 간접적 원인(전체) 단위:빈도(%)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밖	N
가정에서의 갈등	497(35.2)	353(25.0)	283(20.1)	278(19.7)	1,411(100)
부정적 사회관계	475(31.4)	413(27.3)	439(29.1)	184(12.2)	1,511(100)
학업적 실패	343(25.8)	329(24.8)	295(22.2)	362(27.2)	1,329(100)
학생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235(26.5)	166(18.7)	173(19.5)	313(35.3)	887(100)
과도한 게임	191(16.0)	269(22.5)	292(24.4)	444(37.1)	1,196(100)
약물치료	37(5.4)	93(13.6)	47(6.9)	505(74.1)	682(100)
사회적 고립	30(3.2)	151(16.3)	213(23.1)	530(57.4)	924(100)

<표 III-2-19>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얻는 것(전체)

단위:빈도(%)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밖	N
교사의 관심 얻기	548(42.2)	402(30.9)	223(17.2)	127(9.7)	1,300(100)
또래의 관심 얻기	484(35.1)	586(42.5)	196(14.2)	112(8.2)	1,378(100)
과제 벗어나기	197(18.4)	181(16.9)	290(27.1)	402(37.6)	1,070(100)
감각추구	181(18.5)	148(15.2)	244(25.0)	403(41.3)	976(100)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 얻기	123(12.9)	141(14.8)	400(41.9)	291(30.4)	955(100)
감각회피	80(10.1)	95(12.0)	135(17.1)	481(60.8)	791(100)
교사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68(9.0)	87(11.5)	92(12.1)	511(67.4)	758(100)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얻는 것으로는 1순위가 ‘교사의 관심얻기’(42.2%), 2순위가 ‘또래의 관심얻기’(42.5%)로 나타났으며, 3순위가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 얻기’(41.9%)로 나타나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은 ‘관심 얻기’가 주된 요인으로 이를 위해 수업방해 행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업방해 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

수업방해 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2-20>과 같다. 수업방해 행동이 발생했을 시, ‘언어적으로 질책, 혹은 타이르고 넘어감’(66.7%)이 가장 높은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수업구성이나 좌석을 변경하는 등의 환경변경’(35.2%), 3순위는 ‘부모상담이나 학생상담으로 연계하는 방법’(30.9%)으로 나타났다. 1, 2 순위 모두 학급 내에서 담당교사가 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의 경우 부모상담이나 학생상담과 같은 상담방법이 주요한 대처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수업방해 행동 발생시 대처방법 (전체)

단위:빈도(%)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밖	N
언어적으로 질책, 혹은 타이르고 넘어감	108(6.7)	335(20.5)	149(9.1)	59(3.7)	1,632(100)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감	154(17.6)	221(25.2)	225(25.7)	276(31.5)	876(100)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접근함	145(16.2)	124(13.9)	147(16.4)	479(53.5)	895(100)
수업구성이나 좌석을 변경하는 등의 환경변경	140(12.7)	388(35.2)	349(8.1)	225(44.0)	1,102(100)
부모상담이나 학생상담으로 연계	125(10.3)	327(27.0)	373(30.9)	384(31.8)	1,209(100)
수업 중 벌이나 방과 후에 남기기 등의 훈육	57(6.6)	201(23.2)	211(24.3)	399(45.9)	868(100)
학교의 수업방해 행동 지도지침에 따라 지도함	43(5.9)	81(11.2)	88(12.1)	513(70.8)	725(100)
동료교사의 자문 혹은 다중지원팀과 협력하여 대응함	19(2.6)	69(9.3)	130(17.6)	520(70.5)	738(100)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에게 해결을 요청함	2(0.3)	6(1.0)	18(3.1)	561(95.6)	587(100)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	2(0.3)	4(0.7)	23(3.9)	560(95.1)	589(100)

나. 이음교실 인식과 기여도 예측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긍정적 수업행동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여부와 이음교실이 수업방해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21>과 같다. 이음교실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가 ‘모른다’(80.4%)고 응답하여, 이음교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도 예측에서는 ‘기여할 것이다’가 62.5%로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이음교실 사업을 수업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사업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역시 37.6%로 낮지 않으므로 이음교실이 학교 현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기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음교실의 보완과 개선, 더 많은 선도학교들의 참여, 성공적인 운영 결과와 성과 확산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급에서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표 III-2-22>과 같이 총 9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 설문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는 ‘인성 및 생활교육’(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상담·치유 프로그램’(32.3%), 3순위는 ‘개별 학생 맞춤형지원’(30.6%)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학생 생활에서 지도하는 인성교육과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표 III-2-21> 이음교실 인식여부 및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대한 기여 예측(전체)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인식여부	알고 있다	568(19.6)	2,896 (100)
	모른다	2,328(80.4)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예측	매우 기여할 것이다	312(10.8)	2,896 (100)
	기여할 것이다	1,496(51.7)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860(29.7)	
	매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228(7.9)	

<표 III-2-22> 수업방해 행동 해결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전체) 단위:빈도(%)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밖	N
인성·생활교육	925(40.8)	628(27.7)	428(18.9)	286(12.6)	2,267(100)
교권교육	564(38.3)	260(17.7)	308(20.9)	340(23.1)	1,472(100)
상담·치유프로그램	540(25.1)	694(32.3)	501(23.3)	415(19.3)	2,150(100)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368(18.5)	497(24.9)	611(30.6)	518(26.0)	1,994(100)
대안교육	70(5.6)	122(9.7)	230(18.4)	830(66.3)	1,252(100)
독서교육	65(6.3)	152(14.8)	179(17.4)	634(61.5)	1,030(100)
인권교육	64(5.4)	166(14.1)	153(13.0)	793(67.5)	1,176(100)
진로교육	35(3.3)	88(8.2)	127(11.8)	823(76.7)	1,073(100)
보건교육	10(1.1)	11(1.3)	69(7.9)	786(89.7)	876(100)

다.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운영 현황

1)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운영 전반

가)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 및 만족도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23>과 같이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선도학교의 공감도는 ‘공감한다’가 전체 89.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3>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선도학교)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이음교실 취지와 내용의 공감도	매우 공감한다	24(32.0)	75
	대체로 공감한다	43(57.3)	
	별로 공감하지 못한다	6(8.0)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2(2.7)	

나)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은 <표 III-2-24>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구성이 ‘적절했다’가 전체 응답의 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4>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적절성 및 만족도(선도학교)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17(22.7)	75
	대체로 적절하다	46(61.3)	
	별로 적절하지 않다	10(13.3)	
	전혀 적절하지 않다	2(2.7)	

다) 이음교실 프로그램 대상 학생 선정 준거

수업방해 프로그램 대상 학생 선정 준거는 <표 III-2-25>와 같이 나타났다. ‘수업방해 행동의 정도’가 52.2%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추천’이 28.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5> 수업방해 프로그램 대상 학생 선정 준거(선도학교) (N=67)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학생 선정 준거	상담(면담) 결과	7(10.4%)
	각종 검사결과	2(3.0%)
	수업방해 행동의 정도	35(52.2%)
	교사의 추천	19(28.4%)
	학생의 희망	4(6%)

라) 이음교실 운영 중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

이음교실 운영 중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은 <표 III-2-26>과 같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응답이 ‘수업방해 학생 대상으로 원인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52.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40.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6> 이음교실 운영 중 수업방해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선도학교)(N=67)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주된 대응방법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27(40.3)
	수업방해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 운영	5(7.5%)
	수업방해 학생 대상으로 원인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35(52.2)

마) 학부모 교육과 이음교실의 운영 시 협력 정도

학부모 교육 실시와 이음교실의 운영 시 협력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Ⅲ-2-27>, <표 Ⅲ-2-28>과 같다. 학부모 교육은 ‘계획은 했으나 실시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계획했고 실시했다’ 29.2%, ‘실시계획에 없었다’가 27.7%로 나타났다.

<표 Ⅲ-2-27> 학부모 교육(선도학교)

(N=65)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학부모 교육	계획했고 실시했다	19(29.2)
	계획은 했으나 실시하지 못했다	28(43.1)
	실시 계획에 없었다.	18(27.7)

<표 Ⅲ-2-28> 학교 내 및 지역사회 협력정도(선도학교)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학교 내 교직원들 간의 협력	매우 협력적임	22(33.8)	65
	대체로 협력적임	34(52.3)	
	별로 협력적이지 않음	8(12.3)	
	전혀 협력적이지 않음	1(1.5)	
학부모와의 협력	매우 협력적임	8(12.5)	64
	대체로 협력적임	40(62.5)	
	별로 협력적이지 않음	14(21.9)	
	전혀 협력적이지 않음	2(3.1)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매우 협력적임	11(16.9)	65
	대체로 협력적임	31(47.7)	
	별로 협력적이지 않음	21(32.3)	
	전혀 협력적이지 않음	2(3.1)	

학교 내 교직원들 간의 협력은 ‘협력적이다’가 86.1%로 나타났으며, 협력적이지 않다가 13.8%로 나타났다. 학부모와의 협력에서는 ‘협력적이다’가 75%로 나타났으며 ‘협력적이지 않다’가 25%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은 ‘협력적이다’가 64.6%, ‘협력적이지 않다’가 35.4%로 나타났다.

바) 이음교실 운영예산과 운영을 위한 공간

이음교실 운영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29>와 같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전체 87.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9> 이음교실 운영예산의 충분성(선도학교) (N=65)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운영예산의 충분성	매우 충분하다	18(27.7)
	대체로 충분하다	39(60.0)
	별로 충분하지 않다	7(10.8)
	전혀 충분하지 않다	1(1.5)

<표 III-2-30> 이음교실 전용공간(선도학교) (N=64)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전용공간 확보여부	확보되어 있음	26(40.6)
	확보되어 있지 않음	38(59.4)
전용공간 장소	별도로 정해진 교실	42(65.6)
	Wee클래스 교실	22(34.4)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별도로 정해진 교실	47(73.4)
	Wee클래스 교실	17(26.6)

이음교실 운영 공간에 대해서는 <표 III-2-30>과 같이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가 59.6%로 나타났고, ‘확보되어 있음’ 4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용공간 장소는 ‘별도로 정해진 교실’이 65.6%였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도 ‘Wee클래스 교실’보다 ‘별도로 정해진 교실’ 73.4%로 높게 나타났다.

사)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표 III-2-31>과 같다.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만족한다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3.6%로 높게 나타났다. 이음교실 운영의 실행절차와 실행과정의 만족도도 81.6%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실시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75%로 나타났다. 학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8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의 태도나 반응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도 85.3%로 높게 나타났다. 통합지원팀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83.3%, 외부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85%로 나타났다.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에서는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음교실 운영교사 인센티브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63.3%, 불만족이 36.7%로 다른 문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이음교실 선교학교의 교사 역량강화 부분

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의 적절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의 적절성은 <표 III-2-32>와 같이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은 ‘적절했다’는 항목이 73.4%, ‘적절하지 않았다’가 26.6%로 적절했다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1>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선도학교)

문항 내용	만족도				N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22(36.1)	34(55.7)	5(8.2)	0(0)	61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20(32.8)	31(50.8)	10(16.4)	0(0)	61
실행절차와 실행과정	17(28.3)	32(53.3)	11(18.3)	0(0)	60
프로그램 실시 공간	15(25.0)	30(50.0)	13(21.7)	2(3.3)	60
학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	18(29.5)	34(55.7)	9(14.8)	0(0)	61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의 태도나 반응	14(23.0)	38(62.3)	8(13.1)	1(1.6)	61
통합지원팀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18(30.0)	32(53.3)	10(16.7)	0(0)	60
외부강사의 전문성	14(23.3)	37(61.7)	9(15.0)	0(0)	60
이음교실 운영교사 인센티브 및 지원	11(18.3)	27(45.0)	19(31.7)	3(5.0)	60
예산지원	21(35.0)	34(56.7)	5(8.3)	0(0)	60

<표 III-2-32>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의 적절성(선도학교)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교사의 전문성 신장기회 제공의 적절성	매우 그렇다	16(25.0)	64
	대체로 그렇다	31(48.4)	
	별로 그렇지 않다	14(21.9)	
	전혀 그렇지 않다	3(4.7)	

나) 효과적인 교사 역량 강화방법과 연수내용

효과적인 교사 역량 강화방법과 연수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33>과 같다. 교사역량강화방법으로는 ‘컨설팅’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전문가 초청 연수’가 28.6%, ‘수업방해예방관련 원격연수’ 19%, ‘학교자체연수’가 15.9%, ‘교육청 주최 워크숍’이 4.8%로 나타났다.

<표 III-2-33> 효과적인 교사역량강화방법과 가장 필요한 연수내용(선도학교) (N=63)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교사역량강화방법	학교자체연수	10(15.9)
	외부전문가 초청연수	18(28.6)
	수업방해예방관련 원격연수	12(19.0)
	컨설팅	20(31.7)
	교육청 주최 워크숍	3(4.8)
가장 필요한 연수내용	수업방해 행동 예방 및 대처기술	32(50.8)
	학생을 심층 이해하기	13(20.6)
	학생상담기술	6(9.5)
	수업방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12(19.0)

가장 필요한 연수내용으로는 ‘수업방해 행동 예방 및 대처기술’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을 심층이해하기’가 20.6%, ‘수업방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수가 19%, ‘학생상담기술’이 9.5%로 나타났다.

3)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과 적절성 부분

이음교실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과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34>, <표 III-2-35>와 같다. 8개 프로그램 중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82%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치유프로그램 실시가 66%,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62.7%, 교권교육프로그램이 60.3%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54.2%, 독서교육프로그램이 46.7%, 대안교육프로그램이 42%로 나타났고 보건교육프로그램이 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34> 이음교실 선도학교 프로그램 실시여부(선도학교) 단위:빈도(%)

문항 내용	실시여부		N
	실시	미실시	
교권교육 프로그램	32(60.3)	21(39.7)	53
독서교육 프로그램	28(46.7)	22(53.3)	60
보건교육 프로그램	19(38.0)	31(62.0)	50
진로교육 프로그램	26(54.2)	22(45.8)	48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	41(82.0)	9(18.0)	50
인권교육 프로그램	32(62.7)	19(37.3)	51
상담·치유 프로그램	33(66.0)	17(34.0)	50
대안교육 프로그램	21(42.0)	29(58.0)	50

<표 III-2-35> 이음교실 선도학교 프로그램 적절성 부분(선도학교) 단위:빈도(%)

문항 내용	적절성				N
	매우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교권교육 프로그램	11(38.0)	18(62.0)	0(0)	0(0)	29
독서교육 프로그램	8(27.6)	20(69.0)	1(3.4)	0(0)	29
보건교육 프로그램	8(34.8)	12(52.2)	3(13.0)	0(0)	23
진로교육 프로그램	8(29.6)	19(70.4)	0(0)	0(0)	27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	16(39.1)	25(60.9)	0(0)	0(0)	41
인권교육 프로그램	14(43.8)	17(53.1)	1(3.1)	0(0)	32
상담·치유 프로그램	14(42.4)	18(54.5)	1(3.1)	0(0)	33
대안교육 프로그램	10(37.0)	16(59.3)	1(3.7)	0(0)	27

이음교실 선도학교 8개 프로그램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교권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100%로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응답했으며, 상담·치유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96.9%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96.6%,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96.3%로 나타났으며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87%로 8개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 이음교실 운영 효과

1) 이음교실이 학교 및 학급에 미친 긍정적 영향

이음교실이 학교 및 학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36>과 같다. ‘수업분위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83%로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권침해 감소’가 81%, ‘민주적인 학교 학급 문화 조성’이 79.3%, ‘수업방해 행동 감소’가 77.9%로 나타났으며 ‘학교-학부모간 유대협력강화’는 65.6%로 나타났다.

<표 III-2-36> 학교 및 학급에 미친 영향(선도학교)

단위:빈도(%)

문항 내용	긍정적 영향도				N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업방해 행동 감소	13(22.0)	33(55.9)	11(18.6)	2(3.4)	59(100)
교권 침해 감소	14(24.1)	33(56.9)	8(13.8)	3(5.2)	58(100)
수업분위기 개선	12(20.3)	37(62.7)	8(13.6)	2(3.4)	59(100)
민주적인 학교·학급 문화 조성	11(19.0)	35(60.3)	11(19.0)	1(1.7)	58(100)
학교-학부모간 유대 협력 강화	11(19.0)	27(46.6)	19(32.8)	1(1.7)	58(100)

2)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변화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표 III-2-37>과 같다. 교사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86%, 수업태도의 개선 수업 참여율 증진은 83%,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긍정적 태도와 정서증가는 82.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은 79.3%, 무기력감 감소는 75.8%,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 증진은 80.7%로 나타났다.

<표 III-2-37> 이음교실을 통한 학생 변화(선도학교)

단위:빈도(%)

문항 내용	변화				N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업태도의 개선·수업 참여율 증진	12(20.3)	37(62.7)	9(15.3)	1(1.7)	59(100)
전반적인 생활에서 긍정적 태도와 정서 증가	14(24.1)	34(58.6)	9(15.5)	1(1.7)	58(100)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향상	13(22.4)	32(55.2)	12(20.7)	1(1.7)	58(100)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12(20.7)	34(58.6)	10(17.2)	2(3.4)	58(100)
교사와의 관계 개선	14(24.6)	35(61.4)	7(12.3)	1(1.8)	57(100)
무기력감 감소	10(17.2)	34(58.6)	12(20.7)	2(3.4)	58(100)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 증진	13(22.8)	33(57.9)	9(15.8)	2(3.5)	57(100)

3.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 인식

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1) 전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3-1>, <표 III-3-2>와 같다. 학생들은 대부분 친밀감의 대부분 항목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사 지지영역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참여도에 있어서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수업시간에 었드려 있거나 자는 학생들이 많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3.4로 다소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교사 통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사 통제는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고 있고, 학생도 교사가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학업지향 영역에서는 대부분 학업중심인 분위기로 언급하였다. 경쟁영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로 도와가며 하지만, 학업경쟁이나 교사의 인정, 또래 관심부분에서만 특히 경쟁적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질서조직 영역에서는 대부분 규칙을 알고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1> 전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영역별	범위(응답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N
친밀감	7-35	26.2(4.4)	13,963
교사지지	6-30	22.5(4.0)	13,984
참여도	6-30	20.7(4.07)	13,984
갈등	5-25	18.0(2.7)	13,956
교사통제	6-30	18.4(2.7)	13,938
학업지향	5-25	18.2(2.7)	13,910
질서조직	9-45	30.8(4.9)	13,886
경쟁	7-30	18.5(2.7)	13,963
전체	74-233	173.3(20.1)	13,130

<표 III-3-2> 전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영역별)

단위:빈도(%)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척도					N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밀감	1.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4.28 (0.91)	107 (0.8)	338 (1.7)	2,757 (19.5)	3,150 (22.3)	7,779 (55)	14,131 (100)
	6. 우리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2.53 (1.05)	2,584 (18.3)	4,388 (31.1)	4,938 (35.0)	1,553 (11.0)	653 (4.6)	14,116 (100)
	7.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2.01 (1.08)	5,874 (41.7)	4,031 (28.6)	2,908 (20.6)	797 (5.7)	493 (3.5)	14,103 (100)
	22. 학생들은 학생들 간에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4.04 (0.96)	168 (1.2)	467 (3.3)	3,841 (27.2)	3,853 (27.3)	5,789 (41.0)	14,118 (100)
	33.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별로 없다*	2.32 (1.14)	4,164 (29.5)	4,019 (28.5)	3,874 (27.5)	1,367 (9.7)	685 (4.9)	14,109 (100)
	42. 우리학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룹들이 있다.*	2.90 (1.14)	1,813 (12.8)	3,308 (23.4)	4,589 (32.5)	3,264 (231)	1,141 (8.1)	14,115 (100)
	47.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3.63 (1.05)	537 (3.8)	1,016 (7.2)	5,143 (36.5)	3,837 (27.2)	3,572 (25.3)	14,105 (100)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척도					N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지향	8.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해내는 것을 중요시 한다	3.82 (0.98)	237 (1.7)	802 (5.7)	4,391 (31.1)	4,462 (31.6)	4,225 (29.9)	14,117 (100)
	19. 우리학교는 배우는 곳이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곳이다*	3.09 (1.00)	920 (6.7)	2,276 (16.2)	6,783 (48.3)	2,735 (19.2)	1,349 (9.6)	14,083 (100)
	29.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3.75 (0.92)	187 (1.3)	642 (4.6)	5,166 (36.7)	4,583 (32.6)	3,499 (24.9)	14,077 (100)
	39.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3.52 (0.97)	349 (2.5)	1,200 (8.5)	5,950 (42.2)	3,984 (28.3)	2,604 (18.5)	14,087 (100)
	49. 선생님들은 수업을 충실하게 한다	4.17 (0.93)	136 (1.0)	282 (2.0)	3,467 (24.6)	3,292 (23.4)	6,914 (49.1)	14,091 (100)
갈등	14. 교실에서 놀림당하거나 놀리는 일이 많다*	2.13 (1.14)	5,358 (37.9)	4,057 (28.7)	2,859 (20.2)	1,241 (8.8)	605 (4.3)	14,120 (100)
	20. 우리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	2.72 (1.14)	2,256 (16.0)	2,392 (27.6)	4,501 (32.0)	2,446 (17.4)	989 (7.0)	14,084 (100)
	36.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분쟁문제가 많이 생긴다*	2.34 (1.04)	3,410 (24.2)	4,603 (32.6)	4,529 (32.1)	1,001 (7.1)	557 (4.0)	14,100 (100)
	43.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2.22 (1.06)	4,321 (30.7)	4,286 (30.4)	4,116 (29.2)	855 (6.1)	512 (3.6)	14,090 (100)
	48. 우리학교에는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2.52 (1.10)	2,468 (17.5)	3,977 (28.2)	4,892 (34.7)	1,937 (13.7)	8,224 (5.8)	14,098 (100)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척도					N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 지지	2.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4.26 (0.95)	181 (1.3)	446 (3.2)	2,587 (18.3)	3,161 (22.4)	7,756 (54.9)	14,131 (100)
	18.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도울 때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3.47 (1.08)	724 (5.1)	1,309 (9.3)	5,701 (40.4)	3,320 (23.5)	3,058 (21.7)	14,112 (100)
	24.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틀린 대답을 하면 무안을 준다*	2.31 (1.16)	4,499 (31.9)	3,495 (24.8)	4,143 (29.4)	1,219 (8.6)	740 (5.2)	14,096 (100)
	34. 수업 중에 학생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선생님은 기회를 준다	4.08 (0.96)	188 (1.3)	404 (2.9)	3,620 (25.6)	3,718 (26.3)	6,184 (43.8)	14,114 (100)
	38. 선생님들은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	3.44 (1.02)	549 (3.9)	1,407 (10.0)	5,918 (42.0)	3,747 (26.6)	2,472 (17.5)	14,093 (100)
	41. 선생님들은 화를 내지 않고 많이 참으신다	3.53 (1.06)	585 (4.1)	1,299 (9.2)	5,273 (37.3)	3,922 (27.8)	3,052 (21.6)	14,131 (100)
참여도	5.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	3.85 (1.00)	253 (1.8)	869 (6.2)	4,099 (29)	4,375 (31.0)	4,516 (32.0)	14,112 (100)
	13.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공부를 별로 안한다*	2.54 (1.11)	2,723 (19.3)	4,393 (31.1)	4,352 (30.8)	1,823 (12.9)	826 (5.9)	14,117 (100)
	16. 대부분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3.73 (0.98)	277 (2.0)	918 (6.5)	4,782 (33.9)	4,521 (32.0)	3,611 (25.6)	14,109 (100)
	21. 학급회의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2.54 (1.11)	2,884 (20.4)	3,998 (28.3)	4,810 (34.0)	1,618 (11.5)	821 (5.8)	14,131 (100)
	26.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낙서를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다*	2.39 (1.14)	3,617 (25.6)	4,446 (31.5)	3,596 (25.5)	1,770 (12.5)	679 (4.8)	14,108 (100)
	37.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자는 학생들이 있다*	3.40 (1.22)	1,359 (9.6)	1,802 (12.8)	3,643 (25.8)	4,402 (31.2)	2,892 (20.5)	14,098 (100)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척도					N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 통제	15. 선생님들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진 않는다	3.02 (1.10)	1,521 (10.8)	2,437 (17.3)	5,744 (40.7)	2,990 (21.2)	1,415 (10.0)	14,107 (100)
	25. 수업시간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3.60 (0.97)	282 (2.0)	1,155 (8.2)	5,470 (38.8)	4,249 (30.1)	2,937 (20.8)	14,093 (100)
	30. 선생님들은 자주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3.50 (1.12)	677 (4.8)	1,914 (13.6)	4,618 (32.8)	3,590 (25.5)	3,271 (23.2)	14,070 (100)
	31.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야단을 맞는다*	3.18 (1.13)	1,234 (8.7)	2,481 (17.6)	4,676 (33.1)	3,925 (27.8)	1,815 (12.8)	14,131 (100)
	46.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2.21 (1.18)	5,291 (37.5)	3,226 (22.9)	3,538 (25.1)	1,417 (10.0)	642 (4.5)	14,114 (100)
	50.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는다*	3.37 (1.09)	757 (5.4)	1,861 (13.2)	5,527 (39.2)	3,293 (23.4)	2,658 (18.9)	14,096 (100)
경쟁	3. 학생들은 성적이나 과제에서 친구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한다*	3.67 (1.02)	313 (2.2)	1,315 (9.3)	4,617 (32.7)	4,377 (31.0)	3,500 (24.8)	14,122 (100)
	9.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인정을 친구들보다 더 받고 싶어한다*	3.16 (1.00)	708 (5.0)	2,352 (16.7)	6,550 (46.5)	2,874 (20.4)	1,614 (11.4)	14,098 (100)
	12. 학생들은 다른 친구보다 자신이 관심을 더 받고 싶어한다*	3.34 (0.97)	456 (3.2)	1,737 (12.3)	6,385 (45.2)	3,631 (25.7)	1,916 (13.6)	14,125 (100)
	27. 학생들은 과제를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3.54 (1.05)	543 (3.9)	1,290 (9.2)	5,425 (38.5)	3,670 (26.1)	3,159 (22.4)	14,087 (100)
	28.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서로 과제를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3.50 (0.97)	363 (2.6)	1,114 (7.9)	6,453 (45.8)	3,494 (24.8)	2,669 (18.9)	14,093 (100)
	32.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나 활동지, 작품을 친구에게 서로 보여준다	3.63 (1.01)	363 (2.6)	1,266 (9.0)	4,776 (33.8)	4,586 (32.5)	3,126 (22.1)	14,122 (100)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척도					N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서 조직	4. 우리학교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거의 없다*	2.59 (1.11)	2,921 (20.7)	3,380 (23.9)	5,258 (37.2)	1,734 (12.3)	823 (5.8)	14,116 (100)
	10.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지 않는다	2.84 (1.17)	2,157 (15.3)	3,126 (22.2)	5,149 (36.5)	2,208 (15.7)	1,460 (10.4)	14,110 (100)
	11. 학생들은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있다	3.74 (1.06)	441 (3.1)	1,234 (8.7)	3,821 (27.1)	4,665 (33.0)	3,963 (28.1)	14,124 (100)
	17.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학생들이 있다*	3.17 (1.15)	1,302 (9.2)	2,703 (19.2)	4,147 (29.4)	4,186 (29.7)	1,773 (12.6)	14,111 (100)
	23. 우리학교에서는 일단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을 일관성있게 실행한다	3.50 (0.98)	415 (2.9)	1,208 (8.6)	5,880 (41.7)	4,103 (29.1)	2,500 (17.7)	14,106 (100)
	35. 과제가 분명해서 학생들이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71 (0.97)	252 (1.8)	905 (6.4)	5,118 (36.3)	4,221 (29.9)	3,604 (25.6)	14,110 (100)
	40. 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다*	2.27 (1.13)	4,341 (30.8)	4,254 (30.2)	3,540 (25.1)	1,263 (9.0)	693 (4.9)	14,091 (100)
	44.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학습내용과 관련 없는 말씀을 많이 한다*	2.49 (1.05)	2,657 (18.8)	4,655 (33.0)	4,583 (32.5)	1,639 (11.6)	577 (4.1)	14,111 (100)
	45. 우리학교가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잘 계획되어 이루어진다	3.56 (0.95)	301 (2.1)	939 (6.7)	6,211 (44.0)	3,815 (27.1)	2,837 (20.1)	14,103 (100)

2) 학생 성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학생성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 대한 인식조사결과는 <표 III-3-3>과 같다. 8개 영역 중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영역은 친밀감과 질서조직을 제외한 2개 영역이다. 교사지지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게 나타나, 교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t=-3.890$, $p<.001$)하였고, 참여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게 나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학교활동이나 수업에 참여한다($t=-3.489$, $p<.001$)고 응답하였다.

갈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 및 또래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인식($t=-10.523$, $p<.001$)했으며, 교사 통제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았다($t=-14.199$, $p<.001$).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의 통제를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지향과 경쟁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업지향적이지만($t=-7.107$, $p<.001$), 경쟁적이지 않다($t=-9.828$, $p<.001$)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3-3> 학생 성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

영역별	학생성별	평균(표준편차)	N	t값(유의 확률)
친밀감	남학생	26.18(4.43)	6448	-.655 (.513)
	여학생	26.22(4.44)	7515	
교사지지	남학생	22.35(3.95)	6460	-3.890*** (<.001)
	여학생	22.61(4.10)	7524	
참여도	남학생	20.56(4.05)	6451	-3.489*** (<.001)
	여학생	20.81(4.08)	7533	
갈등 ⁺	남학생	17.61(4.08)	6438	-10.523*** (<.001)
	여학생	18.31(3.69)	7518	
교사통제 ⁺	남학생	18.02(2.73)	6427	-14.199***

영역별	학생성별	평균(표준편차)	N	t값(유의확률)
학업지향	여학생	18.67(2.70)	7511	($<.001$)
	남학생	18(2.79)	6424	-7.107^{***} ($<.001$)
	여학생	18.33(2.65)	7486	
질서조직	남학생	30.77(4.92)	6405	-1.371 (.170)
	여학생	30.88(4.88)	7481	
경쟁 ⁺	남학생	18.25(2.58)	6447	-9.828^{***} ($<.001$)
	여학생	18.49(2.66)	7516	
전체	남학생	171.73(20.10)	5972	-7.939^{***} ($<.001$)
	여학생	174.52(20.05)	7158	
전체		173.25(20.12)	13130	-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없고, 교사통제가 적으며, 경쟁적이지 않음, *** $p<.001$

3)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는 <표 III-3-4>, <표 III-3-5>와 같다.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분위기 인식결과는 8개 영역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친밀감과 교사지지, 참여도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아, 교사 및 또래간 친밀감을 더 느끼고 ($F=145.846$, $p<.001$), 교사지지를 더 받으며($F=332.934$, $p<.001$), 학교 및 수업활동을 더 많이 참여한다($F=388.621$, $p<.001$)고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친밀감과 교사지지, 참여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덜하다고 인식하였다.

갈등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와 또래 간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학생들의 갈등이 적다고 응답하였다($F=129.899$, $p<.001$). 교사통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를 더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통제를 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91.435$, $p<.001$).

학업지향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급들의 학생보다 학업지향적이며($F=59.097$, $p<.001$), 이는 경쟁에 있어서도 같은 순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2.815$, $p<.001$). 질서조직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초등학교에서 질서와 조직에 대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F=111.250$, $p<.001$).

<표 III-3-4>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기술통계)

영역별	학교급별	평균(표준편차)	N
친밀감	초등학교	27.06(4.32)	4030
	중학교	26.09(4.37)	7164
	고등학교	25.24(4.54)	2769
교사지지	초등학교	23.79(3.67)	4055
	중학교	22.11(4.01)	7159
	고등학교	21.56(4.13)	2770
참여도	초등학교	22.15(3.97)	4049
	중학교	20.18(3.87)	7169
	고등학교	19.90(4.11)	2766
갈등 ⁺	초등학교	18.78(3.82)	4037
	중학교	17.78(3.85)	7150
	고등학교	17.37(3.92)	2769
교사통제 ⁺	초등학교	19.01(2.73)	4038
	중학교	17.97(2.67)	7135
	고등학교	18.47(2.72)	2765

영역별	학교급별	평균(표준편차)	N
학업지향	초등학교	18.56(2.65)	4025
	중학교	18.07(2.67)	7129
	고등학교	17.91(2.87)	2756
질서조직	초등학교	31.72(4.82)	4011
	중학교	30.66(4.86)	7125
	고등학교	30.00(4.93)	2750
경쟁 ⁺	초등학교	18.63(2.77)	4041
	중학교	18.48(2.59)	7155
	고등학교	18.30(2.64)	2767
전체	초등학교	180.05(19.17)	3617
	중학교	171.43(19.59)	6846
	고등학교	168.73(20.44)	2667
전체		173.25(20.12)	13130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없고, 교사통제가 적으며, 경쟁적이지 않음

<표 III-3-5>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변량분석결과)

영역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친밀감	5626.089	2	2813.045	145.846	.000***
오차	269257.569	13960	19.288	a>b>c	
합계	274883.658	13962			
교사지지	10333.030	2	5166.515	332.934	.000***
오차	216959.117	13981	15.518	a>b>c	
합계	227292.146	13983			
참여도	12201.413	2	6100.707	388.621	.000***
오차	219478.408	13981	15.698	a>b>c	

영역	제 곱 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합계	231679.822	13983			
갈등 ⁺	3859.179	2	1929.589	129.899	.000***
오차	207266.069	13953	14.855	a>b>c	
합계	211125.247	13955			
교사통제 ⁺	2786.273	2	1393.137	191.435	.000***
오차	101409.618	13935	7.277	a>c>b	
합계	104195.891	13937			
학업지향	865.691	2	432.846	59.097	.000***
오차	101858.669	13907	7.324	a>b>c	
합계	102724.360	13909			
질서조직	5263.974	2	2631.987	111.250	.000***
오차	328447.748	13883	23.658	a>b>c	
합계	333711.722	13885			
경쟁 ⁺	180.419	2	90.209	12.815	.000***
오차	98266.709	13960	7.039	a>b>c	
합계	98447.128	13962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없고, 교사통제가 적으며, 경쟁적이지 않음, *** p<.00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4)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분위기의 조사결과는 <표 III-3-6>, <표 III-3-7>과 같다.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분위기의 인식 결과는 8개 영

역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친밀감과 교사지지, 참여도에 있어서는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순으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아, 남녀공학에서 교사 및 또래 간 친밀감을 더 느끼고($F=12.441, p<.001$), 교사지지를 더 받으며($F=84.603, p<.001$), 학교 및 수업활동을 더 많이 참여한다($F=52.172, p<.001$)고 응답하였다. 갈등과 교사통제에 있어서는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아, 남학교가 교사와 또래간 갈등이 더 많고($F=95.976, p<.001$), 교사통제도 더 많다($F=154.391, p<.001$)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여학교가 다른 학교유형인 남학교와 남녀공학보다 갈등과 교사통제가 더 적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지향 영역에 있어서는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순으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쟁 영역에 있어서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순으로 평균이 유의미하게 낮아 여학교가 학업지향적이지만($F=31.586, p<.001$), 경쟁에서는 남학교보다는 덜하다($F=11.889, p<.001$)고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의 경우 다른 학교유형인 남학교와 남녀공학보다 가장 경쟁적이지 않았다. 질서조직에 있어서는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순으로 여학교가 규칙과 질서에 있어서 다른 학교유형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F=34.078, p<.001$)고 인식하였다.

<표 III-3-6>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기술통계)

영역별	학교유형별	평균(표준편차)	N
친밀감	남학교	25.79(4.34)	1,844
	여학교	26.02(4.36)	1,898
	남녀공학	26.31(4.46)	10,221
교사지지	남학교	21.56(4.02)	1,838
	여학교	22.00(4.23)	1,897
	남녀공학	22.75(3.96)	10,249
참여도	남학교	19.80(3.79)	1,843
	여학교	20.72(4.00)	1,894
	남녀공학	20.85(4.11)	10,247
갈등 ⁺	남학교	16.85(4.05)	1,834
	여학교	18.41(3.72)	1,893
	남녀공학	18.11(3.85)	10,229

영역별	학교유형별	평균(표준편차)	N
교사통제 ⁺	남학교	17.35(2.64)	1,838
	여학교	18.71(2.68)	1,888
	남녀공학	18.49(2.72)	10,212
학업지향	남학교	17.71(2.84)	1,836
	여학교	18.27(2.63)	1,878
	남녀공학	18.24(2.70)	10,196
질서조직	남학교	29.96(4.75)	1,835
	여학교	31.03(4.97)	1,887
	남녀공학	30.96(4.90)	10,164
경쟁 ⁺	남학교	18.21(2.51)	1,839
	여학교	18.52(2.72)	1,894
	남녀공학	18.53(2.66)	10,230
전체	남학교	167.28(19.25)	1,749
	여학교	173.77(20.51)	1,830
	남녀공학	174.25(20.01)	9,551
전체		173.25(20.12)	13,130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없고, 교사통제가 적으며, 경쟁적이지 않음,

<표 III-3-7> 학교유형별에 따른 학교 분위기(변량분석 결과)

영역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친밀감	489.079	2	244.430	12.441	.000***
오차	274394.579	13960	19.656	a,b<c	
합계	274883.658	13962			
교사지지	2717.919	2	1358.959	84.603	.000***
오차	224574.228	13981	16.063	a<b<c	
합계	227292.146	13983			
참여도	1716.272	2	858.136	52.172	.000***

영역	제 곱 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오 차	229963.550	13981	16.448	a>b,c	
합 계	231679.822	13983			
갈 등	2865.049	2	1432.524	95.976	.000***
오 차	208260.199	13953	14.926	b>c>a	
합 계	211125.247	13955			
교사통 제	2258.799	2	1129.399	154.391	.000***
오 차	101937.092	13935	7.315	b>c>a	
합 계	104195.891	13937			
학업지 향	464.515	2	232.257	31.586	.000***
오 차	102259.845	13907	7.353	a<b,c	
합 계	102724.360	13909			
질서조 직	1630.279	2	815.139	34.078	.000***
오 차	332081.443	13883	23.920	a<b,c	
합 계	333711.722	13885			
경 쟁	167.392	2	83.696	11.889	.000***
오 차	98279.735	13960	7.040	a<b,c	
합 계	98447.128	13962			

+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없고, 교사통제가 적으며, 경쟁적이지 않음, *** p<.001

a=남학교, b=여학교, c=남녀공학

나. 이음교실 인식

1)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 <표 III-3-8>과 같다. 학생들은 대체로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가 89.3%로 ‘만족하지 않는다’(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8>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선도학교)

문항내용	응답내용	빈도(%)	N
학생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00(33.0)	606
	대체로 만족한다	341(56.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8(6.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7(4.5)	

2)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이 느끼는 변화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III-3-9>와 같다. ‘그렇다’라고 답한 문항 중 ‘수업시간에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6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54.1%,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50.4%,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50%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수업참여율이 높아졌다’는 48.6%, ‘학교생활에서 무기력감이 감소했다’는 40.6%,로 나타났다.

<표 III-3-9> 이음교실에 따른 학생 변화(선도학교)

문항 내용	변화					N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수업참여율이 높아졌다	113 (18.6)	182 (30.0)	255 (42.1)	31 (5.1)	25 (3.7)	606 (100)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134 (22.1)	171 (28.3)	242 (40.0)	29 (4.3)	29 (4.3)	605 (100)
수업시간에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졌다	119 (19.7)	156 (25.7)	269 (44.5)	34 (5.6)	27 (4.5)	605 (100)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165 (27.3)	162 (26.8)	220 (36.4)	36 (6.0)	22 (3.6)	605 (100)

문항 내용	변화					N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43 (23.6)	168 (27.8)	237 (39.2)	30 (5.0)	27 (4.5)	605 (100)
학교생활에서 무기력감이 감소했다	112 (18.5)	134 (22.1)	272 (45.0)	48 (7.9)	39 (6.4)	605 (100)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	151 (25.0)	154 (25.5)	349 (39.6)	35 (5.8)	24 (4.0)	603 (100)

IV.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선도학교 교사 면담조사

본 연구는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인 ‘이음교실’에 참여한 선도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음교실 운영을 통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1. 면담조사의 연구절차 및 방법

가.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심층면담의 목적을 선도학교에 알리고 학교 내에서 협의하여 이음교실 운영에 직접 참여한 교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학교별로 1-3명, 총 19명(초등학교 9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특수학교 3명)이었으며, 주로 이음교실 업무를 담당하거나 개별지원 대상 학생의 담임으로 다양한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었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보는 다음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연구 참여자 정보

연번	성별	나이	학력	교육경력(년)	이음교실 역할	소속학교(급)
가-A-T1	여	47	학사	24	업무담당	초등
가-A-T2	여	36	학사	1	교사	초등
가-B-T1	남	35	학사	10	업무담당	초등
가-C-T1	남	42	학사	13	업무담당	초등
가-C-T2	여	55	학사	33	교사	초등
가-D-T1	남	46	석사	21	업무담당	초등

연번	성별	나이	학력	교육경력(년)	이음교실 역할	소속학교(급)
가-D-T2	여	27	학사	4	교사	초등
가-E-T1	남	34	학사	9	업무담당	초등
가-E-T2	여	44	학사	21	교사	초등
나-F-T1	여	50	학사	22	업무담당	중등
나-G-T1	여	31	석사	3	교사	중등
나-G-T2	여	42	학사	17	업무담당	중등
다-H-T1	여	31	학사	3	업무담당	고등
다-H-T2	남	35	학사	5	인성부장	고등
다-I-T1	남	54	학사	25	업무담당	고등
다-I-T2	여	35	석사 수료	7	교사	고등
라-J-T1	남	39	박사	14	업무담당	특수학교
라-J-T2	여	29	학사	3	교사	특수학교
라-J-T3	여	26	학사	2	교사	특수학교

나. 면담의 절차 및 분석

심층면담은 각 선도학교를 방문하여 대면면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COVID-19 확산으로 인해 Zoom을 활용한 화상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선도학교 별로 업무담당 교사와 면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 중에 실시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개방적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음교실 지원 및 주제 선정의 배경, 프로그램 운영, 이음교실의 성과, 지원 요구 및 일반화모델 개발을 위한 제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묻고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학교별로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장면은 참여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Zoom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5명의 대학원생이 2개 학교씩 분담하여 녹화된 면담 영상을 보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5, 줄간격 190% 조건으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총 627

분의 녹화영상에 대한 최종 전사본은 A4 용지 211쪽, 5, 584줄 분량이었다. 2명의 연구자가 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를 찾아가는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선도학교 교사 대상 면담조사 결과

각 학교별 심층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세 가지의 대 주제,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 ‘이음교실의 성과’,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지원 요구’를 도출하였다. 대 주제에 따라 도출된 하위 주제와 범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심층면담 결과 요약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	1) 이음교실 운영 기반 조성의 어려움	가) 수업방해 행동의 정의가 모호하다. 나) 교사들의 동의 확보에 난항을 겪다. 다) 통합지원팀의 구성과 역할에 혼란을 겪다. 라) COVID-19로 인해 연수 계획이 틀어지다.
	2)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의 어려움	가) 고경력 교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다. 나) 서클모임을 운영할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
	3) 개별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가) 개별화 지원 대상 학생 선정기준이 교사마다 다르다. 나) 외부 프로그램 찾기, 연계하기, 적절성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 수업방해 학생 지도가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다.
	4) 자료 및 정보의 부재	가) 이음교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외지 소재 학교, 원하는 외부강사 섭외가 어렵다.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
이음교실의 성과	1) 학생의 변화	가) 수업방해 행동이 감소하고 수업참여 행동이 증가하다. 나)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하다. 다) 정서적 안정,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우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다. 라) 자기성찰의 기회가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교사 인식의 변화	가) 수업방해 행동 지도가 수업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다. 나) 변화의 주체, 학생이 아닌 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다. 다) 개별학생 지도를 넘어 학급단위 수업방해 해결 방안에 눈뜨다. 라) 예방중심의 수업방해 해결이 보다 교육적임을 깨닫다. 마)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에 대한 효능감을 갖게 되다.
	3) 학급 분위기와 관계의 변화	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학급의 사회·정서적 분위기가 변화하다. 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교사와 학생 관계로 변화하다. 다) 학급 내 존재했던 남녀 학생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4) 환경의 변화	가) 신속한 문제해결 노력과 일관된 지도, 동학년 교무실 구축으로 가능해지다.
	5) 효과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의 변화가 수업방해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다. 나)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신속하고 일관된 지도를 가능하게 하다. 다) 컨설팅단의 현장 시범과 코칭: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다. 라) 서클모임: 학생들의 선호활동, 자치활동으로 자리매김하다.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
		마) 강점검사: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다. 바) 학생자치활동: 자율적으로 학교규정을 제정하고 후배를 직접 교육하다. 사)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을 상담하며 교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다. 아) 상담프로그램: 배려와 공감의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다. 자) 수업 내 보조인력 배치: 학습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다.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지원 요구	1)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이음교실, 교권·인권·수업권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다. 나) 관리자의 의지와 실천적 리더십으로 이음교실의 성공을 견인하다. 다)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다. 라) 이음교실 운영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마) 통합지원팀, 통합지원 연계 체계로 재구축하다. 바) 학급 프로그램,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실행하다. 사) 흥미로운 활동중심의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아) 이음교실의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기반 평가 체계를 구축하다. 자) 헌신적인 소수의 교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다. 차) 이음교실,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카) 고등학교에 적합한 이음교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타) 조기 해결을 지향하고, 조기교육 비중을 높이다.
	2)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요구	가) 양질의 이음교실 교사연수, 교사 성장의 동력이 되다. 나) 이음교실 교사연수를 전교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의 토대를 놓다. 다) 교사들이 희망하는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라) 학생 상담 역량을 강화시켜줄 연수가 필요하다.

대 주제	하위 주제	범주
		마) 학급에 적용 가능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희망하다. 바) 컨설팅단의 시범이나 코칭이 유용하다. 사) 양질의 연수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 수업방해 해결 방안 및 지원 요구	가) 원인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다. 나) 예방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길 희망하다. 다) 적절한 사후지도 전략과 매뉴얼이 마련되길 희망하다. 라)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무기력’ 행동에도 대처해야 한다. 마) 학생의 연령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하다. 바) 부모 협력을 이끌어낼 전략이 필요하다. 사) 학급규모 축소가 수업방해 행동을 감소시키다. 아) 보조인력 배치를 통한 수업 중 개별지원을 희망하다.
	4)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가) 이음교실 온라인 소통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다. 나) 외부 강사·기관·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다. 다) 교육청이나 학교단위의 MOU 체결로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다. 라) 외지 학교, 강사초빙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마) 교육청 프로그램 간의 연계적 활용을 도울 로드맵을 구축하다.

가. 이음교실 운영의 어려움

1) 이음교실 운영 기반 조성의 어려움

가) 수업방해 행동의 정의가 모호하다.

교사들은 ‘어떤 행동이 수업방해 행동인지’, ‘심각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교실 내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 수업방해 행동의 유형과 심각도,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다른 학생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옆드려서 자는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 ‘장애로 인한 행동’을 수업방해 행동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업방해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 ‘아니야, 조금 더 심한 경우도 있고 작년과 같은 경우 봤을 때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가-E-T1, 591-593)

기준은, 저도 초에 이(수업방해 행동)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선생님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걸 수업방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수업방해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다를 수도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건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가-C-T1, 546-549)

여기서 말하는 수업방해가 극단적으로 선생님에게 대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업에 집중력이 짧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부분이 소극적인 거, 이게 수업방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다-I-T1, 80-81)

문제된 행동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수업방해가 맞나 이런 게 좀 저희 나름대로는 모호했거든요. ‘장애로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방해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참고 지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련된 교감선생님이 말씀해주시기로는 수업방해가 맞다 하더라구요. 교권 침해가 맞다 하더라구요.(라-J-T1, 356-360)

극적인 방해행위는 아니지만, 그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앞에서 자고 있으면 교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존중감도 떨어지고 업무만족도도 떨어져서 결국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영향이 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친구들이 자고 있으면 옆에서 또 같이 자고 싶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방해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다-H-T1, 26-30)

나) 교사들의 동의 확보에 난항을 겪다.

이음교실 선도학교로 선정되긴 했으나 교사들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학교들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사업이나 COVID-19로 인한 업무 등에 따른 부담과 번아웃을 높지 않았던 교사 수용도의 요인으로 꼽았다.

행복맞이 학교도 했었고, 공간 혁신 사업도 했었고 사업이 너무 여러 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전 번아웃이 좀 돼버렸어요. 해야 하는 연수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 말을 붙이기가 힘들었거든요. 행사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한 학교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행복맞이 학교에다가, 공간 혁신 학교에다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나-F-T1, 469-476)

처음에 수업방해를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선생님들 100% 싸인을 해주실 때, 그때만 해도 정말 다들 의욕적이셨어요. 돈도 준다니까... (웃음) 다 의욕적으로 하는데 코로나가 정말 큰 장애였어요. 정말 코로나는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 제가 생각해도 담임선생님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방해라는 말만 꺼내도 화를 내시는 담임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이게 뭔가 서포트 해준다는 생각으로 시

작한 일인데 플러스적인 어떤 업무를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봐요.(나-G-T2, 280-285)

다) 통합지원팀의 구성과 역할에 혼란을 겪다.

이음교실의 첫해, 선도학교들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였다. 이음교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팀의 구성이나 적절한 역할을 파악해나가고 구성원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통합지원팀의 구성에 있어서는 역할이 없었던 구성원이 포함되기도 했고, 주요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빠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는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잘 모르시고, 저도 담당하면서도 생소해서 협의체의 구성은 우선 부장선생님들 위주로,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실무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관련 부장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다-I-T1, 12-15)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거의 많은 업무를 했고요. 저하고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 부장분들 형태로 운영했고,(가-C-T1, 422-427)

예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이렇게 선도학교 업무 담당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수업방해 학생이 생기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지원팀으로 약간 성격이 바뀌었습니다.(가-A-T1, 41-49)

담임선생님이 여기(통합지원팀)에 한분 밖에 안계세요 . 근데 지금 김○○ 선생님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합지원 팀이 아니신 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 한해 저하고 제일 많이 학급의 문제라든지 회복적 서클 진행이라든지 연수도 같이 받고 해서... (중략) ... 지금 여기 통합지원팀에 사실은 이게 담임이 정해지기 전에 이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여기 담임이 한분 밖에 안계시니까 ... 담임 선생님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좀 골고루 구성이 되면 좋겠다 ... 지금 7

명인데 한 3명, 3학년까지 있으니까 각 학년에 학년부장 선생님을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의논을 하면 어떨까, 담임선생님이 많이 안 계시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나-G-T2, 85-94)

사실 하다보니까 보건선생님하고는 일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보건 선생님도 들어가 계십니다.(나-F-T1, 26-28)

라) COVID-19로 인해 연수 계획이 틀어지다.

선도학교들이 계획한 교사 연수, 부모 연수, 학생 연수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사 연수는 원격 연수로 전환하고, 부모 연수와 학생 연수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5회기로 잡아가지고 3X5, 15 해서 15시간을 할려고 했거든요. 3월달에 한번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지면서 못하게 됐어요, 연수를 ... 그래서 나머지는 도저히... 굳이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웃음) 선생님 너무 싫어하셔서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좀 하기 싫은 마음도 있으니까, 코로나에 뭐 이런 걸 하나면서 안하시겠다고 하셔서가지고, 그럼 이제 원격으로라도 하자 해가지고 원격 연수 15시간은 다 받으셨거든요. 15시간씩을 다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이라도 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책 같은 거 막 사드리고 그랬어요. (나-F-T1, 87-91)

실제로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교사도 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도 하고 학부모도 하고 이렇게 연수를 할려고 했는데 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연수를 할 수가, 안전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F-T1, 95-98)

2)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의 어려움

가) 고경력 교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다.

학급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한 학교들의 경우 학교차원이나 학습차원에서 서클모임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새로운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오랜 교직경력으로 자기 나름의 생활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일괄적인 적용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거나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신뢰서클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뢰서클을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면 모여서 이제 신뢰서클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진행하는 거를 하기 싫어하시고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기존에 해오시던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교육 방침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가?’(나-F-T1, 148-152)

3학년 선생님들이 거부감이 강해서 (컨설턴트가 이끄는 신뢰서클) 3학년을 일부러 했거든요. 했는데 역시 별 효과가 없었고 근데 1학년 선생님들은 젊고 해서 1학년에서는 신뢰서클을 스스로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해보니까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학년 선생님들은, 3학년 선생님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세요. 교직경력이 20년, 뭐 이리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뭘 다른 것을 하라고 그러나’, 이런 게 강하세요.(나-F-T1, 171-177, 183-185)

나) 서클모임을 운영할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

회복적 생활교육 중 신뢰서클이나 문제해결서클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많은 학교들이 시수를 조정하거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과 진로 지도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 특성

상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한 가지 교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 서클모임이 기본적으로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걸리는 모임인데. 학생들은 이 서클모임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장 많이 제시했거든요. 저희도 서클 연수를 들으면서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략) 학생들을 데리고 서클모임을 하려면 교과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빼서 해야 하는 건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다-H-T2, 129-136)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것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회복적 생활을 통해서 애들 갈등을 중재한다는 게 ‘시간이 어디 있다고 애를 붙들고 그걸 다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학년 선생님도 회의할 때 ‘아,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왔었어요.(가-E-T2, 266-269)

3) 개별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가) 개별화지원 대상 학생 선정기준이 교사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선도학교들이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개별화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였다. 체계적인 학생 선정 절차나 기준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담임교사들은 나름의 선정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선정기준은 담임교사마다 제각기 달랐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학생 생활부에서 하던 요선도학생 이런 개념으로, 학교에서 그 수업방해 요인이 많은 학생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별 기준을 보면 일단은 그, 우리학교가 학기 초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2, 3학년들은 기존에 생활지도에서 알게 된 학생들, 그 학생들은 반에서 학급

별로 2-3명씩(없는 학급도 있고)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도학생들을 선별을 했죠.(다-I-T1, 43-38)

저희는 극단적인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선별하는데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담임선생님들은 학습을 놓은 학생들, 학교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또 어떤 담임선생님들은 행동적으로 조금 거친 학생들, 선별 자체로 편차가 많았습니다. (중략) 담임선생님 추천을 받다 보니까, 담임선생님들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다-I-T1, 50-59)

나) 외부 프로그램 찾기, 연계하기, 적절성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음교실 업무담당 교사는 개별화지원 대상 학생에게 제공할 외부 프로그램과 전문가 풀(pool)에 접근하는 일, 그 중에서 적합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선정하고 위촉·계약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선에서 담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한계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항상 그게 고민이죠.(가-E-T2, 528-532)

사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강사를 어레인지하고, 모든 강사들을 저희들이 뽑고 선정하고 위촉하고 계약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가-A-T1, 320-322)

일단은 제가 가장 처음 문의는 WEE센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의를 했고, 그분들한테 혹시나 우리한테 소개해줄 수 있는 상담센터라든지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상담센

터 같은 경우도 워낙 많더라고요. (가-C-T1, 245-248)

WEE센터에서 (추천) 해줬지만, 과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자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번 교육 내용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 번 쪽 읽어봤는데 과연 이게 아이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의문점도 계속 들더라고요. (가-C-T1, 250-256)

다) 수업방해 학생 지도가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다.

교사들은 수업 중 방해행동이 일어난 즉시 교실 내나 다른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기도 하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교사의 지도로 인해 생기는 수업 공백을 학습권 침해로 인식하였다.

옆 반에서 보니까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하느라고 선생님이 그 학생들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는 동안 반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먼저 해결해야 다시 이렇게 학생들 데려가서 다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실이나 여기서 학생들을 데리고 “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니?” 하는 동안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뭐 약간 방치 아닌 책을 읽게 된다든지 (가-A-T1, 340-345)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 선도학교를 진행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 반에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 저는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한 사례가 우리 학급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학생 모두를 지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5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방해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하고. 제가 이 주관식 문제를 하나 내었는데 저희 반 가장 똑똑한 여학생이, 이런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가

-A-T1, 345-352)

4) 자료 및 정보의 부재

가) 이음교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들은 이음교실에서 전 학년, 혹은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회복적 생활교육, 인권교육, 교권교육과 관련하여 활용할 교육 자료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흥미로운 수업 진행을 위한 활동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 실천하는 부분에서 보완이 제일 많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어,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내용을 준비하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자료를 찾는 부분이었던데요. 뭔가 선도학교 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에서 교권 교육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거를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교권 교육 준비할 때도 자료가 너무 없어서 뭔가 재밌는 활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초자료부터 다시 다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도 부담 이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할지를 전혀 몰라서 결국 강의식으로 하고 동영상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데요.(다-H-T1, 142-149)

나) 외지 소재 학교, 원하는 외부강사 섭외가 어렵다.

외지 소재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 외지 기피 현상, 더 많은 강사료 요구, 일방적으로 강사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외지 학교 들은 지역사회 내나 근거리에서 강사를 섭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호소하였다.

외지에 있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초빙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강사 분들에 대한 일정을 맞추어 줘야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가-E-T1, 365-369)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여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서 사실 선택한 거 보다는 저희 위치에서 거제에 일운면이라는 곳에서 제일 그래도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을 했던 경향이 높아요.(가-E-T2, 404-407)

나. 이음교실의 성과

1) 학생의 변화

가) 수업방해 행동이 감소하고 수업참여 행동이 증가하다.

교사들은 이음교실을 운영한 결과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의 최우선적인 목표인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감소와 수업참여 행동의 증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그 중에는 심각한 수업방해 행동을 보이던 학생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변화도 있었다.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그 2학기 초반에 학생이 계속 보였던 행동이거든요. 선생님 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아있거나, 수업 도중이구요. 그 다음에 교실 밖을 뛰쳐나간 사진, 그건 선생님이 찍지 못하셨던 거 같구요. 학교 안에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선생님들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학생이었구요. 그 다음 이게 며칠 전에 선생님이 찍어 주신 게 이런 거거든요. 앉아있질 못했던 학생이 친구들과 앉아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선생님이 보여 주셨구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이 그 학생이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놀라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가-A-T2, 495-503)

학생들에 대한 행동변화라든지 학습에 참여하는 기대 정도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몸소 조금 겪었거든요.(라-J-T1, 289-291)

나)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하다.

이음교실의 목적과 예산 지원은 교사에게 교과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달라진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수업에서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급우들과 협동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거의 사실 2/3 가 ‘선생님 저는 그림 못 그려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2/3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흥미가 없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놀고 싶고,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그 다음에 친구 그림보고 놀리고, 약간 이렇게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꼈고 그 중에 이 이음교실이란 것을 알고 제가 교과 재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실에서 뭔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에 나오는 내용, 뭐 구도, 소실점 이런 것을 재미없게 이론으로 배우면 당연히 더 이 2/3는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와 소실점을 배운 거예요. 그 사진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가을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컨셉을 정해서 조별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온 아이들의 평가가 “선생님, 미술은 색연필로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미술은 이론, 재미없는 이론 수업과 어려운 실기 수업만 있는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장된 범위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니까 그 2/3 가 더 열심히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수업을 하고 난 뒤의 미술 시간이 정말 달라졌어요. 모두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쯤은 생긴 거고 서로 의지하고 의논을 나누고 성공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에 되게 아이들이 뿌듯해 하면서... 계속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약간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음교실을 통해서 이 교실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확장된 범위를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

(중략) 하다보니까 조금 범위도 커지고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이 조금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서로 의지하고 화합되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G-T1, 236-261)

다) 정서적 안정,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우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다.

개별 학생에게 제공된 맞춤형 포괄적 지원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지체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우호적인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일단 학생이 제일 먼저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방치가 되던 학생이었는데 1 대 1 강사 선생님이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게 교우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어요. 또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옛날에는 말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했거든요, 음... 한글 이해들이 전혀 안됐었는데 소통이 되다보니까 교우 관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가-A-T2, 414-419)

라) 자기성찰의 기회가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방관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대신 회복적 생활교육의 문제해결서클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다. 교사는 문제해결서클에서 가진 학생들의 자기성찰의 기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애가 어쨌든 만약에 징계를 받았으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징계를 받았으면. 저... 그 자기들을 고발한 친구가 있거든요. 맞은 애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학교에. 신고를 한 거라서 만약에 징계를 받았으면 그 신고한 애한테 되게 악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중략) 성찰할 시간을 가져서 저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나-F-T1, 346)

2) 교사 인식의 변화

가) 수업방해 행동 지도가 수업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다.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 중에 한 수업방해 행동 지도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수업방해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고 놀랐다.

시작할 때 ‘무엇이 수업방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지도하고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를 수업방해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6월 달에도에서 선도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연수 내용 중에서는 수업방해를 ‘교사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너무 넓게 나오더라고요.(가-C-T2, 142-146)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 선도학교를 진행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 반에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 저는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한 사례가 우리 학급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학생 모두를 지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5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방해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하고. 제가 이 주관식 문제를 하나 내었는데 저희 반 가장 똑똑한 여학생이, 이런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주로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선생님이 그 학생, 다툼은 학생 두 명을 방과 후나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어떤 과 외의 시간에 지도를 해야 될 건데 그 학생을 수업 시간 중에 지도를 하는 바람에 수업에 방해가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5학년을 쭉 다른 반도 봤을 때, 이런 모범적이 여학생들이 그런

사례를 많이 적어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선생님이 놀라면서 어머니, 이제 생활 지도라고 선생님들이 했던 행동이, 어쩌면 선생님들이 한 시간씩을 막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지도라고 했던 내용들이 일부의 학생들은 ‘아, 선생님이 저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때 다짐을 했던 게 ‘아. 이런 수업, 학습권은 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너무 말이 맞는 말이더라구요.(가-A-T1, 345-363)

나) 변화의 주체, 학생이 아닌 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다.

교사들은 스스로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교과를 더 연구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수업방해 행동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방해 해결을 위한 변화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교사인 자신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였다.

사실은 (제가) 조금 성격이 뭔가 틀에 박힌 걸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애네가 이 나이 때 이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해’ 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 좁은 틀 안에 박혀 있었다, 교사로서 약간 뭔가 더 큰 눈을 가질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보고, 조금 만 더 교과에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준비하니까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구나’가 정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방해, 이게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나-G-T1, 268-276)

다) 개별학생 지도를 넘어 학급단위 수업방해 해결 방안에 눈뜨다.

교사들은 이음교실에 참여하면서 문제해결이 개별학생 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해결 방안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학급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수업방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게 거의 다 개별 지원만 해왔던 차에 지금 수업방해에서 가장 저희들(이) 도움 받은 건 ‘아 이게 서클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학급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있구나’하고 ... (나-G-T2, 171-173)

라) 예방중심의 수업방해 해결이 보다 교육적임을 깨닫다.

교사는 연수를 통해 수업방해 행동이 발생한 후 지도하는 것 보다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방해 행동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감소시키는 노력이 보다 교육적으로 적절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음교실 운영의 중점을 바꾸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작년에 수업방해 사안이 발생해서 반을 담당하셨던 담당 선생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런 선도학교를 공모한다는 것을 계획을 알고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교수님의 강의도 듣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고 교육적으로도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애초에 목적과는 방향이 바뀌었지만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가-E-T1, 8-16)

마)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에 대한 효능감을 갖게 되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사 연수를 수강한 것만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신뢰서클과 문제해결서클을 학급에 적용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다. 컨설턴트의 시범과 코칭, 교사서클모임 등을 통해 훈련하고 학급에 적용해봄으로써 두려움은 효능감으로 바뀌었다.

선생님들도 처음에 서클모임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는, 엄청 막연해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 모르니까, 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반에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한 시간을 끌고 가기가 쉬웠다’, 혹은 ‘자신들이 큰 노력을 안 해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되게 알차게 잘 구성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다-H-T2, 338-343)

3) 학급 분위기와 관계의 변화

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학급의 사회·정서적 분위기가 변화하다.

교사들은 서클모임을 반복해 나가는 동안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증가하고, 서서히 심리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뭐 그렇게 극적인 변화보다는 서클모임을 가진 후에 아주 조금 미미한 그런 변화 정도만 관측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가, 그런 미미한 변화만 있지, 무슨 수업방해를 하던 학생이 아예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다-H-T2, 330-332)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음악미술집단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악기로 다 같이 한 소리를 내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어, 우리 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뭔가 잘 맞는 게 있네”, 이런 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빨리 변화는 없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오고가는 대화들, 그런 거 했을 때 처음하고 조금 많이 변했구나 (느꼈죠). (가-E-T2, 150-156)

수업시간에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목이 국어다 보니까, 애들 말문 트일 수 있는 방법을 토크스틱을 이용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데, 그 과정에서 소극적이었고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들이 좀 기다려 주는 시간이, 저도 사실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했었는데, 다그치지 않고 또 차분하게 기다리고 또 다른 애들은 또 경청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실제로 적용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의외로 반응도 괜찮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니까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8-135)

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교사와 학생 관계로 변화하다.

교사가 서클모임에서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할 때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의 방식이 바뀌면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학급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학급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 혹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와서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보통 ‘왜 그랬어’ 화를 내시거나 그거 해결방안을 찾아 가기 위해서 조금 다그치거나 하는 데 대화로 이야기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감사편지 쓸 때 그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우리 반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희가 의견이 있을 때 그렇게 대화로 선생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는 게 정말 멋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존중받는 기분이예요.’ 라는 편지도 받았어요. (나-G-T1, 369-376)

다) 학급 내 존재했던 남녀 학생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학급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학급 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존재했던 편견과 혐오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경계가 허물어져 함께 소통하고 놀이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는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감지하였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반은 남학생하고 여학생들 사이에 조금 경계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학년에 속하는데, 남녀에 대해서 서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말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런(서클)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음악미술집단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악기로 다 같이 한 소리를 내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어, 우리 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뭔가 잘 맞는 게 있네”, 이런 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빨리 변화는 없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오고가는 대화들, 그런 거 했을 때 처음하고 조금 많이 변했구나. 남학생 여학생 경계도 지금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중략) 그리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놀이를 통해서 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나 그런 편견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가-E-T2, 147-161)

4) 환경의 변화

가) 신속한 문제해결 노력과 일관된 지도, 동학년 교무실의 구축으로 가능해지다. 이음교실의 예산지원으로 동학년 교무실을 구축한 학교들이 있었다. 교사들은 동학년 교무실이 동학년 교사모임이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협의 공간으로 매우 유용했음을 강조하였다.

학년실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돈이 이천만을 지원을 받아서 각 학년실을 만들었죠. 어... 학년실이 되게 좋더라구요. 올해의 제일 성과는 학년실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반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얘기를 하고 생활교육방침도 같이 통일되게 착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수업방해가 줄어들고 예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나-F-T1, 127-132)

그냥 수시로 협의를 하는 거죠. 한 학년실에 같이 우글우글 모여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렇게 의논을 해서... (나-F-T1, 367-368)

5) 효과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의 변화가 수업방해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다.

교육청이 이음교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도학교 교사들은 수업방해 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아이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수업방해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수업의 변화가 수업방해 해결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임을 자각하게 해준 계기였다.

제 수업을 오픈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아이들 모둠으로 아이들 의견을 조율하고,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수업방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철학이나 가치를 좀 공유하자고, ‘이거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수업 공유하고 나서 선생님들 서클로 이야기를,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쪽지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아 우리 수업을 바꿔야 하는구나, 수업이 진짜 열쇠구나, ’하셨어요. (나-G-T2, 299-305)

거의 사실 2/3 가 ‘선생님 저는 그림 못 그려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2/3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흥미가 없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놀고 싶고,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그 다음에 친구 그림보고 놀리고 약간 이렇게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꼈고 그 중에 이 이음교실이란 것을 알고 제가 교과 재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실에서 뭔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에 나오는 내용 뭐 구도, 소실점 이런 것을 재미없게 이론으로 배우면 당연히 더 이 2/3는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와 소실점을 배운 거예요. 그 사진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가을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컨셉을 정해서 조별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온 아이들의 평가가 ‘선생님 미술은 색연필로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어요’ 딱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미술은

이론, ‘재미없는 이론 수업과 어려운 실기 수업만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장된 범위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니까 그 2/3 가 더 열심히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수업을 하고 난 뒤의 미술 시간이 정말 달라졌어요. (나-G-T1, 236-252)

나)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신속하고 일관된 지도를 가능하게 하다.

동학년 교무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신속한 의사소통과 해결방안 모색, 일관된 생활교육이 가능해졌다. 교사들은 이를 수업방해 행동의 예방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담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 특성 상 관련 교과교사들이 동학년 교무실에 함께 모여 다양한 수업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 특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가능했던 이점을 언급하였다.

학년단위로 다 해서 몇 반의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 같이 어떻게 하고, 남겨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각 학년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했거든요. 일률적으로 같이 하니까 어느 반은 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도에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효율적이었습니다(나-F-T1, 135-138)

코로나 시기에 가장 교육에 드러난,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힘들이, 교사의 협력이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게 학년 단위의, 또는 학년군 단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단위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D-T1, 371-377)

아무래도 교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과목이고 제 앞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 선생님이신데 아무래도 교과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과학시간에는 너무 잘하는데, 미술 시간에는 되게 산만하다든지, 혹은 미술시간에는 너무 집중하는데 과학시간에는 잠만 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렇게 하면 사실 두 교과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서 교과특징 뒤 학생의 특징 파악해서 아 얘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학생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나-G-T1, 144-150)

저희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이 3학급이거든요. (중략)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사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초반 3월에 계획하고 할 때 조금 어려웠는데 하나를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딱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을 때 뒤이어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자유롭게... 나오게 되면서, 의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행히 잘 협력을 해주셔서가지고 저희,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가-D-T2, 361-370)

다) 컨설팅단의 현장 시범과 코칭: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다.

다수의 교사가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론 연수만으로는 교실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컨설팅단의 컨설턴트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제공한 시범과 코칭은 교사들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무역량을 강화시켜 주었고, 교사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일대일로 담임교사에게 제공된 행동지원전문가의 코칭이 유용했음을 언급했다.

저희가 처음 했을 때 딱 이것을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제시한 게 컨설팅단을 요청, 우리가 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컨설팅단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그거를 반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한번 해보고 들어가니까 수업 들어가서 뭐를 해야할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가장 참 좋았던 것 같았어요.(다-H-T2, 494-499)

저희 학교가 경남에서 사실 문제 학생이 많은 학교라서 이번에 연구위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일부러 저희학교에 배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았어요.(다-H-T2, 472-475)

알고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이제 행동으려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보되 좀 편한 마음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연수 형태 보다는 컨설팅 형태로 돌렸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선생님들이 시도를 해봤던 거 같아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라-J-T1, 275-279)

라) 서클모임: 학생들의 선호활동, 자치활동으로 자리매김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신뢰서클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신뢰서클을 실행하는 자치활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들은 서클모임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저희가 그 학급회의 시간에 존중의 약속 만들기 서클모임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학생들이 그 서클모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깐, 그 서클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 했었고, 앞으로 이런 식의 학급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많았었습니다. (다-H-T2, 167-171)

화면 보이시죠? 네 이게 어제 학생회가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써클로 실행한 영상 이거든요. (영상 재생)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 씩 문제를 이야기해요. (중략) 저는 올해의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그 신뢰서클 운영한 것이 수업방해 해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G-T1, 444-457)

마) 강점검사: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다.

이음교실의 일환으로 검사를 실시한 학교는 그 중 하나인 강점검사가 평소 관찰을 통해 파악하지 못했던 학생의 강점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가능하게 해준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고 강조하였다.

강점검사는 되게 좋았어요. 강점검사는 애들한테, 선생님한테도 좋았고.. 아, 선생님들 애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좋은 점을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강점검사를 해보니까 5개의 강점을 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이 아이에게 그런 면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서 강점검사 되게 선생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랑 상담할 때 자료로 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이러이러한 점을 가진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조절 학습검사는 1, 2학년만 했거든요. 좀 늦게 해가지고 1, 2학년만 해서 다 드렸는데 제가 아직 분석을... 근데 검사결과지는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1, 2학년 선생님한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아직 못 물어봤는데. 평가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거 검사한 것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나-F-T1, 202-212)

바)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후배를 직접 교육하다.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수립하고 준수를 명령할 때,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거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정하고 신입생 대상 교육까지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용도와 준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효과를 보고하였다.

제가 인성부장이다 보니까 인권이라든지 학교생활 규정이 저희들은 되게 중요해요. 전 학생이 그 생활규정 토론회를 하거든요. 12월에 전 학생이 그 토론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난데, 그 절차 중에 하난데 3월에 1학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전달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사가 전달했을 때는 이게 마치 교사가 만든 규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학생회 임원들이 방학 동안에 엄청 많은 준비를 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1학년들 교육을 하기 위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대본도 짜고, 그래서 발표같이 하기도 하고, 질문 나올 거 대비해서 질문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회가 3월에 1학년들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학생 생활지도교사와 같이 해서 방학을 거의 반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생활규정을 책자를 만들어요, 작은 책자를.(나-G-T, 383-393)

사)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생과 하면서, 애들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굳이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더라도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들의 속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깐 받아들이기도 쉽고, 저도 교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제가 느끼는 고민도 애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웃음)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다-I-T2, 235-240)

교실 바깥에서 애들이랑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 시간이 뜻깊었고. (중략) 많이 챙기지 못한 거를 이번에 만회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I-T2, 413-419)

아) 상담프로그램: 배려와 공감의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다.

개별상담 및 또래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친구와 서로 배려와 공감을 나누는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학급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제가 일년 이렇게 해보니까 정서가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애가 기초학력 선생님 때문에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같이 맞물려갔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오게 되면 참 마음을 많이 열고, 또 상담 선생님도 정보를 막 주거든요. 그런 정보가 참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도 상담을 자기가 막 가고 싶어하고 ... 그 다음에 또래 상담을 통해서 애들끼리도 좀 서로 배려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율로, 처음에 계획은 이제 50 대 50으로 계획을 했고, 기초학력 코디, 상담 이렇게 50 대 50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되돌아보면 상담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구요.(가-B-T1, 172-180)

자) 수업 내 보조인력 배치: 학습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업방해 행동을 관리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였다. 수업 내 개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교과 학습의 효과도 높아지고, 학급의 학습 분위기도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부장사 활용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12월까지 계속할 거고. 어... 이 외부 강사가 한 학년에 4시간씩 오전에 수업방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담임 입장에서는 엄청 학습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도 학습 효과도 뛰어나고 아이들도 물론 모둠 학습이 잘 안 되지만 지금, 개별 교육은 잘 되고 있어서, 저희 1, 2, 3, 4학년 선생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C-T2, 93-98)

맞아요. 네. 그 코디 선생님이 전 교과 수업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국어, 수학 수업 위주로 들어오게 배치를 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6학년이 6시간 수업을 하면 하루에, 국어, 수학이 한 3시간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 수학 합친게.

국어, 수학이 3시간, 4시간 되면 그 안에 들어오게 배치를 했고, 그 6학년 수업을 안 하는 거는 5학년 국어, 수학 수업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국어, 수학 시간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B-T1, 162-167)

다. 이음교실의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지원 요구

1)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이음교실, 교권·인권·수업권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다.

교사들은 ‘수업방해’라는 용어로 인해 이음교실이 교사의 교권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권과 인권, 수업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함께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초기연수에서 이음교실의 정의와 지향점을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음 수업방해 프로그램이 교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많이 했는데 ... 그거는 교권이냐 학생의 인권이냐 그걸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뒀냐 되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인거 같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지금은 교권만 보호한다고 해서 이 일들을 모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학생도 배려받고 존중받고 그 학생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야 우리도 학생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되지 지금은 교권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권을 보호하는 뭐를 만들자,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자, 그거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가-E-T2, 491-499)

나) 관리자의 의지와 실천적 리더십으로 이음교실의 성공을 견인하다.

교사들은 관리자가 이음교실의 성공적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음교실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수용과 참여, 연대적 노력을 이끌어갈 길 희망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관리자, 전에도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런 강의는 우리 선도학교 담당 선생님들보다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해야 학교가 빨리 변한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자 분께서 이렇게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위에서 이런 경영, 학교 경영, 학교 철학 이런데 반영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웃음) 저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막 한다고 밑에서 막 해달라고 해도 위에서 조금 더 같이 공유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학교가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가-A-T1, 481-489)

다)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다.

교사들 중에는 외부 프로그램의 교내 유치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외부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이음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음교실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교사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이었다.

수업방해라든지, 학습 부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가 일단 제대로 서야 된다. 교사가 행복한 에너지와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때 이게 더 빠르게...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교사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내년에도 또,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업방해 선도학교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이런 교사의 역량만큼 이 주제에서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제일... 저는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가-A-T1, 314-320)

라) 이음교실 운영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급 학생들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별학생을 외부기관에 연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이음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 프로그램, 필요한 서식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한 교육청 수준에서의 매뉴얼 제작과 보급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 지침을 명시적으로 담은 단위학교 수준의 매뉴얼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이 수업방해도, 이음 교실도 하려면 좀 더 명확하게, 명확한 걸 줘야 선생님들이 할 거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 현장에서 보면 힘들거든요. 스물여섯 명,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명의 아이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뭐 하면서 지도해야 되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만약에 이걸 정말로 일반화시켜서 할 거면 도에서 좀 명확하게, 이것들을 잡아서 전달해주는 게 선생님들을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가-C-T1, 567-57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매뉴얼도 없었고요. 사소한 뭐... 상담센터에 아이를 위탁할 때 사소한 부모동의서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시작을 제가 WEE센터 매뉴얼 참고해서 만든 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초창기에 3월 달쯤에 한 번, 도교육청에서 제목은 매뉴얼인데, 보면 매뉴얼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독서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아동한테 애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 미술프로그램을 지도하라 하는, 학습지 형태. 그런 학습지 형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학급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 된 프로그램. 학년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면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고.(가-C-T1, 460-469)

지침이 있는 편이 좋기는 좋죠. 왜냐면, 저같이 아직 경력이 적을 때는 이런 행동

을 했을 때 ‘어, 이거 어떡해야 되지? 이거 바로 부장님께 알려야 되나?’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침이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이분께 알려야 되고, 이럴 때는 협력교사 선생님께 요청을 하자, 이런 지침이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는데. 사실 아까 부장님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저희 학교 내 뭔가 약간 암묵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장님을 부르고, 교장 선생님을 부르고, 저희 그렇게 알아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딱 규정된 지침은 없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오시면서 이런 사항에서는 이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은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D-T2, 510-519)

마) 통합지원팀, 통합지원 연계 체계로 재구축하다.

이음교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통합지원팀의 구성에 대해 제시한 의견들은 다양하였다. 총괄로서의 관리자, 학년부장, 인성부장, 담임교사, 도움반 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활동이 학급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많은 담임교사가 통합지원팀에 포함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움반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이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만이거나 영양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영양사도 구성원으로 언급하였다.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음교실의 통합지원팀을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큰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팀을 조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 체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에는 개별 지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학급 담임이고, 그 학급 담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은 학년 부장들입니다. 학년 부장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업무 담당자하고

교감 선생님,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정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 교사가 필요하고, 상담교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WEE 클래스가 이렇게 구축되어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WEE 클래스가 없어 가지고 협력교사를 한 분 이렇게 모시기는 했습니다. 지금 지원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협력교사도 상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교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빈 시간들이나 여유가 조금 있는 선생님들,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담교사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구성한다고 해서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WEE 클래스의 상담교사라든지 그 다음 협력교사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D-T1, 144-156)

먼저 그 도움반 선생님은 꼭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특수교사. 특수아동이 수업 방해 아동과 좀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도움반 선생님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선생님 마찬가지로입니다. 보건 선생님도 이렇게 애들이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거나 할 곳이 보건실이거든요. 보건선생님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영양 선생님은, 저희들은 이제 처음 취지는, 이 수업방해 학생들이 보면 대개 비만이거나 이런 영양 쪽으로 도움 줄 수 있으면 영양 선생님 들어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 선생님은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담선생님 같은 경우엔, 이 전담선생님이 작년에는 담임이 됐다가 올해는 전담하시다가 이렇게 초등교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리를 잘 아시고 계셔서 전담선생님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관리자분이 들어오셔야 하는 게 더 활동이 수월하고 어느 정도 정당성도 좀 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B-T1, 72-83)

교감선생님 들어가셔야 하고 보건선생님 빼고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학년부장 선생님도 꼭 들어가셔야 하고 담당인 인성부장 선생님 들어가셔야 하고(33-34)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세요, 참여하시는 것(웃음). 그래서 많이 하는 것 보다...(나-F-T1, 36-37)

두드림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두드림 사업간, 그런 담당 업무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수업방해 요인이 학습에 있다면, 학습 부진에 있다면 두드림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다문화 학생이 있다면 다문화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좀 지원하고 하면서 서로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또 요인은 뭘까, 어떻게 해결해주면 될까 이런 많은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업무 중심으로, 예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이렇게 선도학교 업무 담당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수업방해 학생이 생기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지원팀으로 약간 성격이 바뀌었습니다.(가-A-T1, 41-49)

학급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무위주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몇몇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하나 했는데, 결국은 담임선생님들이 주도하에 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담임, 특히 3학년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부담이 클 것 같고,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다-I-T1, 21-26)

담임선생님이 아니시라서 장점이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담임선생님들이 엄청 바빠셨거든요. 와, 정말 저희 학교는 전 학생에게 전화 돌리고 정말 많이 바빠셨는데 그런 상황에선 또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라서 모이기가 좋았었어요. 모여서 협의하고 담임선생님들이 힘든 거를 저희들한테 ‘애네들 전화 안받고 문제 있어요’ 하고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의논해서 개네들한테 전화도 하고 학부모님도 줌으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래서 다시 담임선생님 서포트 역할 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나-G-T2, 97-103)

학습,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들이 그 방해 행위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로선택이 안 되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가정환경이나 생활문제 일수도 있어서... 그런데 원인별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진로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그리고 보건선생님을 포함시켜서 했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랑 인사안전부장님 같이 넣었고, 학년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학년 부장님들을 포함시켜서 구성을 했습니다.(다-H-T1, 57-62)

바) 학급프로그램,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실행하다.

여러 선도학교들이 교권 및 인권교육이나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과 수업 내용에 녹여 효율적으로 실시하였다. 개학 전 교육과정 재구성 주간을 두어 전체 교사들이 협의하여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사례도 있었다. 일선 학교가 학교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지침이나 사례를 이음교실 매뉴얼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담임들의 부담이 되게 큼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정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재구성을 조금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들... 교권 예방이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을, 수업 재구성을 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을 어... 회복적 생활 교육 10차시를 운영을 하고, 또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어울림 교육과 같이 함께 교육들도 하고.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인권 교육 그... 내용들을 조금 재구성해 가지고 찾아가는 인권 교실이라는 외부 강사들도 초청을 해서, 그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가-D-T1, 197-209)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방해 해결 선도 학교가 되었다, 그 목표를 하나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해야 이제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하셨듯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방해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융합을 시켜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수업방해 행동을 조금 개선시키자 목표를 세운 것처럼(가-D-T2, 267-273)

교육과정 재구성은 2월달에 저희가 교육과정 구성 주간 일주일일 있거든요. 그 일주일을 온전히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교육과정 재구성만 했거든요. (가-B-T1, 378-379)

이거 수업을 좀 새로운 형식으로 짜보자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융합수업을 한다거나 저는 융합수업 중에 한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 공유,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연계해 가지고 주제 하나 잡아서 한 달 동안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한다거나... 수업을 통한 인권교육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어요. 행사를 못하니까 수업에 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나-G-T2, 226-230)

사) 흥미로운 활동중심의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할 때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중심 수업으로 운영하길 원했다. 교육청 수준에서 학급에 적용 가능한 활동중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해주길 희망하였다..

선도학교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에서 교권교육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거를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교권교육 준비할 때도 자료가 너무 없어서 뭔가 재밌는 활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초자료부터 다시 다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도 부담이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할지를 전혀 몰라서 결국 강의식으로 하고 동영상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

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당교사나 그 학교 교사가 알아서 다 준비 하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한 번도 해본 게 아니니까. 그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서, 같이 만들어주시거나(웃음) 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다-H-T1, 144-154)

아) 이음교실의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기반 평가 체제를 구축하다.

이음교실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 내 수업방해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있다. 교사들은 면담에서 학급과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많이 해주었고, 이는 질적 평가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방해행동의 감소를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시한 학교는 경남해림학교가 유일하였다. 이음교실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극적인 변화보다는, 서클모임을 가진 후에 아주 조금 미미한 그런 변화 정도만 관측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가, 그런 미미한 변화만 있지, 무슨 수업방해를 하던 학생이 아예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다-H-T2, 330-332)

제가 모르는 담임선생님 고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학생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작년하고 좀 비교가 가능한데, 작년보다 확실히 요것(이음교실) 때문에 직접적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학생이) 밝아보이고 제가 왔을 때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E-T1, 289-293)

정서적인 거는 측량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 아는 거거든요. 자기 수업시간에 애가 변화되는 모습,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 담임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그거는 사람이 봐야 아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요인은 모르겠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담임의 성향이나 애하고 맞는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학생이 작년에는 수업방

해 학생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덜 하더라 이런 게 몇 건이 있는 거죠.(가-B-T1, 362-368)

자) 헌신적인 소수의 교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다.
학교에 따라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학교의 업무담당 교사는 교사들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음교실 운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소수의 교사들이 먼저 시작하고, 이들이 이룬 성과를 나머지 교사들이 봄으로써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확산 전략을 제안하였다.

만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학교는 일단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 뜻이 강한 선생님이 적어도 3분은 제서야 될 것 같아요. (중략) 학교 안에 3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한 분도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 컨설팅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제가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주제 설정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제 설정 할 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 연수도 하고 하면 되지 뭐 생각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회복적 교육에 가진 뜻을 가진 선생님이 3분 정도는 있어야 가지고 딱 마음을 맞춰 가지고 으쌔으쌔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외부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될 문제 제가 아닌 것 같아요.(나-F-T1, 405-417)

‘애초에 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몇 명만 모아서 할걸’하는 생각을 끝나갈 때 했거든요. 몇 명만 동아리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학급이라도 잘 하면 주위에서 보고 ‘어 괜찮네’ 하면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F-T1, 429-432)

차) 이음교실,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수업방해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든 일어난다.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음교실의 첫해는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많았고, 따라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했다. 교사들은 이음교실이 공모 일년제나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수업방해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음교실이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되는 경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간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가 하면, 지리적 특성 상 강사 초빙이 어려운 외지 지역 학교는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더 많이 배정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적절한 예산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이렇게 ‘어 뭐가 되네!’라고 느낀 지 몇 달 밖에 안됐어요. (중략) (코로나) 1단계 되고 나서 아이들이 전교생이 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방해(해결 프로그램)는 끝나가고 근데 일시적으로 뭔가 하려고 마음먹어서 하려고 탁 했는데 끝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선도학교라고 그래서 공모 일년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 맡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르면 전화 해서 물어보고 근데 이게 선도학교가 아니라면 그런 지원을 혹시 해주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503-513)

사실 저희들은 혜택을 받은 학교로서는 이렇게 몇 개 학교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니까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학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끌고루 사용을 해서 이 모든 수업방해 학생을 없애는 그 날까지 (웃음) 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지 (가-A-T1, 582-586)

그 다음에 기초 학력 선생님도 그대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지속되기 위한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게 진행이 가능할 문제고 (가-B-T1, 210-212)

그 계획을 제출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그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략) 그런 예산들을 조금 균등하게 교육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매년 이렇게 저희 학교가 할지 안 할지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 담당 교사의 의지에 조금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조금 했었습니다. (가-A-T1, 79-86)

그럼 제가 먼저, 일단 제가 수업 선도, 이 학교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외부 상담이나 이런 게 효과가 진짜 좀 좋았고, 이런 다양한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 올해 예산 지원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가-A-T1, 293-295)

외지에 있다 보니까 강사 분들이 오시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초빙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강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을 맞추어 줘야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중략) 연수를 이렇게 진행하거나 학생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창원이나 김해 이렇게 큰 도시에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올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걸 진행할 때도 강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좀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E-T1, 365-373)

카) 고등학교에 적합한 이음교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업방해 행동 양상이 초중등학교와는 다르고, 학업이나 진로 지도에 두는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 특성 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였다. 고등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적합화한 이음교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화로 하면 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다르게 막 수업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방해가 많이 안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조금 고등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다-H-T1, 390-395)

그 컨설팅 받고 나중에 제가 느낀 게,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학급 내에서 전체적인 학급 문화를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게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급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들의 시간적 여유라든가, 학생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아무래도 인문계 학교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없는 시간 쪼개서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지만 좀 더 학급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자꾸 모색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다-I-T1, 282-294)

사실 3학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자격증 따다고 바쁘고, 2학기 때는 취업을 나가서 학교를 떠나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1학년이나 2학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처음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기 때문에, 1학년한테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다-H-T2, 382-385)

타) 조기 해결을 지향하고, 조기 교육 비중을 높인다.

수업방해 행동, 특히 심각한 수업방해 행동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들의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였다. 이는 이음교실이 궁극적인 수업방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교육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수업방해 요인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근데 이 학습 결손 문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결손이 생긴게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나 중학교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굳이 고등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당장의 학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다-I-T2, 385-392)

저희들이 느낀 게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생활, 학교생활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것을 교정하기가 조금 더 쉽다, 고학년보다는. 그래서 만일 이런 프로그램이, 만일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이라 할 수 있겠죠. ‘조기 진단을 내리고 그 것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같이 만족을 많이 느꼈던, 이번에 개별교육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A-T2, 419-425)

이거(회복적 생활교육)를 (중학교) 3학년보다 1학년 때부터, ‘만약 내가 다시하게 되면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착착 올라가는 게 낫겠다. (나-F-T1, 193-195)

2) 더 나은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가) 양질의 이음교실 교사연수, 교사 성장의 동력이 되다.

교사들은 수많은 연수에 지치기도 하지만, 연수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연수를 통해 회복과 성장의 동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교사연수는 중요한거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치거든요.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근데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거기서 또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아서 하니까, 근데 연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쪽에 예산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가-E-T2, 420-423)

나) 이음교실 교사연수를 전교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전면시행의 토대를 놓다.

이음교실의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음교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연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복적 생활 교육이나 제가 그때 제 보고서를 쓰면서 제언에 만약에 회복적 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뭐 이음교실이라고 하는 그 취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회복적 생활 교육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 긍정적 행동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것들을 관심 있는 교사만 할 게 아니라 요즘에 의무 연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의무 연수에서 학교 평가, 다문화, 이런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게 많으니까 만약에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이 좋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교사만 하고 수업, 선도학교 하는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이 연수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요새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온라인으로도 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가-A-T1, 607-616)

다) 교사들이 희망하는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이음교실 참여 학교들은 이음교실 주제에 맞춰 자율적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음교실 연수 지원에 있어서 학교 및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배움과 회복이 일어나는 연수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교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사 연수는 일단 필수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석 선생님이라든지 회복적 생활 교육 연수, 상담 수업 이런 거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수를 들으러 가도 되고 학교로 오셔서 연수를 해주시는 것도 대개 좋았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교사 동아리도 1인 1악기 아이들도 배웠지만 교사들도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악기까지 지원을 해주시구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악기를 배우고 또 그 악기를 배운 것을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지도해주고 이런 게,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사들을 먼저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취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가-A-T2, 227-237)

라) 학생 상담 역량을 강화시켜줄 연수가 필요하다.

매일 학생과 함께 지내며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은 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건강한 교사-학생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상담 역량이 향상되기를 원했다.

저는 이제 그런... 문제행동이 너무 심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하지만 그 게 이제 정말 문제다, 규정하기 힘든 학생들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적당히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집중을 못 하는 이런 학생들... 계속 저에게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상담 기술,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 물론 매일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진솔한 이야기를, 진정으로 자기 이야기

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상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D-T2, 558-564)

그...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safe school' 프로그램을 연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전문 상담교사가, 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는 내용들을 케이스 케이스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케이스일 때는 어떤 질문들로 시작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경남 교육청 단위에서 한 번 추진을 해보자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교육청 단위이든 교육부 단위이든, 그게 호주에서는 우리로 치면 교육개발원 정도의 어떤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서 이런 교사를 위한 정말로 선생님들의 상담 연수는 되게 많은데, 연수를 듣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럴 때 질문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요즘 동영상 기술이 원체 발달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시 게시를 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찾아보고 학생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질문도 요약해보고 또 진행과정들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가-D-T1, 568-582)

마) 학급에 적용 가능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희망하다.

교사들은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수강 후 이를 자신의 학급에 적용해보고 싶었지만 이론중심의 연수만으로는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학급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기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교사의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격연수 이거 받고는 실제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나-F-T1, 195-197)

제가 이제 연수를 들었을 때에는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서클 모임을 교사들끼리 가진면서 하는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교사들 중에 서클이라는 그 활동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 서클모임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구요.(다-H-T2, 124-128)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경험(회복적 생활교육)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앞으로도 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다-I-T2, 123-126)

바) 컨설팅단의 시범이나 코칭이 유용하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컨설팅단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역할을 담당했다. 학교 단위로, 개별교사 단위로 지원한 컨설턴트들의 헌신은 대단했다. 특히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클 시범이나 코칭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높았다. 단위학교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단계에서 컨설턴트의 시범이나 코칭이 제공되길 희망하였다.

저희끼리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컨설팅단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라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강사로 나와서 저희들 같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몸놀이 같은 거나 씨클을 진행해야하는데 씨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시고,(다-H-T1, 157-161)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대본도 짜주시고, 시범도 보여주시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보세요.’ 해서 같이 연습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알려주시고, 불 꺼진 학교에 들어서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 규칙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면 조

금 더 아이들이 쉽게 여기 스며들 수 있어요.’ 라든지 이런 걸 계속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여쭙보고 실제 진행할 때도 선생님이 처음에 앞을 터주시면 제가 뭐 간단한 게임,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끼리 진솔하게 나눠야 하는 대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참여하고 하다가 벅박대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옆에서 싸이펜을 이렇게 한 개 던져주시고 ‘이거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해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나-G-T1, 343-352)

연수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고요’ 이런 것 보다 실제로 해볼 수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터칭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 (나-G-T1, 491-493)

사) 양질의 연수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업무담당 교사들은 학교 내 존재하는 이음교실이나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교사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질의 연수가 거부감을 가진 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는 이야기는 들었고 일정연수 때 한번 강의는 들어본 적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제가 담당이라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잘 안 해주시고 각자 바쁘시고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서 연수를 코필에서 오신 강사님한테 연수를 들었는데 저 자신도 인식에 개선이 되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나. 같이 듣고 있던 선생님들도 인식을, 저랑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어느 분이 오셔서 해주냐에 따라서도 선도학교 운영할 때 선생님들의 협조, 동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가-E-T1, 444-453)

3) 수업방해 해결 방안 및 지원 요구

가) 원인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다.

동일한 수업방해 행동을 보이더라도 학생마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르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야 궁극적으로 수업방해 행동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 파악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그 수업방해요인이나 학교생활은 사실 학습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보면 그 원인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우관계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담임선생님이나 멘토링 선생님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습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습 부분을 학습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지원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대부분의 애들은 학습부분 말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개인 심리적인 문제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담임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도 프로그램으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I-T2, 253-261)

나) 예방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길 희망하다.

교사보고에 의하면 수업방해 행동을 수업 중에 지도하게 되면 수업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방해행동이 아니면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수업방해 행동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주로 일어나는 게, 선생님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꼬리 잡기, 이런 행동들도 가끔씩 보이구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하기 보다는 개념을 몰라요. 아이들이 지들끼리 떠드는 게 그런 게 수업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떠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수업방해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구

요. 그런 거 좀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뭐 수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학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딜 가나 보면은 화장실 간다고...(웃음)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려는 학생도 가끔씩 있구요.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저희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하나하나 다 쫓고 넘어가면 문제인데 보통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애초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려는 이런 프로그램이 위주라서. 이런 학생들을, 이런 행동들이 안 일어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다-H-T2, 403-415)

다) 적절한 사후지도 전략과 매뉴얼이 마련되길 희망하다.

예방적 노력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수업방해 행동은 일어날 수 있다. 교사들은 사후지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응보적 처벌이나 징계가 아닌 긍정적이고 교육적 접근으로서의 사후지도 전략을 담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요구가 높았다.

수업방해 행동이 일어난 이후에 학생들이... ‘이 행동들이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이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뭐... 서울 경기에서 하고 있는 성찰 교실이라든지... 그래서 그...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교내 봉사에 대한, 학교 내 봉사에 대한, 그런...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 학생이 개인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수업방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방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징계의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적 징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중등에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수업방해 해결 선도 학교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들, 프로그램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인성 부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도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컨설턴트거든요. 다른 학교에 컨설팅을 갔을 때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가-D-T1, 530-546)

라)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무기력’ 행동에도 대처해야 한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업시간 학생들의 무기력한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흐트러지고, 게임과 채팅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기력은 자신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수업방해 요인이 무엇이었나 하면 처음에, 아까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욕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수업방해 행동으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였는데 그런 건 없는 대신에 학생들이 무기력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아이가 게임 중독이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수업보다는 수업을 켜놓고 동시에 온라인 게임이나 그리고 채팅 아니면 만화, 웹툰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학교에 오면 하루나 이틀 오는데 일주일째, 학교에 오면 그 밤늦게 자고 해서 새벽 3시, 4시에 잤던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아예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완전 무기력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가-A-T1, 162-172)

마) 학생의 연령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하다.

사춘기와 같은 생애주기별 사건들이 수업방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음... 고학년 저학년에서 드러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어떤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나는 요소들하고, 그리고 저학년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정서적인 불안, 그... 정신적인 불안, 이제 우리가 애기하는 장애로도 볼 수 있는, 충동 장애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도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학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춘기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이 수업방해로 이어졌을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제지한다거나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했을 때는 학생의 행동들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그런 특성들을 잘 구분해서 지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D-T1, 450-460)

바) 부모 협력을 이끌어낼 전략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꾸준한 노력으로 이런 성과도 보고하였다. 교사들에게는 부모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평소의 생각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 바른말 지도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욕설을 하는 환경에서 아이가 자란다면은 바른행동을 90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10을 한다면 그게 행동이 바른 행동이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그런 욕을 하거나 이런 성향이 조정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걸 사전 예방이 목적이란 것을 세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학교하고 가정하고 같이 가야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E-T1, 92-97)

학부모 상담을 꼭 해야했더라고요. 담임교사가 학부모한테 '오늘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학생이 그런 원인을 나타내는 것은 가

정적인 요인이 큰데, 어... 그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가고, 방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 요소들을 더 증가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한테 좀 더, 지난번에는 한 시간을 했는데 오늘 30분을 했고, 빨리 그쳤고, 그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행동,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학생한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마음적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 뭐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학부모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D-T1, 481-492)

사) 학급규모 축소가 수업방해 행동을 감소시킨다.

COVID-19로 인한 비대면수업과 부분 등교가 실시되면서 교사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학급 규모가 작아지면서 수업방해 행동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수업방해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규모를 줄여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분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수업방해 행동들도 분반 수업 했을 때 1학기 때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들이 합반을 해가지고 하니까는 정말 폭발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급당 인원수 줄이는 게 여러 가지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가-D-T1, 586-591)

수업방해 학생이 있거나 할 때, 그래서 우리 아까 1학년 선생님도 저경력자인 자기만의 문젠 줄 알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15명 이내로 가르쳐보면 이거는 교사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생 수가 많은 이런 과밀 학급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모든 어떤 역량을 (웃음) 좀 모

아서 사실은 인원수를 정말, 지금은 28명이 한 반이라면 정말 24명이라도 이렇게 점차 점차 이런 모든 역량을 교육적인 어떤 총 역량을 동원해서 학생 수를 줄인다면, 선생님과 역량과 같이 학생 수를 줄여가면 정말 이런 수업방해, 학습 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웃음) (가-A-T1, 571-578)

아) 보조인력 배치를 통한 수업 중 개별지원을 희망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보조인력을 채용·배치하여 수업시간 개별 학생의 학습과 행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수업방해 행동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교사들은 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저는 2학년, 저학년이다 보니까요. 저는 보조교사 채용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내년에도 특히 저학년은 ‘외부강사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1학년 2학년 네 분 선생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가-C-T2, 179-180)

○○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 지원을 받았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받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PBIS를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덕분에 학생이 또 긍정적 행동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그전보다 앓는 거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도 책걸상에 가서 앉으려고 하거든요. (라-J-T2, 227-231)

기초 학력 보조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주로 보면서 다른 학생도 같이 관리해주시거든요. (중략) 그 다음에 기초 학력 선생님도 그대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지속되기 위한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중략)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여기 이번에 효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내부, 학교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B-T1, 94-96, 209-210, 213-216)

4)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가) 이음교실 온라인 소통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다.

교사들은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 운영 팁이나 노하우, 성과 등 이음교실 관련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이 마련되길 희망하였다.

계속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교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다른 학교도 그것을 다음, 올해는 아니더라도 다음해에는 고려해볼 수 있게 아까 전에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까 중복되는 거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해서 다음 년도에는 ‘아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 (중략) 성과가 있었던, 뭐 좋은 연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내에 있는 사업이나 한 것들을 공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E-T1, 621-629)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상담 창구가 진짜 마련이 되어서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서 이런 친구가 발생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웃음) 상담의 어떤, 그런 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제 하나의 바람이구요.(가-A-T1, 562-565)

나) 외부 강사·기관·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다.

교사들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유치하거나 연계해야 할 때 외부 강사나 프로그램 풀(pool)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도 어려웠다. 접근 가능한 외부 강사,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평점을 주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하였다.

어떤 연수가 좋다, 어떤 연계기관이 좋다하는 것들을 저희 도에서는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음식점도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후기를 보고 그 좋은 곳에 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예산이 있다면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초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가 알음알음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게 좋은 것 같다, 개인적인 경험에 얻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계속 누적해가면서 여기에 이런 연수가 좋다 하면 다른 이후에 저 말고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좀 더 편하게 그것들을 접근하고 거기에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더 나은 개선방법이 거기에 입력되면 그 뒤에 차차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쉽고 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노력이 쌓여가면서 이것들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E-T1, 454-465)

안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컨설팅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느 기관에 어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지를 학교별로 공유를 좀 했었습니다. 아, 우리 학교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우리 학교는 창원시 어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했다, 또는 또 뭐... 창원시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선도 학교별로 자기들이 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 가지고...(가-D-T1, 624-630)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게 뭐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힘들겠지만 사실은 저기 뭐...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라든지 다른 기관들 그런 정도만 안내를 해 줘도, 학교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D-T1, 632-637)

다) 교육청이나 학교단위의 MOU 체결로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다.

학생을 위한 연계지원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직접 외부기관, 특히 병원을 권유하거나 추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지역사회 내 양질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 MOU를 맺음으로써 교사나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소한 절차에 따라 쉽고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수업방해와 관련해 가지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아직까지 그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이 찾거나 학부모가 이렇게... 알아서 찾아가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병원에서는 이것을 비급여로 진료를 할 것인가, 급여로 진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험 처리 때문에, 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하기가 학부모들도 꺼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조금 MOU, 학교 폭력에 준하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치료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D-T1, 596-608)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업방해 문제가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사실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 말씀 굉장히 공감했는데, 저도 뭔가 그 학생들이 어... 그런... 민감한 개인, 이게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부모님이 직접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 자체...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뭔가 우리 교사 입장에서라도 학생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요런 거를 저희가 권유하기도 쉽고,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이 학생이 문제가 심각한데 의학적인 치료 면에서는 전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학교... 학생... 그런 프로그램 지원 기관들 간에 조금 이런 협력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D-T2, 610-619)

라) 외지 학교, 강사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외지나 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지역특성 상 강사 초빙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구하기보다 접근 가능한 강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사 중에는 학교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저희가 거제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랑 관련해서 외부강사 분을 접촉해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학업중단 관련해서 지원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무슨 사물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강사선생님 인프라 자체가 많이 없어서, 다양하게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다-H-T1, 193-196)

저는 이걸 하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밀양 지역의 그러한 마을 학교, 행복학교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을 대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나, 또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도 충분히 애들하고 소통이 가능하신 어머님들이. 선별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참여한다면 학교 안에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금 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다-I-T2, 329-335)

마) 교육청 프로그램 간의 연계적 활용을 도울 로드맵을 구축하다.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중에는 교육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간 연계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면 교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공문에 따라 가지고 협력교사 제도들을 올해 교육

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협력교사는 그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교사였지만 그... 저학년 1, 2학년 학생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또 마찬가지로 또 수업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업 중에는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그 학년에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시간을 분배를 그 학년에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가-D-T1, 388-401)

두드림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두드림 사업간, 그런 담당 업무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수업방해 요인이 학습에 있다면, 학습 부진에 있다면 두드림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다문화 학생이 있다면 다문화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좀 지원하고 하면서 서로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가-A-T1, 41-45)

V.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

1.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가.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의 3단계 예방체계 구축

- 2020년 이음교실의 지원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20 수업방해 행동 해결 프로그램에서는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 절차를 운용하였다. 수업방해 행동이 발생하면 학급 단위에서 담임교사가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고, 담임교사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소수나 개별 학생에 대해 학교 전체 조직인 통합지원팀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음교실은 사후 처벌과 징계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개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학교차원의 3단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단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학교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존중과 배려,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수업방해 행동을 예방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보편적 예방 노력에는 전교생의 80% 정도가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중 평화감수성훈련, 존중의 훈련, 신뢰서클은 평화적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데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2단계는 15%의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단계이다. 2단계 지원에서는 1단계 보편적 지원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이나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문제해결서클과 피해자-가해자 대화모

임, 소집단 상담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이 2단계 지원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 3단계는 약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지원 단계이다. 3단계 지원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지원에도 반응하지 않는 학생, 이미 심각한 문제행동이나 정서·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평가(원인 진단)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단계에서는 행동지원 전문가를 포함한 개별화지원팀을 구성함으로써 기능평가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협력적 노력을 추천한다.
-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지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개별 지원에 이르는 위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3가지 단계는 서로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운영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 학생이 모든 단계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 수업방해 행동의 빠른 개선을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조기교육을 통해 수업방해 행동이 심각하게 발전하거나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저학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지원팀 조직

1) 리더십팀으로서의 통합지원팀의 역할과 구성

- 우선 통합지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지원팀은 이음교실의 학교차원의 3단계 예방 체계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 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이음교실의 운영 계획 및 운영 방침의 수립,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연수 계획과 운영, 1단계와 2단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외

부프로그램 및 전문가 연계, 이음교실 평가 및 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 통합지원팀의 구성에 있어 첫째, 개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음교실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교장이 통합지원팀의 총괄 혹은 통할로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mbara와 Kern(2008)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학교가 지향하는 세 가지 최상위 목표 중 하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이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며, 실무적 리더십을 가진 교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 둘째, 학년부장교사의 포함이 추천된다. 많은 선도학교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동학년 교사모임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와 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년부장교사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 중 한명이 이음교실 업무담당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모든 학교가 전교, 혹은 소집단, 개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상담교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넷째,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수교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업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수교사의 경우 학부 교육과정이나 교원연수를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섯째, 경남교육청이 구축한 컨설턴트가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음교실의 전반적인 운영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턴트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포함하여 통합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전문가 역시 통합지원팀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별화지원팀의 구축

- 통합지원팀이 학교차원의 예방 체계를 총괄하는 팀이라면 하부에 2단계와 3단계의 실행을 위한 팀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몇몇 선도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개별 학생을 위한 개별화지원팀의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통합지원팀과 소통할 수 있는 학년 부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통합지원팀의 진단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전문가들(학내, 외부)이 개별화지원팀에 포함될 수 있다.
- 개별화지원팀은 상시적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유기적 지원과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동학년 교사로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의 연계적 협력도 필요하다.

3)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및 연계적 협력

학교 내 교사주도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방해 행동의 경우 문제가 수업 중 나타나는 방해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0년 이음교실 선도학교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개별지원을 위해 선정한 학생에게 학습 지원, 심리·정서지원, 가족지원 등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포괄적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들 간의 협력적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지도를 위한 노하우나 아이디어의 공유, 협력적 실행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이음교실 개별화지원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경남교육청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 확대

- 2020년 경남교육청 수준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단을 구축하고, 선도학교별로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지원한 것에 대한 교사들의 성과 보고가 있었다.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턴트와 더불어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도 이음교실의 전체 운영과 개별 맞춤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음교실 컨설팅단을 확대 구성하여 선도학교별로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이음교실 1단계 보편적 지원에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W-PBIS)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컨설팅단 내의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턴트들과 행동지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컨설팅을 단위학교에 제공한다면 단위학교가 자기 학교 특성에 맞는 최상의 1단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음교실 운영 매뉴얼 및 활동자료집의 제작과 보급

-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로드맵, 프로그램 및 다양한 활동, 필요한 서식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한 교육청 수준의 매뉴얼 제작과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교사들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 지침을 명시적으로 담은 단위학교 수준의 매뉴얼도 필요해 보인다.
- 교사들은 학급에 바로 적용 가능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활동중심의 교육 자료가 제작·보급되기를 희망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및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활동자료집 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관련 사업간 연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로드맵 구축

- 초등협력교사제, 두드림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음교실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청 사업들을 연계하는 로드맵을 제공해 준다면 예산 절감과 더불어 원활한 협력으로 인한 효율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다수의 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업은 업무 부담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면 교사들의 가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번아웃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2. 수업방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이음교실 운영 방안

가. 이음교실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1) 교직원 대상 연수

- 2020 이음교실 사업을 통한 또 하나의 성과는 교사의 역량강화라고 볼 수 있다. 선도학교 73.4% 교사들이 이음교실의 참여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1.8%의 교사들은 이음교실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수업분위기를 위한 목표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는 동력이 된다.
- 이음교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향하는 상위목표 3가지 중에 이음교실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원들의 80%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한다(Bambara & Kern, 2008).

- 첫째, 이음교실이 학교의 3가지 상위목표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한 관리자의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자 연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 대상 연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수준에서 개별학교들이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는 관리자들이 이음교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사들을 이해시키고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중간보고회와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으나 학교 내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음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위한 연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음교실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며, 연수의 목적은 교직원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연수 형태에 있어 교사들은 지식 전달 위주의 특강보다는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장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경우 컨설턴트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뢰서클의 운영 시범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한 경우, 그 교사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운영에 효능감을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컨설팅 형태의 연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연수는 이음교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다 많은 교사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수 대상을 선도학교 교사로만 제한하지 말고 전체 학교 교사들에게 개방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면 시행을 대비한 토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이음교실에 참여한 교사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동료교사의 입으로 전해지는 성과를 통해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학생 및 부모 연수

- 2020년 이음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학생 대상 연수 내용은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이었다. 학생들은 이음교실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이음교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이음교실 관련 학부모교육은 계획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했거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 계획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8%에 이른다. 하지만 수업방해 행동의 간접적 원인으로 가정 내의 갈등이 1순위인 것을 감안하면 부모와의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부모연수 및 교육과 연계적 노력 등 다양한 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학부모 대상 연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음교실을 통한 긍정적 수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학부모들의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개별화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가족과의 문제가 수업방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환경 개선 및 학부모의 자녀지원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나.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 2020년 이음교실 예산지원을 통해 선도학교들은 주로 상담실을 신축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Wee클래스나 상담실을 리모델링하였다. 대부분 학교는 Wee클래스가 아닌 별도의 이음교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계라는 것

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고, 이를 위해 이음교실은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 차분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교사들은 ‘학년 이음교실’과 같은 명칭으로 동학년 교사 공간 설치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이음교실의 운영에 있어 동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연계적 역할의 중요하다. 따라서 동학년 교사들 간의 협력적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지도를 위한 노하우나 아이디어의 공유, 협력적 실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어줄 동학년 교사 공간 구축이 추천된다.

다. 수업방해 행동 유형과 심각도 정의

- 수업방해 행동은 수업 중 발생하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약 68%의 교사들이 매일 혹은 주에 1-2일, 수업 중 평균 10분 정도의 수업방해 행동을 경험한다.
- 그러나 교사들은 ‘어떤 행동이 수업방해 행동인지’, ‘심각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교실 내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 수업방해 행동의 유형과 심각도, 범위에 있어서의 모호함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 교사들은 ‘엎드려서 자는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도 수업방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진 않지만 학급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수업방해 행동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기도 하며, 방치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방해 행동을 자기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수업방해 행동 유형이 다르고,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었다. 따라서 발달 시기와 성별을 고려한 수업방해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의 문화와 행동유형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수업방해 행동의 기능파악을 통한 학급 내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 본 연구결과에서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원인과 유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학급친구와의 갈등이었다. 학급을 공동체로 느낄 수 있도록 학급친구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거나 수업 내에서 집단 활동 등을 통해 관계개선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이음교실을 통해 친구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신뢰서클이 유용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관계개선의 기회와 더불어 갈등을 풀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 것은 학급 내 대응의 차원에서도 예방적 차원일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또래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수업방해 행동의 간접적 원인으로도 보고된다.
- 수업방해의 유형 중 주로 교사들이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으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그리고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를 하(려)는 행위’ 등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교사 및 또래의 관심 연기인 경우가 많았다.
- 관찰되는 수업방해 행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위한 개별화지원을 고려할 때에는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그 행동을 하는 이유)을 파악하여 그 기능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기능중심으로 수업방해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나 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 운영

1)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교육 영역

-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8개(교권교육, 독서교육, 보건교육, 진로교육, 인성·생활교육, 인권교육, 상담·치유, 대안교육) 영역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수업방해 행동과 관련하여 인성·생활교육, 상담·치유 프로그램, 교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은 학교 적응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업,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진로 교육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전체 학년과 특정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교과목이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이음교실에서 다루는 다양한 내용을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타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용 속에 통합하여 지도함으로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음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교과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교사들은 블록타임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 활동중심 활동, 학생주도적 활동으로 진행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경남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업시간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와 ‘별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 여전히 교사주도적인 설명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체험 및 활동중심의 수업, 학생주도적 수업으로 변화시키는 교사의 노력이 수업방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시수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해주되, 유연한 시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학년 초 집중적인 교육 주간 운영

- 1단계에서는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활동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보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영역을 설정한다. 가치 영역은 학교의 교육목표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지원팀 주관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가치영역별로 기대행동의 설정과 게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존중의 약속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치적으로 기대행동을 설정할 수 있다. 몇몇 선도학교에서 실시한 ‘존중의 약속 티셔츠 제작’이나 ‘포스터 제작과 같은 행사나 활동을 통해 기대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자율적 준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이 시작되는 1주, 혹은 2주 동안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에서 학년 초 집중 교육 주간에 다룰 교육 주제, 구체적인 활동 및 지도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음교실 매뉴얼에 포함하여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한다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음교실의 성과

- 교사들은 이음교실의 운영이 학교와 학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수업방해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수업 분위기가 개선되고, 민주적인 학교·학급 문화가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다소 낮았지만 학교-학부모 간 유대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 교사들이 더 많았다. 선도학교 교사들은 심층면담에서도 학급의 사회·정서적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좋아졌음을 보고하였다.
-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음교실 프로그램이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업태도의 개선과 수업 참여율 증진’, ‘전반적인 생활에서 긍정적 태도와 정서 증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향상’, ‘친구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개선’, ‘무기력감 감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중 무기력 감소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 비율(75.8%)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학생들(89.3%)이 이음교실 운영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스스로도 ‘수업태도 및 수업참여율’,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업시간 자신감과 효능감’,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다.
- 이상의 모든 결과는 이음교실의 성과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이음교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 학교 수 확대에 타당성을 제공해준다. 심층면담에서도 교사들은 이음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 설문조사와 면담분석을 통해 이음교실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나 이음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를 제시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해줄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수업방해 행동의 감소를 가장 잘 나타내면서 학교 여건에서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권침해

해로 보고된 건수, 무단결석, 수업방해와 관련되어 징계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에 의뢰된 건수, 징계 건수 등이 생각해볼 수 있는 잠재적 지표들이다. 수업방해 문제와 학업성취도 간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업성취도 자료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이음교실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음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선도학교 교사들은 이음교실에 대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원했다. 이음교실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들 간에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 운영 팁이나 노하우, 성과 등 유용한 정보를 서로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방안 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이 마련되면 교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 외부 프로그램이나 강사 초빙을 원하는 학교가 있을 때, 질적 프로그램과 전문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수준에서 영역별 풀(pool)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교사들이 평점을 부여하거나 후기 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면 지속적인 질 관리에도 유용할 수 있다.
- 교사나 부모가 개인 차원에서 외부기관, 특히 병원을 연계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지역사회 내 양질의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한다면 교사나 부모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 쉽고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외지나 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거나 학부모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강사 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2020a).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e-음교실 선도학교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자료집.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경상남도교육청(2020b).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계획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경상남도교육청(2020c). 2020. 수업방해 어떻게 해결할까?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2020d). 2020.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추진 현황(보고). 경상남도교육청:학교혁신과. (2020.06.10)
- 경상남도교육청(2020e).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2020f). 수업방해? 이렇게 예방해요!: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사례집. 경상남도교육청.
- 여희영(2010).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대안학교 중등 학생들의 문제행동, 삶의 질, 수업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진오(2009). 초등교사의 문제행동 중재방법 활용실태 조사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0(1), 229-249.
- 푸른나무재단(2019). 2019 연차보고서. <http://btf.or.kr/index.asp> (자료실에서 발췌, 2020.11.01.)
- Bambara, L. M., Kern, L. (2008).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지원(이소현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05)
- Freeman, R., Eber, L., Anderson, C., Irvin, L., Horner, R., Bounds, & M., Dunlap, G. (2006). Building inclusive school cultures us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Designing effective individual support systems for student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1(1), 4–17.

- Kincaid, D., Dunlap, G., Kern, L., Lane, K. L., Bambara, L. M., Brown, F., Fox, & L., Knoster, T. P. (2016). Positive behavior support: A proposal for updating and refining the definition.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8(2), 69–72.
- Sawaka-Miller, K. D., & Miller, D. N. (2007). The third pillar : Linking positive psychology and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School Psychology Forum*, 2(1), 26–38.
- Wagner, M. M. (2002). Students' achievement and perception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in single-sex mathematics in one coeducational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Yeung, A, S., Craven, R, G., Mooney, M., Tracey, D., Barker, K., Power, A., Dobia, B., Chen, Z., Schofield, J., Whitefield, P., & Lewis, T, J. (2016).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f positive effect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 145–170.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이음교실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학생들과 교사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조사와 연구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활용을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 인제대학교 연구팀

- 조사기관 : 인제대학교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책임연구원 : 문현미 교수
- 조사관련문의 : 055-320-3774

1	학교 및 응답자 기본정보
----------	----------------------

Q1. 다음은 학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소속학교	① 일반학교 ② 대안학교 ③ 특수학교			
		□ 초등 □ 중등 □ 고등			
2	학교 설립유형	① 공립 ② 사립 ③ 국립	3	소속 교육지원청	
4	학교유형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5	학교 학생수	명	6	전체 교사수	명

Q2.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직급/직위	
3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4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5	소지자격증	(예)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표시과목 등), 학교상담사 1급 등			
6	담당 학급 학생수	명			
7	수업방해 행동학생수	① 1~3명 ② 4~5명 ③ 6~10명 ④ 11명 이상 ⑤ 없음			

2 수업 운영 실태

Q3. 선생님은 다음 수업방법 및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 수업방법과 운영 방식이 학생의 수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활용도				영향도			
		매일 활용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전혀 활용 않음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Q3-1	강의식 수업								
Q3-2	토의·토론식 수업								
Q3-3	활동중심 수업								
Q3-4	협동학습(또래학습 등)								
Q3-5	협력교수(팀티칭 등)								
Q3-6	블랜디드러닝								
Q3-7	블록타임제								
Q3-8	프로젝트 수업								
Q3-9	외부 강사활용 수업								
Q3-10	1:1 학습지원								

Q4.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Q5.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교육내용 및 운영이 학생의 수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Q5-1	학급 규칙				
Q5-2	교육시수				
Q5-3	학급 학생 수				
Q5-4	학생 생활교육				
Q5-5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 및 매체				
Q5-6	교육 내용의 난이도				
Q5-7	교육내용의 구성				

3 수업방해 실태

Q6.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① 있다. (▶Q7로 이동) ② 없다 (▶Q15로 이동)

Q7.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수업방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Q8. 올해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동을 체크하고, 체크한 행동에 대해서만 심각도를 체크하세요

학생행동		경험 여부	심각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8-1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Q8-2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나 떠들거나 웃는 행위					
Q8-3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Q8-4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Q8-5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Q8-6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Q8-7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Q8-8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Q8-9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Q8-10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Q8-11	혼잣말을 하는 행위					
Q8-12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Q8-13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Q8-14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Q8-15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Q8-16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Q8-17	과제를 해 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Q8-18	기타 ()					

Q9. 수업방해 행동은 대체로 빈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① 매일 ② 주 3-4일 ③ 주 1-2일 ④ 월 3-4일 ⑤ 월1-2일 ⑥ 기타 (_____회)

Q10. 수업방해 행동은 대체로 수업시간에 몇 분 정도 일어납니까?

① 5분 미만 ② 5분-10분 ③ 11분-20분 ④ 20분 이상 ⑤ 수업시간 내내

Q11.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사의 질책/교정 ② 요구나 지시 ③ 교사 위주의 수업진행 ④ 활동중심 수업진행 ⑤ 학생주도 활동 ⑥ 학급친구와의 갈등 ⑦ 어려운 과제나 활동 ⑧ 재미없고 지루한 과제나 설명 ⑨ 기타(_____)			

Q12. 수업방해 행동을 직접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지만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간접사건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생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② 약물치료 ③ 부정적 사회관계 ④ 사회적 고립 ⑤ 가정에서의 갈등 ⑥ 학업적 실패 ⑦ 과도한 게임 ⑧ 기타(_____)			

Q13.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사의 관심 얻기 ② 또래의 관심 얻기 ③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 얻기 ④ 감각추구 ⑤ 감각회피 ⑥ 과제 벗어나기 ⑦ 교사 관심 벗어나기 ⑧ 교사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⑨ 또래 관심에서 벗어나기 ⑩ 기타(_____)			

Q14.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감 ② 언어적으로 질책, 혹은 타이르고 넘어감 ③ 수업구성이나 좌석을 변경하는 등의 환경 변경 ④ 수업 중 벌이나 방과 후에 남기기 등의 훈육 ⑤ 부모 상담이나 학생상담으로 연계 ⑥ 동료교사의 자문, 혹은 다중지원팀과 협력하여 대응함 ⑦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에게 해결을 요청함 ⑧ 학교의 수업방해 행동 지도지침에 따라 지도함 ⑨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 ⑩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접근함 ⑪ 기타(_____)			

※ 경남교육청에서는 수업방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 수업 행동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음교실은 모든 학생을 위한 긍정적 수업 행동을 강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방 활동과 행동 원인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와 배움, 성장에 중점을 두는 서로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 수업 행동 지원 3단계 모델>

Q15.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긍정적 수업행동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16. 긍정적 수업행동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이 수업방해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어렵다. ④ 매우 어렵다.

Q17. 학급에서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권교육 ② 독서교육 ③ 보건교육 ④ 진로교육 ⑤ 인생생활교육 ⑥ 인권교육
 ⑦ 상담·치유프로그램 ⑧ 대안교육 ⑨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⑩ 기타
 (_____)

Q18. 학교현장의 수업방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4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다음은 이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대로 <u>솔직하게 응답</u>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수업방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음교실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20. 우리학교의 이음교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수업방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21. 선생님의 학급에 이음교실 개별지원 대상 학생은 몇 명입니까? _____ 명

Q22.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대상 학생을 선정한 준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상담(면담) 결과 ② 각종 검사결과 ③ 수업방해 행동의 정도 ④ 교사의 추천
 ⑤ 학생의 희망 ⑥ 기타(_____)

Q23.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우리 학교의 주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② 수업방해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 운영
- ③ 수업방해 학생 대상으로 원인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 ④ 기타(_____)

Q24.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이음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협력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문항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Q24-1	학교 내 교직원들 간의 협력				
Q24-2	학부모와의 협력				
Q24-3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Q25.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이음교실의 운영에 대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실시계획에 없었다 ③ 계획은 했으나 하지 못했다. ④ 기타 (_____)

Q26.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이음교실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27.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이음교실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① 예 (▶Q28로 이동) ② 아니오 (▶Q29으로 이동)

Q28.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별도로 정해진 교실 ② Wee클래스 교실 ③ 기타(_____)

Q29. 독립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도로 정해진 교실 ② Wee클래스 교실 ③ 기타(_____)

Q30. 전용공간에 꼭 있어야 할 설비(가구, 실내장식, 교구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1. 이음교실 프로그램은 수업방해 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2. 수업방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사 역량 강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자체 연수 ② 외부전문가 초청 연수 ③ 수업방해 예방 관련 원격 연수
④ 컨설팅 ⑤ 교육청 주최 워크숍 ⑥ 기타(_____)

Q33. 성공적인 이음교실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연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방해 행동 예방 및 대처 기술 ② 학생을 심층 이해하기 ③ 학생상담 기술
④ 수업방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⑤ 기타(_____)

Q34. 수업방해 해결 프로그램의 구성 시,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하고 그에 따른 적절성도 체크하세요. (실시여부에서 중복체크 가능)

문항		실시 여부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Q34-1	교권교육 프로그램					
Q34-2	독서교육 프로그램					
Q34-3	보건교육 프로그램					
Q34-4	진로교육 프로그램					
Q34-5	인성·생활교육 프로그램					
Q34-6	인권교육 프로그램					
Q34-7	상담·치유프로그램					
Q34-8	대안교육 프로그램					
Q34-9	기타 (_____)					

Q35. 다음은 우리학교가 운영한 이음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세요.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Q35-1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				
Q35-2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Q35-3	실행절차와 실행과정				
Q35-4	프로그램 실시 공간				
Q35-5	학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				
Q35-6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의 태도나 반응				
Q35-7	통합지원팀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Q35-8	외부강사의 전문성				
Q35-9	이음교실 운영교사 인센티브 및 지원				
Q35-10	예산 지원				

Q36. 이음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타났거나 기대되는 학생의 변화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Q36-1	수업태도의 개선 수업 참여율 증진				
Q36-2	전반적인 생활에서 긍정적 태도와 정서 증가				
Q36-3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향상				
Q36-4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Q36-5	교사와의 관계 개선				
Q36-6	무기력감 감소				
Q36-7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 증진				
Q36-8	기타()				

Q37. 다음은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이 학교·학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Q37-1	수업방해 행동 감소				
Q37-2	교권 침해 감소				
Q37-3	수업분위기 개선				
Q37-4	민주적인 학교·학급 문화 조성				
Q37-5	학교-학부모간 유대 협력 강화				
Q37-6	기타()				

Q38. 이음교실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끝.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이음교실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업방해 실태 및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학생들과 교사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조사와 연구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활용을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 인제대학교 연구팀

- 조사기관 : 인제대학교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책임연구원 : 문현미 교수
- 조사관련문의 : 055-320-3774

1	학교 및 응답자 기본정보
----------	----------------------

Q1. 다음은 학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소속학교	① 일반학교 ② 대안학교 ③ 특수학교			
		□ 초등 □ 중등 □ 고등			
2	학교 설립유형	① 공립 ② 사립 ③ 국립	3	소속 교육지원청	
4	학교유형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5	학교 학생수	명	6	전체 교사수	명

Q2.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직급/직위	
3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4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5	소지자격증	(예)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표시과목 등), 학교상담사 1급 등			
6	담당 학급 학생수	명			
7	수업방해 행동학생수	① 1~3명 ② 4~5명 ③ 6~10명 ④ 11명 이상 ⑤ 없음			

2 수업 운영 실태

Q3. 선생님은 다음 수업방법 및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 수업방법과 운영 방식이 학생의 수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활용도				영향도			
		매일 활용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전혀 활용 않음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Q3-1	강의식 수업								
Q3-2	토의·토론식 수업								
Q3-3	활동중심 수업								
Q3-4	협동학습(또래학습 등)								
Q3-5	협력교수(팀티칭 등)								
Q3-6	블렌디드러닝								
Q3-7	블록타임제								
Q3-8	프로젝트 수업								
Q3-9	외부 강사활용 수업								
Q3-10	1:1 학습지원								

Q4.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Q5.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교육내용 및 운영이 학생의 수업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Q5-1	학급 규칙				
Q5-2	교육시수				
Q5-3	학급 학생 수				
Q5-4	학생 생활교육				
Q5-5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 및 매체				
Q5-6	교육 내용의 난이도				
Q5-7	교육내용의 구성				

3 수업방해 실태

Q6.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 ① 있다. (▶Q7로 이동) ② 없다 (▶Q15로 이동)

Q7. 올해 담당 학급 및 교과수업의 수업방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Q8. 올해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동을 체크하고, 체크한 행동에 대해서만 심각도를 체크하세요

학생행동		경험 여부	심각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8-1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행위					
Q8-2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과 사적대화(대화)로 떠들거나 웃는 행위					
Q8-3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발표, 이야기를 하(려)는 행위					

Q8-4	수업에 늦게 오거나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					
Q8-5	엎드려 있거나 자는 행위					
Q8-6	수업 중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Q8-7	책상이나 의자, 물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행위					
Q8-8	교사의 교수활동에 끼어들어 참견이나 아는 척을 하는 행위					
Q8-9	이상한 장난이나 몸짓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Q8-10	다른 학생들을 건드려 귀찮게 하는 행위					
Q8-11	혼잣말을 하는 행위					
Q8-12	다른 교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Q8-13	던지기, 밀쳐 떨어뜨리기, 넘어뜨리기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Q8-14	교사나 학생들에게 언어적·신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Q8-15	교사나 친구의 질문,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Q8-16	교사나 친구의 호명, 말 요청 등을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Q8-17	과제를 해 오지 않거나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					
Q8-18	기타 ()					

Q9. 수업방해 행동은 대체로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매일 ② 주 3-4일 ③ 주 1-2일 ④ 월 3-4일 ⑤ 월1-2일 ⑥ 기타 (_____회)

Q10. 수업방해 행동은 대체로 수업시간에 몇 분 정도 일어납니까?

① 5분 미만 ② 5분-10분 ③ 11분-20분 ④ 20분 이상 ⑤ 수업시간 내내

Q11. 수업방해 행동 직전에 발생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사의 질책/교정 ② 요구나 지시 ③ 교사 위주의 수업진행 ④ 활동중심 수업진행 ⑤ 학생주도 활동 ⑥ 학급친구와의 갈등 ⑦ 어려운 과제나 활동 ⑧ 재미없고 지루한 과제나 설명 ⑨ 기타(_____)			

Q12. 수업방해 행동을 직접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지만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간접사건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생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② 약물치료 ③ 부정적 사회관계 ④ 사회적 고립 ⑤ 가정에서의 갈등 ⑥ 학업적 실패 ⑦ 과도한 게임 ⑧ 기타(_____)			

Q13. 수업방해 행동 후 학생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사의 관심 얻기 ② 또래의 관심 얻기 ③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 얻기 ④ 감각추구 ⑤ 감각회피 ⑥ 과제 벗어나기 ⑦ 교사 관심 벗어나기 ⑧ 교사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⑨ 또래 관심에서 벗어나기 ⑩ 기타(_____)			

Q14.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발생 시 대처방법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감 ② 언어적으로 질책, 혹은 타이르고 넘어감 ③ 수업구성이나 좌석을 변경하는 등의 환경 변경 ④ 수업 중 벌이나 방과 후에 남기기 등의 훈육 ⑤ 부모 상담이나 학생상담으로 연계 ⑥ 동료교사의 자문, 혹은 다중지원팀과 협력하여 대응함 ⑦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에게 해결을 요청함 ⑧ 학교의 수업방해 행동 지도지침에 따라 지도함 ⑨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 ⑩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접근함 ⑪ 기타(_____)			

※ 경남교육청에서는 수업방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 수업 행동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음교실은 모든 학생을 위한 긍정적 수업 행동을 강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방 활동과 행동 원인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와 배움, 성장에 중점을 두는 서로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 수업 행동 지원 3단계 모델>

Q15.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긍정적 수업행동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16. 긍정적 수업행동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이음교실이 수업방해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어렵다. ④ 매우 어렵다.

Q17. 학급에서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교권교육 ② 독서교육 ③ 보건교육 ④ 진로교육 ⑤ 인성생활교육 ⑥ 인권교육 ⑦ 상담·치유프로그램 ⑧ 대안교육 ⑨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⑨ 기타(_____)			

Q18. 학교현장의 수업방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부록 3]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인식조사(선도학교 학생용)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이음교실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분위기 및 이음교실에 대한 학생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학생들과 교사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조사와 연구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활용을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 인제대학교 연구팀

- 조사기관 : 인제대학교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책임연구원 : 문현미 교수
- 조사관련문의 : 055-320-3774

1 응답자 기본정보

Q1.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소속학교	① 일반학교 ② 대안학교 ③ 특수학교
		☐ 초등 ☐ 중등 ☐ 고등
3	학교 성별유형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4	학년 (생년월일)	학년 (년 월 일)

2 학교 분위기 조사

Q2. 다음은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평소의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1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2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학생들은 누가 먼저 과제를 끝내는지를 두고 경쟁한다.					
4	우리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5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6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7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8	우리학교에서는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9	우리학교 학생들은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고 싶어한다.					
10	학생들은 교실에서 많이 떠들지 않는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11	학생들은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12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13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별로 안한다.					
14	교실에서 놀림 당하거나 놀리는 일이 많다.					
15	선생님들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16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17	몇몇 학생들은 항상 자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한다.					
18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도와줄 때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19	우리학교는 뭔가를 배우는 곳이기 보다는 관계를 맺는 곳이다.					
20	학생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때 얘기하면 선생님들과 마찰이 생긴다.					
21	학급회의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22	학생들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23	우리 학교에서는 일단 규칙이 만들면, 그 규칙을 일관성있게 실행한다.					
24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틀린 대답을 하면 무안을 준다.					
25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뤄진다.					
26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낙서를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다.					
27	학생들은 과제를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28	선생님들은 학생이 서로 과제를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29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30	선생님들은 자주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31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야단을 맞는다.					
32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나 활동지, 작품을 친구에게 서로 보여준다.					
33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별로 없다.					
34	학생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면, 선생님들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35	과제가 분명해서 학생들이 뭘 해야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36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37	학생들이 서로 잘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38	선생님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					
39	며칠동안 수업에 빠지면, 학생들은 그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40	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다.					
41	선생님들은 화를 내지 않고 많이 참으신다.					
42	우리학교에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룹도 있다.					
43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44	선생님들은 학습 내용과 관련없는 말씀을 많이 한다.					
45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잘 계획되어 진행된다.					
46	선생님들은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면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47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48	우리학교의 몇몇 학생들은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49	선생님들은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에 관련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50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는다.					

3 이음교실 인식조사

Q3. 학교에서 운영한 이음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Q4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1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수업참여율이 높아진다.					
2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3	수업시간에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진다.					
4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진다.					
5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6	학교생활에서 무기력감이 감소한다.					
7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8	기타(_____)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비선도학교 학생용)

학교 분위기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이음교실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분위기에 대한 학생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학생들과 교사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조사와 연구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활용을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 인제대학교 연구팀

- 조사기관 : 인제대학교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책임연구원 : 문현미 교수
- 조사관련문의 : 055-320-3774

1 응답자 기본정보

Q1.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소속학교	① 일반학교 ② 대안학교 ③ 특수학교
		☐ 초등 ☐ 중등 ☐ 고등
3	학교 성별유형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4	학년 (생년월일)	학년 (년 월 일)

2 학교 분위기 조사

Q2. 다음은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평소의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1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2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학생들은 누가 먼저 과제를 끝내는지를 두고 경쟁한다.					
4	우리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5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6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7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8	우리학교에서는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9	우리학교 학생들은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고 싶어한다.					
10	학생들은 교실에서 많이 떠들지 않는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11	학생들은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12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13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별로 안한다.					
14	교실에서 놀림 당하거나 놀리는 일이 많다.					
15	선생님들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16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17	몇몇 학생들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한다.					
18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도와줄 때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19	우리학교는 원가를 배우는 곳이기 보다는 관계를 맺는 곳이다.					
20	학생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때 얘기하면 선생님들과 마찰이 생긴다.					
21	학급회의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22	학생들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23	우리 학교에서는 일단 규칙이 만들면, 그 규칙을 일관성있게 실행한다.					
24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틀린 대답을 하면 무안을 준다.					
25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뤄진다.					
26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 낙서를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다.					
27	학생들은 과제를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28	선생님들은 학생이 서로 과제를 도와가며 하는 것을 좋아한다.					
29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30	선생님들은 자주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문항		매우	조금	보통	별로	전혀
31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야단을 맞는다.					
32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나 활동지, 작품을 친구에게 서로 보여준다.					
33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별로 없다.					
34	학생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면, 선생님들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35	과제가 분명해서 학생들이 뭘 해야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36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37	학생들이 서로 잘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38	선생님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					
39	며칠동안 수업에 빠지면, 학생들은 그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40	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다.					
41	선생님들은 화를 내지 않고 많이 참으신다.					
42	우리학교에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룹도 있다.					
43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44	선생님들은 학습 내용과 관련없는 말씀을 많이 한다.					
45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잘 계획되어 진행된다.					
46	선생님들은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면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47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48	우리학교의 몇몇 학생들은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49	선생님들은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에 관련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50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실때 끼어들지 않는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